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52호 2015년 4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지난 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23차 평의원회의에서는 빅터 차 교수가 Keynote Speaker로 강연해주었다.

미주 동창회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Keynote Speaker 김성 전 주한 미국대사

오는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6월 19-21일, Philadelphia) 에서 주제 연설을 해주기로 한 전 주한 미국 김성(사진) 대사는 2014년 11월 6일 부터 미 국무성에서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and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Korea and Japan 로 새 임무를 맡고 있다.

김 대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김 대사는 the Special Envoy for the Six-Party Talks 를 맡았었으며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at the Department of State(August 2006-July 2008) 도 책임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국무성에서 극동지역 Seoul, Tokyo, Kuala Lumpur and Hong Kong 에서 해외 근무를 했었고 the State Department's Office of Chinese Affairs and Staff Assistant in the Bureau of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에서 a desk officer를 맡았었다. 국무성 근무 전에는the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김 대사는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부모님을 따라 미국이민 후에 Los Angeles 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대학은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서 학사, Loyola University 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법학 석사학위는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받았다. 김성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정부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그의 경험, 지식, vision & perspectives를 평의원들과 Philadelphia 지역 동문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미주 서울대 동창회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기대가 크다. 많은 평의원님들의 참석을 바란다.<http://www.state.gov/r/pa/ei/biog/111575.htm 에서 인용>***

동창회보 설문조사 내용 분석

'아주 만족·그만하면 만족' 80%

응답자의 36%가 의대 동문들로 회보에 대한 관심도 가장 높아. 응답자의 81%가 50~60 학번대, 67%는 회보에 기고한 적 없으나 높은 관심도…, write-in으로 많은 조언에 큰 도움.

이번 12대 동창회에서 전체 동문을 대상으로 동창회보에 대한 설문조사가 처음 시행되었다.

처음이라서였는지 참여 동문의 수는 설문기간에 비해 많지 않았다. 모두 42명의 동문이 응답해주었는데, 통계 숫자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신 동문들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았다.

응답자 현황을 보면, 의대 동문들이 가장 많았고(36%), 출신 대학별로는 공대·문리대·농대 등의 순이었다. 익명으로 답변하신 동문 분들도 많은 편이었다.

학번으로는 50학번대 43%, 60학번대 38%로 두 세대가 81%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7%가 '회보에 글을 기고한 적이 없는' 동문들이었다.

질문 항목별로 보면, 동창회보의 내용이나 화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편(80%)' 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이면서 학술적으로 심도있는 기사를 많이 실어 주기를 원하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역 동창회의 활동사진이 크거나 많다는 지적과 함께, 사진의 해상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의 해상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인쇄의 품질에 관한 문제다.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사진의 품질에 비해 실제 인쇄된 사진 상태는 품질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문들의 기고문이 많이 다양해지고 내용도 훌륭하나, 지나친 개인이나 가족의 자랑, 편협된 내용, 일상적인 내용 등은 자제했으면…, 하는 지적도 나왔다. <2면에 계속>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이호원 교수팀

DNA 레이저 프린터 개발

인공 생명체 실현할 장치…, 레이저 프린터로 DNA 뽑아

레이저 프린터로 원하는 DNA를 뽑아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인공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염기 서열을 원하는 대로 정확히 만들 수 있는 만큼 인공 생명체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교 권성훈(사진 왼쪽)·이호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팀은 오류 없이 합성 DNA를 초고속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오염에 강한 효모균이나 특정한 기능을 강조한 대장균을 가능케 하는 합성 생물학은 생명체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을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기존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인공생명체를 제작하는 연구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원하는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만드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고 수억 원이 들어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염기 서열은 오류가 하나만 있어도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아예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염기서열을 오류 없이 빠르고 값싸게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DNA의 기본 단위를 하나씩 합성하는 대신 수십 만 종의 염기 서열을 한꺼번에 만든 뒤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것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방법을 고안했다. 짧은 단위의 DNA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는 만큼 염기서열을 대량으로 만든 뒤 염기서열 분석 장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염기서열을 가진 것만 골라 레이저로 추출해 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기존에 미국 DNA 제작 업체에 주문해서 DNA를 전달받기까지 3년이 걸리던 시간을 1주일로 단축할 수 있다. 4억~10억 원씩 들던 제작 비용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아낄 수 있었다.

권 교수는 "효과적인 인공 생명체를 찾아내려면 수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착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DNA 서열을 레이저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꿈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다.*** <동아일보>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1차 연도에는 회비17%를 달성, 이번 2차 연도 목표는 30%를 달성하려고 하오니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 6월 19일(금)~21일(일) ▶행사 내용 :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제14대 미주 동창회장 선출 포함), 친선 골프대회(Spouse 위한 별도 관광 프로그램 계획) ▶장소 :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d, Plymouth Meeting, PA 19462. 610 -834-8300. http://doubletree.hilton.com/en/dt/groups/personalized/P/PHLGHDT-SNU-20150618/index.jhtml?WT.mc_id=POG Single bed : $ 114+tax (+1 sofa bed) Double Beds : $124+tax(+1 sofa bed). Reservation **마감 6월 4일 (3면 게시판 참조)**

주필 칼럼

북한 경제의 개혁

백 순(법대 58) DC
미 노동성 전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미주 동창회보 주필

최근 북한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이 들려서 통일을 바라는 미주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못해 왔던 북한이 작년에는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한계상황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1% 안팎의 저성장을 보여 주었던 북한경제가 금년에는 무려 7.5%의 고성장으로 껑충 뛰리라는 보고다.

국가배급 이외에 벌이의 3분의 2 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이중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유경제시장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고 The Economist 주간지의 기자가 출간할 책 '북한의 비밀'에서 밝히고 있다.

식량자급, 고도성장, 사유경제 확산 등 북한경제의 낙관적 현상은 작년 5월 30일에 실시한 경제개혁정책에 힘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89년 소련 공산주의의 해체와 독일의 통일,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200만 명의 아사를 겪은 북한은 두 번에 걸쳐 경제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각 가정에 텃밭을 인정해 주는 1990년 후반의 경제개혁과 국가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자유화한 2002년 7월1일의 경제개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5년에는 개혁을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3차 경제개혁의 요체는 무엇이며 앞으로 1970년 후반에 실시하여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한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같이 북한경제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드러낼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 보기로 한다.

2014년 5월 30일에 실시한 경제개혁은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농부들에게 국가 할당량의 60%를 소유할 수 있게 했고 과외 노동으로 획득한 곡식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가정에 허락된 텃밭을 100평방미터에서 3천300평방미터로 크게 확대한 정책이다.

둘은 국가산업의 경영자들에게 근로자 채용권과 셀러리 책정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시장에서 구매하고 생산품의 얼마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셋은 특별경제 zone을 지금까지 나진에만 설치했던 것을 2013년에 19개로 대폭 확장한 정책이다.

농업생산의 일부 시장화, 산업경영의 일부 자유화, 경제특구의 설치확장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5.30 경제개혁은 얼마간의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예측되는 것은 북한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중국경제나 베트남 경제와 같이 개혁 개방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30 경제개혁 정책의 범주를 뛰어 넘어 담대하고 올바른 개혁 개방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부족한 국내의 시장경제 전문성과 자본을 외부로부터 들여 와야 한다. 중국경제나 베트남 경제의 개혁 개방을 초창기에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외국 전문성과 외국자본을 유입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외부로부터의 전문성과 자본유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둘째, 정치나 통치의 분야는 모르더라도 경제에 관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화를 대폭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김씨일가의 독재정치하에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개혁이 불가능할 것 같고 5.30 경제개혁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

편집위원 시 감상

봄

서윤석(의대 62) VA
한국 현대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푸른 들판 펼쳐진 아침
의젓한 소나무 가지 사이로
높고 맑은 하늘 환하게 열리는 날에
무엇을 더 바라리오

찬 별들 사라진 이 아침
새들은 짹짹 밀린 이야기 나누고
살얼음 녹은 연못가를 거닐 수 있는 날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긴 겨울 억세게 불던 바람
열병에 시달리던 세상을 식혀주고
잠을 깬 사슴들 눈 맞추는 이 날에
무엇을 더 바라리오

숨쉬는 땅에 해님 가득히 내리고
새 생명 다시 피어나는 포근한 봄
대륙을 달리는 기적소리 힘차게 울리는 날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1면에서 계속>

가장 만족하는 기사 카테고리를 보면, 자랑스런 동문, 미주동창회 소식, 건강, 논설 등을 많이 꼽았고, 이어 수필이나, 시를 선호하는 편이었다.지역 동창회 소식을 선호하기는 하되, 사진의 크기를 좀 줄였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다. 일상적인 행사 중심보다는 더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로 미주 동창회 본부기사가 나가는 1~3면에는 미국에 사는 동창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관심이 많고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전문적인 수준으로 다뤄 주었으면 했다.

모교 소식에 대해서는 너무 자랑거리가 아닌 내부 동정을 자세히 다뤘으면…, 하였고, 관악세대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면서 그들의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문 동정은 지역 동창회의 도움을 받아 숨은 동문들의 인재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부음란을 고정 설치하기를 원하는 의견도 나왔다.

매 호마다 자랑스런 동문 기사를 싣기를 바라며, 은퇴한 동문들의 과거 경험들을 소개하는 내용과 특별히 IT정보, 생활정보, 좋은 신간서적 소개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필진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동문회보를 꼼꼼이 읽고 있다는 분이 80%나 되었다.

특이한 지적 사항은 뉴욕지구의 '뉴욕과 뉴저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창회비를 30% 이상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지역 동창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문들을 독려하도록 하고, 동창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홍보를 자세히 하자는 것이다. 또한 매 호마다 동창회비 납부 실적을 그래픽으로 그려서 인식시키자는 제안 등과 함께, 무엇보다 동창회보를 많은 동문들이 읽도록 좋은 기사를 싣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끝으로 미주 동창회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제안으로는 '보다 젊은 세대(70학번대 이후)로 교체가 일어나도록 미주 동창회에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라'는 지적과 함께, '평의원 제도 개선, 동문들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보다 더 해 줄 것' 등을 들었다.

전체 동문들에 비해 응답자가 너무 적었지만, 내용은 모두 수렴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주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이번에 수집된 동문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응답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임원들을 대신하여 지면으로 깊이 감사 드린다.***

<글 = 정평희 사무총장·
장경태 편집위원장>

모교 약대졸(11) 권소연 동문

미 정부 국제 학술지 EHP '이 달의 뉴스'에 선정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환경보건전망(EHP·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2월호 '이달의 뉴스'에 모교 약학대학 2011년 졸업생 권소연(28·사진)동문의 석사학위 논문이 선정됐다.

논문은 권소연 동문이 2013년에 쓴 '중금속 납이 신장의 적혈구 탐식 작용을 매개한 신장독성 유발기전에 관한 연구'로 EHP는 "신장 단일조직에 초점을 맞춰 납의 독성을 연구한 기존 연구와 달리 조직간 유기적인 작용으로 신장 독성이 유발된다는 것을 증명해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HP는 이공계 분야 8천500여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학술지 중 유일하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다.

권 동문은 모교 약대 정진호 교수의 지도로 2013년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
<동아일보>

<고침> 미주 동창회가 제정한 '우수 작품상 응모'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 및 작품에 대한 기사가 지난 3월호 1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필 부문에서 서안희(간호 63) 동문의 작품 '미국 병원에서의 첫날'이 장려상에 선정됐으나 편집 실수로 누락됐습니다. 서안희 동문에게 사과를 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

차 례

3.<우수문학상>시 우수상 '먼지' / 시 장려상 '봄 창가의 기적' /미주 동창회 한인 동포위한 Medical Campaign Project 제의/게시판
4~7.<우수문학상>수필 우수상 '신들린 듯 했던 어느 날/ 수필 우수상 '뿌리내리기 /수필 장려상 '천송이의 백합' '외씨버선' '미국병원에서의 첫날' /<추모사> 존경하는 벗 김홍락 박사를 기리며/<시감상>하늘과 땅의 그대
8.<모교소식>서울대 'UAE왕립병원 2월 18일 개원/ 빗물박사 한우영 교수, 빗물은 하늘이 주는 가장 평등한 자원/ 서울대 합격 현수막 '이젠 그만'
9.<모교소식>기초학문분야 학문 후속세대 선정/ 금융위 요직 모교출신 독점/ 해외 개도국 교수 박사학위 지원/ 공대 신입생 중 17% 의대도 합격했지만 공대 선택
10.<정신건강의학>성격개조<1>/<생활의 단상>은퇴 첫날의 단상/<시사 엿보기>선진국 푸념
11~13.미주 동문 동정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20~21<관악세대 아크로 광장>가족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세계 문화유산 수난시대 /내 안의 감정들과 친해지기/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건강의학>고혈압 약 줄이면 큰일 나나/ 동심흔드는 어른들의 욕심
22.<영화이야기>팜므 파탈 'Body Heat'
23.<My Journey to>아메리칸드림 50년<21>
24.<문학기행-2>스미소니언 역사 박물관
25.<역사칼럼>아직기와 직지왕/<여행기> 폴튜갈 여행
26.<여행기>산티아고 순례길 낙수<4>
27~32.회비 후원금, 동문업소록, 광고
30~32.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미주 동창회에 한인 동포들을 위한
Medical Campaign Project 제의

미주 동창회에 동문들 뿐 아니라 우리 미주동포들의 건강을 위한 Medical Campaign Project 조성의 필요성이 제의되고 있다.

Emeritus Sungkyunkwan Univ. Medical School의 박찬형(의대 56) 교수는 동창회보 3월호에 '재미 한인동포에 유독 많은 암 별도의 해결방법을 찾자' 라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를 통해 미 거주 한인동포는 한국거주 한인과 같이 위암이 많은데 생존률(5년 생존율)은 한국거주 한국인처럼 높지(70%) 않고 미 전체평균의 30%로 낮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주 한인 암 생존율이 낮은 원인은 비싼 비용때문" 이라며 "Korean American Intellectual Leadership이 협력해 주미 한국대사와 미 기구들과 행정 system을 움직이면 Diagnostic Endoscopy로 처리, insurance로 커버돼 이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에 NIH 임종식(의대 57) 박사와 필라델피아 한수웅(의대 57)·한혜원(의대 55·제퍼슨 의대 간질환 예방센터 소장) 박사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에 6월 19일 열리는 미주 평의원회의에서 이를 위해 논의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미주 동창회 산하에 Medical Campaign Project를 구상하기로 했다.***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시 우수상

"더 많이 노력할 것을 다짐"

먼지

먼지채로 탁탁 털어도 다시 오고
물걸레로 싹싹 훔쳐도 다시 오는
먼지

나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돌아가셨을 때 화장되시어 재 되신
우리 어머니

이승의 이 아들이 못내 그리워
저승에서 먼지 되시어
오시고 또 오시나 보다 ***

김택수(의대 58)NV

이번에 저의 시 '먼지' 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쁜 반면 시인의 눈엔 별것 아닐 텐데,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은퇴 후 시간이 풍부하게 되니 자연 가사에 더 참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먼지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가구 위를 비치면 먼지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털어낸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저렇게 또 쌓였으니 내게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날 보고 싶어 저렇게 오고 또 오고 할 이는 우리 어머니 밖엔 안계실 텐데, 하는 환상이 이 시의 시상이며 시 '먼지' 가 쓰여졌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시 장려상

"입상 계기로 작품활동 더 치중할 것"

봄 창가의 기적

봄비가 내리는 창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들었던 난초 가지에 꽃이 피었어요
생의 기적인가요?
당신께는 언제 기적이 올까요?

당신과 나는 봄내 창가의 기적을 지켜보았지요
그러다 하루 저녁 늦게
당신을 입원시켜드리고 오니
세 송이 꽃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당신한테 안했어요.
당신에게 물어보았어요
집안 잘 간수하고 화초에 물 주느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당신은 창문 쪽으로 머리를 돌렸어요

나는 당신 얼굴 앞으로 갔어요
당신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어요
당신의 눈은 젖어 있었고,
내 양쪽 뺨에는 두 줄의 눈물이 흘렀어요 ***

조봉완(법대 53)CH

미주 동창회 최초 우수 작품상 모집 응모 작품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mateur 문인의 최초의 시를 뽑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어로, 순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38년간 역사학자로 학문에서 봉사하다가 은퇴한 후였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한지 금년에 만 59년이 되었기 때문에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하여, 저작으로 영어로 쓴 학술 서적을 수권 출판했고, 2013년에는 저의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나던 이야기를 역시 영어로 써서 출판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시 '봄 창가의 기적' 은 50여 년 같이 살아온 남편 고 오기창 박사가 돌아가신 후 얼마 안되어 쓴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이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자유시 형태로, 처음에는 영문으로 썼다가, 제 자신 서투르나마 한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장려상이라는 입상을 계기로, 앞으로 틈나는대로 한글로 더 많은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에반스턴에서> ***

게 시 판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 2015년 6월 19 - 21일 ▶6월 18일(목) = Brain Network Symposium 연사와 참가자 도착 & 저녁식사 ▶6월 19일(금) = 오전 8:30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시작 + 서재필 박사 기념관 Tour + 전야제 겸 지역 동창회 장기대회 ▶6월 20일(토) = 오전 9:00 제24차 평의원회의 + 제14대 미주동창회장 선거 + 저녁만찬 ▶6월 21일(일) = 오전 11:00 전국 평의원 친선 골프대회(서정화 총동창회장 순회배) ▶장소 =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oad, Plymouth Meeting, PA 19462 (T)610-834-8300 (F)610-879-4242(F) **http://doubletree.hilton.com/en/dt/groups/personalized/P/PHLGHDT-SNU-20150618/index.jhtml?WT.mc_id=POG** Single bed: $114 before tax (+1 sofa bed) Double Beds : $124 before tax (+1 sofa bed) ▶예약마감 = 6월 4일. but first come first served at the above rate ▶연락처 = 오인환 회장(301-775-3919), 손재옥 차기회장(267-736-2992)***-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지원 후원기금 모금

미주동창회가 제23차 평의원회의(2014년 6월 28일)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에 이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연구소(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 라는 이름의 Think Tank를 건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들과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해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Think Tank의 포럼, 브리핑,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나아가 서구 학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을 극복해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서 보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쌓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서구 학계에서는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한국하면 일본의 식민지 혹은 중국의 변방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모금운동은 서울-총동창회에서도 총동창회 회보에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million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프로젝트 팀 리더 = 하용출 교수(외교 67),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이채진 교수(정치 55) ▶회장 = 오인환(천문 63) ▶후원금 보낼 곳 =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감사기간 = 2015년 6월말 100% 마칠 때까지 요청한 세금 보고자료 보내주기 바랍니다.

▶박숙 위원(Chicago,847-707-9693 jhcspc@naver.com,) = 달라스·록키마운틴·시카고·중부텍사스·휴스턴 동창회 ▶김창수 위원(NY, 212-760-1768.changsookimcpa@ hotmail.com) = 뉴욕·뉴잉글랜드·조지아·오하이오·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지영 위원(남가주 ,213-308-0009 jkym@yahoo.com) = 남가주·북가주·샌디에고·아리조나·하와이 동창회 ▶노상문 위원(DC, 703-749-1110 cpa_noh@yahoo.com) = 미네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캐롤라이나·테네시 동창회

▶배규영 위원장(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영 위원장께 연락바람.***

지역 동창회 소식

▶남가주 = 골프대회(4월19일).

▶시카고 = 골프대회(5월 16일 12시 반 Willowcrest).

▶워싱턴 DC = 골프대회(4월 26일 오후 1시 Northwest 15711 Layhill Rd., Silver Spring, MD 20906 참가비 80달러. 저녁식사 제공). 정기총회(7월 11일 토. 오후 5시. 우래옥)

▶휴스턴 = 4월 18일 김태훈 동문 주선으로 Crawfish Boiling(Claiborne West Park, Vidor TX)***

지역 동창회장님들께 드리는 부탁사항

▶지역동창회 주소록을 표준화된 Template Spread Sheet를 써서 유지해 주시고 본부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연회비($100)를 납부해주십시오.

▶지역동창회 분담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대 김귀현 학장께서 미주 지역 음대 동문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지역 동창회는 속히 본부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연락처를 보내주신 지역 동창회는 DC, S. California, N. California, NY, Philadelphia, Washington State, Oregon, Dallas Texas, Central Texas, Minnesota,Tennessee,Florida, Vancouver 등 13개 지역 동창회.***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수필 우수상

신들린 듯 했던 어느 날

김규호(의대 58) CH

나이 70이 넘어 가끔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면 한 두번 씩은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연속극보다 더 긴박했던 일들이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을 깨닫고 흐뭇해진다.

나 뿐만 아니고, 주위를 돌아볼 때 나이도 비슷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모두, 아무리 적어도 한 두편 씩은 그런 '스페셜 스토리' 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진짜 소설' 캐는 재미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요즈음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나' 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은 가슴 설레는 감동과 함께 그 때 그 시절이 주던 젊음까지를 되살려 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된다. 다음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나만의 자랑스런 감동 실화다.

▶What if?, What if not? = 미국에서 5년간의 소아과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후 뉴욕주 로체스터시에서 40~50분 거리의 소도시에 개업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다. 일은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었고 금요일 도착한 나는 토요일 오전 11시 파트너로 같이 일하게 될 소아과 의사와 병원식당에서 만났다.

나보다 10년 연상의 심장전문 소아과 의사였다.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알아보느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그 날 아침 일찍 약 6개월쯤 된 유아가 고열과 발진(發疹)으로 응급실에 와 입원시켜 놓고 관찰 중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같으면 그렇게 병명이 뚜렷이 나오지 않아 갸우뚱하게 되는 환자를 보았다면 'What if?' , 또는 'What if not?' 하는 걱정때문에 어딘가 초조한 모습을 보였을 터였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 괜찮겠지, 하면서도,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당장 소아과 병동으로 가보자고 하였다. 발진환자는 보기 전에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커피도 다 마시지 못한 채 우리는 급히 병동으로 올라갔다.

첫 눈에 출혈성 발진이 온 몸에 쫘악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교과서에서만 보아왔던, 말로만 들어왔던, 소아과 의사에겐 제일 무서운 병으로 알고 왔던 '뇌막구균 패혈증(Meningococcal Septicemia)' 그것도 급사성(Fulminating Meningococcemia) 환자 임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무서운 뇌막염으로 알려져 있음. 요즈음 한국 신문에는 뇌막염을 수막염으로 부르는데 언제부터 이름이 바뀌었는지 궁금).

▶소아과에서 가장 무서운 병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병을 어떻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수련의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덕분으로 생각한다.

아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중한 상태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당장 혈관주사를 시작하고, 균 배양검사 샘플을 받자마자 항생물질을 투여했다. 벌써 혈압은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태라 척수액 검사는 할 시간도 없었다.

'Mouth-to-mouth' 인공호흡도 했지만 12시 경에는 환자가 숨을 거두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됐다. 완전히 가망없는 환자였음에도 왜 'Mouth-to-mouth' 인공호흡을 시도했는지는 지금도 설명을 할 수 없다. 아마도 수련의 5년간 얻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습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밖에는….

나도 예방차원에서 항생제를 먹어 두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7년 동안 우애와 신뢰로 지속되었고, 40년 넘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낸다.

40도 고열의 환자라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면 척수액 검사를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에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짜리 아기들에게서 '웃는다' 는 것이 내게는 아기 건강진찰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기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이것은 소아과 의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긴가 민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울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신을 바르르 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잠깐, 2~3 초 사이였지만 이 Shaking Chill(오한으로 떠는 것)은 나로 하여금 꼭 입원시켜 관찰해보아야 되겠다는 심증을 굳혀준 요인이 되었다. 예사 '경련' 은 절대 아니었다!

내 방에 아기 엄마를 앉혀 놓고 입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4개월 건강진찰과 예방접종을 하려고 아기를 데려 온 엄마에게,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았고, 설득하느라 30분은 족히 걸렸다. 나는 웬만하면 환자의 입원치료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날 나의 고집은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될 정도였다. 'What if?' 의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다. 고맙게도 아기엄마는 나를 믿고 입원시키기로 동의하였다.

▶시간과의 싸움 = 점심 때 Lab Report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말짱했고 백혈구도 정상에다 위험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 'What if?' 의 가능성이 적어지고 혹 공연히 입원시킨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려고 했다.

오후 5시 일과를 마치고 소아과 병동으로 올라가니 아기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우유를 잘 먹는다는 아기 아빠의 말에 안도는 하면서도 아침부터 나를 걱정케 했던, 그 어떤 염려가 나를 계속해서 밀어 부쳤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염려하는 그 병일 경우 '시간과의 싸움' 에서 이겨야 했다. 여기서 시간에 얼마나 쫓기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에 이기기 위해서는 척수액 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아기아빠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무 드러난 증상이 없어 어떤 병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었고, 또 나자신 긴가 민가 하는 상태에서 젊은 아빠의 동의를 구하느라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고맙게도 아기아빠도 동의해 주었다.

척수액 검사 때 간호원이 물론 꽉 잡고 있었기도 했지만, 심하게 울거나 발버둥쳤던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기의 힘이 어느새인지 꽤 빠져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수십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다.

척수검사할 때는 압력도 중요하지만, 척수액이 물같이 투명한 것인지 혼탁한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투명하면 정상이거나 바이러스에 의한(또는 결핵성) 뇌막염이고, 혼탁하면 세균성 뇌막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주 투명한 척수액이었다.

▶끈질기게 보호자를 설득 = 일단은 내가 그렇게 무서워 하며 걱정했던 '세균성 뇌막염' 의 가능성은 희미한 듯 했다. 그래도 척수액을 실험실에 보내 정확한 결과를 알려면 대개 한 시간은 걸린다고 환자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생각해보니 이 14파운드 정도나 되는, 포동포동한 4개월짜리 아기에게 만약에 혈관 주사를 놓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검사 결과가 확실히 나와 항생물질이나 기타 필요한 약을 혈관으로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기가 포동포동한 관계로 혈관찾기가 힘들 수도 있으므로 그리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미리 시작을 해 보자고 나는 아버지를 설득했다.

애가 우유도 잘 먹는데 웬 혈관주사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누누히 설명하니, 마지못해 승락을 하였다.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자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다. 환자 입원에서부터 뇌리에서 떠나지 않던 그 무서운 병, 누구에게도, 특히 환자 부모에게도 뚜렷하게 병명을 대지도 못한 채, 어떻게 부모를 납득시킬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고 밖에 할 수가 없다. 환자 부모들이 나의 건의에 끝까지 완강히 반대할 수도 있었겠고, 또 한 술 더 떠 주치의를 바꾸겠다고 했을 수 도 있었을 터였다.

혈관주사하면 나만큼 잘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만큼 꽤 자신이 있었던 나였지만 이 환자의 양쪽 팔에서 혈관찾기에 실패하고, 손등에서도 실패할 만큼 아기는 포동포동했다.

결국은 발목 혈관을 찾으러 내려가는데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다. 아기의 배 위에 붉은 색깔의 피부변화가 눈에 띄였는데, 점 하나로 시작해서 마치 논밭에서 물꼬를 터줄 때 물이 퍼져나가듯 부채꼴 모양으로 확 퍼졌다가 2~3초 만에 없어지는 것이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참 이상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100% 성공률인 발목의 정맥을 찾아 혈관주사를 준비했는데, 이 때 쯤에는 이미 조그마한 출혈성 반점이 2개인가 3개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 했던(모든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도 의심하면서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뇌막구균 패혈증의 소견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발목에 이미 준비된 혈관주사선으로 항생물질을 투여할 수 있었던 것은 출혈 반점을 본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지금 생각해도 이것은 아마도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더 자세한 기록은 따로 적어 간직하고 있다) 그 날 나는 딱 신들린 사람같이 이 모든 일을 해냈다!

돌이켜 볼 때 43년간의 소아과 의사 생활에서 수만명의 열병환자를 다루었지만, 이 아기의 경우처럼 많은 고심과 그에 따른 희열을 드라마틱하게 가져다 준 환자는 없었다. 이 후에도 나는 뇌막구균 뇌막염 다섯 케이스를 완치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들 케이스는 전형적인 케이스(Typical Case)로,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 내 환자는 아니었으나 굳이 맨 첫번의 불행한 케이스까지 넣자면 6.5 케이스를 본 셈인데 이는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대도시에 살았더라면 = 그 후 1년 쯤 지나 시카고에서 소아과 학회가 있었는데 시카고 트리뷴에 '6개월된 아기의 뇌막구균 뇌막염을 완치시킴' 이란 기사가 대서특필된 것을 읽고 감개가 무량했다. 나도 큰 도시에서 살았더라면! '4개월된 아기의 뇌막구균 패혈증을 기적같이 완치시킴' 이라고 대서특필될 수가 있었을 터인데! ***

소아과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각을 다투는 병으로는 이 외에도 후두개염(Epiglottis, 喉頭蓋炎),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세균성 뇌막염 등이 있지만 '뇌막구균 패혈증' 이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어려운 병으로 생각된다. 8~9일간 고열이 계속되는 Kawasaki라는 병도 있지만 대개 발열 5~6일 지나 진단이 나오고, 열이 난지 9일내 치료를 받으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무서운 병에 들지 않는다.

그로부터 4~5년 후 어느 늦은 봄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무슨 이상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어떤 기이한 예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시작된 날이었다.

9시 오피스에 도착해 첫 환자를 보고난 직후였다. 소아과 전문 간호원(Pediatric Nurse Practitioner; 건강한 유아들의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담당)이 4개월짜리 여자아이가 예방접종을 하러 왔는데 열이 있다며 내게 진찰을 부탁해 왔다. 고열은 아니고 약 38.5도쯤이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전 날 맑은 콧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다 멀쩡해서 열이 있는 것도 모른 채 데려왔다고 했다. 진찰테이블에 올려놓고 옷을 다 벗긴 다음 진찰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우는 소리도 멀쩡했고, 어디엔가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딱 한 가지, 아기를 웃게 만들 수가 없었다.

"뇌막구균 패혈증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혈관주사로 항생물질을 투여한 것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는 아마 세계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준 미주 동창회에 감사

고교와 대학 동창회 주최 수많은 골프시합에서 한 번도 입상해보지 못한 사람이, 부끄러웠지만 친한 친구에게 사정해 그의 트로피를 빌려 어린 아들들에게 자랑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인데, 이 조그만 White Lie가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악영향은 절대 아니었으리라 생각되고, 이제는 장성한 아들들에게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자그마한 정성이었다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8년 학창시절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주저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도 저같은 사람의 글에서 많은 격려를 받고 마음을 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미주 동창회보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들어 Cochlear Implant를 받은 청력장애인이지만, 그나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을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이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 소재를 가능케 해준 평생의 Mentor인 시카고의 Dr.Jack Metcoff(Michael Reese Hospital 소아과장)와 대학 3년 선배 손기용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수필 우수상

뿌리 내리기

이원택(의대 65) CA
미주 의대동창회보 편집위원장

금년 남가주에 유례없는 가뭄이 찾아왔다. 집으로 올라가는 비탈길 위에 심어 놓은 비교적 한발에 강하다는 cypress와 carrot tree들이 누렇게 변해갔다. 시에서 나무에 물 주는 것을 금했다기보다 호스를 들고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하기가 힘에 부쳐 그냥 내버려 뒀더니 나무 색깔이 갈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어 버렸다.

보통 나무들은 뿌리 내리기까지 3년이면 족하다. 그리고 일단 뿌리가 내린 나무들은 좀처럼 고사하지 않는다. 그 언덕배기는 2006년에 진흙 사태가 나서 사방공사를 할 때 중장비로 흙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2007년 나무를 심을 때 삽이 들어가지 않아 곡괭이로 땅을 파야만 했다.

나무를 심고 연필 굵기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시켜 뿌리 부분에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하는 세류관개(trickle-irrigation) 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나 3~4년 후에는 물 나오는 구멍이 막히거나 파이프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었다. 보통 토양에는 이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나무 키만큼 뻗어내려 물을 주지 않아도 1년 가량 버틸 수 있지만, 진흙 벽돌만큼 단단하게 다져진 토양에서는 뿌리가 제대로 뻗어 나갈 수가 없다.

11월 1일 토요일, 금년도 우기를 알리는 첫 비가 왔다. 오늘은 상큼한 일요일이다. 골프 라운딩을 하기에 딱 좋은 날씨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이 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죽은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한다. 더도 말고 딱 열 그루다. 제법 자라나서 인민군 애들 키만큼씩은 된다. 눈엣가시가 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냥 놔두면 화재위험으로 찍혀 내년 봄에 소방서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올 것이 뻔하다.

우선 죽은 나무 밑부분의 땅에 그루터기 중심으로 직경 넉 자 정도의 구덩이를 삽이 들어가는 데까지 파 놓는다. 젖 먹던 힘까지 짜내 겨우 세 치 정도의 깊이를 한 물받이용 보루를 만들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다. 다음부터는 비만 자주 오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언제 얼마나 오실는지 – 다음 번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단 물이 고이면 삼투압의 영향으로 그 밑에 있는 흙이 부슬부슬해지기 때문에 서너 번 삽질로 힘들이지 않고 뿌리를 뽑아 올릴 수가 있다. 나무 뿌리가 뽑혀진 웅덩이는 한 번 더 비가 올 때까지 그냥 놔둔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큰 구덩이를 파고 새로운 묘목과 상층토를 쓸어 넣으면 된다. 이질의 토양에, 그것도 이미 단단하게 다져진 땅에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금년에 죽은 열 그루의 나무 중에는 2010년인가 2011년에 갈아심은 나무들도 있다.

다져진 진흙땅에서 나무를 살리는 비결은 나무뿌리가 구덩이의 벽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번에 죽은 나무들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번에 죽은 나무들은 뿌리가 뻗은 깊이까지 지표 수분이 말라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코, 이 자리에서 죽어 나간 두 그루의 나무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다. 조금씩-조금씩 – 뿌리를 내리려다, 천재나 인재지변을 만나 살신성인을 한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아마도 이민 3대 쯤 되면 인위적으로 다져진 단단한 흙더미를 뚫고 그 밑에 자연적으로 쌓인 본래의 흙 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롱 비치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고 있었다. 의사가 그런 단체의 장이 된다는 것이 가당치 않겠으나 그 때 나는 한국에서 무작정 도미한 막내 동생에게 북부 롱 비치에 있는 가구점을 하나 사 주고 같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반쪽 상공인이라 할 수도 있었다.

캄톤 지역에서 롱 비치 대로를 따라 남하하던 폭도들에 의해 가구점 유리창이 박살나고 가구며 집기들이 없어졌다. 이 때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은 일용품과 주류를 파는 상점들로서 어떤 곳은 아예 불에 타 없어지기도 했다. 가구점에 '비상대책 본부' 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FEMA 등과 연결시켜 주었다. 이런 저런 인연으로 롱 비치에서 군소 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사셨다.

동네 깡패들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건물주의 농간에 놀아나기도 하고, 보험이 없어 쩔쩔매기도 하고, 같은 한국인끼리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자리다툼, 가격다툼,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을 Las Vegas 가서 홀딱 날려 버리지를 않나. 국세청 수사망에 걸려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몇 번씩 총부리에 떨며 하루 총 매상을 톡톡 털어 주거나 특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장사를 하던 분들은 아침에 은행에서 막 찾아온 따끈따끈한 현금 2~3만 달러를 통째로 상납해야 될 때도 있었단다. 와중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분도 몇 있었다.

그러고도 모질고 굳세게 살아왔다. 가게에 나와서 일을 거들어 주던 아들, 딸들도 좋은 대학 나와 시집, 장가들 가고 어째 '좀 살만하다' 했더니 하나, 둘, 부음이 들려오고 있다.

22년 전에 50이었으면 금년에 벌써 72세가 되었단 말인가? 1980년도 이민 붐을 타고 온 이민 1세들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육신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대가 뿌리내려 잘게 부숴버린 진흙 구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구나!

한 번 더 비가 오면 그 뿌리를 거둬내고 그곳에 한 그루의 묘목을 심게 될 것이다. 그대가 반평생 조금씩 조금씩 연화시킨 흙을 뚫고 사방으로 뿌리 뻗어 나갈 때, 비로소 싱그러운 나무 한 그루 태어나려니---.***

동창회 뿌리내리기 동참 자랑스러워

"거긴 좀···," 몇 달을 망설이다 마감 2주 전 원고를 접수시켰다.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몰려 있고 기라성 같은 글꾼들이 활동하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에서 처음 시도한 우수작품상 응모행사라 별로 자신이 없었다.

고민 끝에 이민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위대한 선택' 과 '뿌리내리기' 는 격동하는 시대에 힘든 삶을 살아온 나 자신의 넋두리다. 수기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어쩡쩡한 글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자아낸 모양이다.

수많은 항로 중 서울대를 나와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것은 선택된 인생이라기보다 한 배를 탔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모두 합심해서 최고의 대학, 최고의 동창회, 최고의 동창회보, 최고의 문학상을 위해 정진해 나가야 하겠다. 나의 졸작이 앞으로 '서울대 미주문학상' 이란 나무의 '뿌리내리기' 에 다소나마 동참하게 되어 마냥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원택>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수필 장려상

천 송이의 백합

김석민(사대 55) WA.S

내가 서울에 있는 남동생, 석산이로부터 아버님이 작고하셨다는 국제전화를 받은 것은 시애틀에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던 이른 봄 – 1977년 3월 23일 – 저녁때였다. 이미 예상했던 바지만, 막상 확인전화를 받고 난 후 깊은슬품에 잠기어,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계속되는순간,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버님의 장례식에 도저히 참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유달리 평생을 남에게 폐끼치는 것을 거의 증오하시다시피 생각하셨던 아버님은 결국 장례식도 계절을 막론하고, 5일장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므로 3일장으로 하라고 고집을부리시어 아버님의 뜻을 존중해 결국은 3일장을 하게 돼 동생은 내가 장례식에 참석할 가망이 없다고 하기에 더욱 목이 메어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시간 차이를 계산해보니, 시애틀과 서울이 17시간 차이나는데다, 직행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동경에서 하룻밤을 지내야하므로 도저히 장례식에 참석은 불가능함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여행사 주인에게 즉시 연락해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동경에 가는 비행기표를 집에 배달해달라고 특별부탁을 하여, 즉시 배달이 되자, 서울에 전화해 동생에게 연락하자, 동생도 서울에서 여행사와 의논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여, 늦어도 서울에 간다고 하고는 여행준비를 시작했다.

준비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대리선생에게 줄 교습재료와 수업준비 등을 충분히 해주는 일과 전달을 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문제였으나, 요행이도 즉시 도움을 줄 선생을 찾게 되어 정신없이 타자를 치며 속성으로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영어선생이 된 것이 후회스러웠다. 수학선생이었다면, 너무나 간단할것 같다고 생각하자, 아버님이 생전 처음으로 내가 대학입시에서 수학에 만점을 받았다고 기뻐하시던 옛 모습이 오랫만에 떠올랐다. 당시 아버님이 문리대 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은 문리대를 가지 않고 사대를 가게 하시어 효녀노릇 하느라고 아버님 말씀에 복종했으나, 실은 문리대를 가지 않은 것을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교사직을 가진 후 아버님께 감사를 드렸다.

거의 뜬 눈으로 밤새 여러 가지 여행준비를 하고, 새벽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동이 트자 마자, 여행사 직원이 친절히 대려다주는 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가는 동안, 혹시라도 비행기를 놓칠까 조바심을 하며 계속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만 하면서, 기적적으로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기를 머리 속에 환상으로나마 기원했다. 실은 미국에 온 후 두 번의 기적을 체험했으나,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 기적을 기원하는 것은 허황한 생각같이 느껴졌다.

동경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계속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묘책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사학자와 고고학자로서의 아버님의 업적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박정희 군정시대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시급히 서울시를 현대화 하려고, 군대식으로 역사나 문화에 대한 조예가 없는 장군들이나 그들의 부하들이 나서서 사적이나 문화재들을 헌신짝같이 없애버리면서까지 큰 고속도로나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아버님은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들고 나서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서울 부시장과 마주해 결사적으로 항의를 하시는 신문보도를 읽은 것이 지금도 선하다.

요행히도 차일석 부시장이 군정과 대립하며 고집세게 나오는 것을 호주를 방문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통령이 귀국해 직접 해결한다 하여, 종로와 광화문 일대 사적건물 등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일단 보류됐다.

결국은 아버님이 박 대통령을 만나, "세계 어느 나라의 무식한 독재자나 바보같은 왕들도 자기 나라의 역사와 국보는 알아보고 귀중히 지키는 정도는 기본상식인데 현재의 한국은 총대만 휘두르면 아무도 말 없이 복종하는 현실이니 한심하고 창피해 문화보존위원장의 직책도 대통령이 겸하시어 맡으시요!" 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문화보존위원장의 허락없이는 아무도 사적에 손대지 못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께서 사학자의 본분을 총과 칼을 쥔 독재 대통령에게 가르쳐주신데 대해 다시한 번 존경심을 느끼면서, 반드시 아버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 끝에, 비행기 직원에게 "사학자인 아버님이 국보와 사적 보호에 열정을 누구보다도 쏟으시며 평생을 보내시다 돌아가셨기에 딸로서 뿐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서 직접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싶으니, 조종사께서 동경 국제공항에 연락해 서울가는 비행기가 연착해주어 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고 전달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도 직원이 내 뜻을 알겠다며 조종사실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조종사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줄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고 덧붙였다.

약 한 시간 후, 직원이 나를 쳐다보며 걸어오고 있기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듯한 감이 들었다. 예상대로 직원이 활짝 웃으며, "손님, 조종사님이 반드시 적절한 시간에 동경에 연락을 하신답니다. 실은 조종사님이 손님의 깊은 효심에 감동하셨습니다!" 고 한다.

두 시간 후 직원이 웃으며, "여기 특별 통과증을 드리니, 통관직원에게 보이면 손가방만 들고 탑승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큰 가방은 짐 운반자가 비행기에 실어드리도록 했습니다" 라고 한다.

너무도 뜻밖에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아 눈물이 글썽글썽해 직원에게,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오래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부디 계속 보람된 날들을 보내며 행복하십시요.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종사님께 저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주십시요. 조종사님은 저와 저의 아버님께 기적을 배플어 주셨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해 내 좌석으로 걸어가자 온 승객들이 눈방울이 튀어나올 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군가? 별네 개 장군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6면에 계속>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수필 장려상

외씨버선

김옥영(문리대 52) WA.S

8.15 해방되던 날을 몸소 경험하고 기억하는 세대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듯 싶다. 나는 그 날을 12살이 되던 해 개성 기차역 플랫폼에서 맞았다. 당시 아버지는 일본 미쓰비시사 하얼빈 부지점장이셨기 때문에 우리 식구는 만주에서 살고 있었다.

1945년 여름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3명의 아이들과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다녀오도록 보내셨다. 방학이 끝나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하얼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북쪽을 향해 느긋하게 달리는 기차 창문 밖에서 상쾌한 바람이 나부끼면서 스쳐가고 농촌가를 끼면서 지날 때면 기차 주변에서 벌거숭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철로 변두리에 조개껍질 엎어놓은 듯 앉은 초가집 울타리 안에서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것까지 눈에 들어오고 황소들이 들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한가로운 여름 시골풍경을 시야에 끌어들이면서 긴 여행의 지루함을 견디며 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기차는 개성에서 약 한 시간 가량 멈추게 됐다. 그때 갑자기 밀짚모자를 쓴 두 청년이 기차에 뛰어올라와 말도 없이 좌석 선반 위에 실린 우리 짐들을 순식간에 후다닥 끌어 내며 우리에게 급히 내려야 한다고 큰소리로 재촉했다. 어머니는 곧 그들을 알아보셨다. 우리가 내린 기차는 검은 연기를 뒤로 뿜어가며 서서히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친척 오빠들이라고 하시면서 몇 마디 주고 받으시더니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겁에 질려 있는 우리에게 일본이 항복했고 한국은 이제 해방이 됐으니 만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기적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서울 큰댁에 전보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부탁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차에 타서 막 떠나게 돼 있었다. 서울 큰아버지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는지 급히 개성 친척에 연락해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면하게 됐던 것이다.

개성은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계셨다. 우리는 인력거를 타고 아버지의 사촌 누님이신 고모님 댁으로 갔다. 고모님은 어둠침침한 부엌에서 머리에 쓴 수건으로 손을 훔치면서 나오시더니 묵묵히 무표정으로 우리를 건넌방에 들어가라고 인도하셨다. 그 때부터 우리의 피난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위기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소식을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 돌아오실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보다는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우리는 그 역사적 격변의 의미를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다.

고모부는 과수원을 가지고 계셨다. 이른 아침 식사 후 남동생과 나는 고모부를 따라 낮게 경사진 산언덕 과수원에 올라가 고모부가 하시는 일을 웅크리고 앉아 구경만 하고 점심 때 산길을 내려오노라면 앙상하게 듬성듬성 서 있는 적갈색 수피의 소나무들 사이로 동네가 한 눈에 들어왔다. 주변 초가집들에 둘러싸인 기와집들이 한 가운데 바둑판처럼 반듯하고 정밀하게 집중돼 있었다. 기와지붕의 반월형 곡선은 기교와 사치를 초월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품위를 갖춘 미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점심 후 고모님은 나를 우물가에 앉혀놓고 감자를 벗기라고 하시면서 놋숟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나는 여기서 일 안하는 자는 먹지도 못한다는 인생철학을 깨우쳤다. 감자 벗기기가 끝나면 나는 고모할머님 댁으로 갔다.

고모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먼 친척 여동생뻘 되는 분이었는데 고모님과 달리 대갓집 마나님으로 일직 과부가 되셨으나 일제시대부터 집안은 인삼을 재배하는 부호여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계셨다. 언제나 안방에서 보료 위에 곱게 앉아 계셨고 내가 가도 특별히 반겨주는 표정도 없었으나 나는 염치불구하고 자주 드나들었던 이유는 그 안방의 분위기에 매혹되었기 때문이었다.

온돌방의 장판지는 잘 길들어져 윤이 반지르르 흘렀다. 여름철 보료 뒤에는 화조도 평풍이 고모할머니의 자그마한 몸집을 위압하듯이 펼쳐져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섬세한 자개조각으로 박힌 십장생이 옻칠한 장롱 표면에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보료 옆에는 앞 뒤에 나비와 석류가 남색으로 그려져 있는 뚜껑 덮인 백자 요강이 있었다. 그 방의 은은하고 고상한 조화를 본능적으로 숨 쉬듯 흡수하는 내 감수성은 만주에서 자라난 내 짧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신비한 미적 감각의 싹 트임이었다.

고모할머니는 어린 내가 보기에 미인은 아니었지만 아직 흰머리가 없어서 젊게 느껴졌다. 앞가르마를 반듯하게 타고 빗어 넘긴 칠흑 같은 머리에 내 주먹만 한 쪽을 지어 비취비녀를 꽂고 계셨다. 나는 그 분의 하늘색 숙고사 치마자락 끝에 버선발이 살며시 들어나는 것을 보고 호기심과 어떤 영감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버선이 그린 곡선은 단순하게 보이면서도 균형이 극치에 이루었고 그 조화미의 완결은 내 감수성에 어떤 요동을 치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던 기와지붕의 완만한 윤곽과도 비슷했고 초승달 모양의 한복 소매자락과도 공통된 형태를 엿봤다.

고모부가 입으신 모시 마고자 은단추에도 그 곡선이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밤이나 낮이나 종잇조각, 어른들이 읽고 버린 신문지 따위, 심지어 땅바닥, 모래 위, 아무 공간만 있으면 연필로나 손가락으로 버선본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로서도 알 수 없는 집념이 이 신비스러운 균형의 본을 깨닫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올라왔다.

늦가을에 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 오셨고 우리는 서울에 돌아와 친척들에게 얹혀살던 생활에서도 해방이 되었다. 어머니는 늘 양장만 하고 계셨기에 우리는 자라면서 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신 것을 본 적이 없다. 일본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서울에 돌아와서는 한복을 입기 시작하셨는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처음에는 거북스럽고 맵시가 없어 보였다. 나들이 하실 때 버선을 신으시려면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다. 당시 희고 부드러운 귀한 휴지로 발을 싸고 구두만 신던 발을 조붓한 버선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애쓰시면 이마에 땀이 솟았고 곱게 한 화장이 번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고모할머니의 멋이 생각났다. 숙고사 치마 자락에서 살며시 보였던 오뚝하게 솟은 버선코, 갸름하고 섬세한 그 형태, 옥비녀로 쪽진 머리, 치마 끝자락을 살짝 겹쳐 옆으로 걸치시고 사뿐히 걸음을 디디시던 모습.

훗날, 나는 한국문학 영문번역자가 됐다. 한국 전통문화 본질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망은 아득한 어린 시절 한 여름의 추억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에서는 단 8년 밖에 살지 못하고 1953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떠나 선망의 미국으로 유학와서 영어만 쓰면서 살아온 햇수가 60년이 됐다.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할 만큼 오랜 세월이었고 지금은 한국이 황금시대가 됐다. 우리가 가끔 생명의 본능처럼 돌아가야만 하는 고향을 찾으면 혈육이라고는 남지도 않았지만 자격지심에서인지 그들이 보기에는 명품 하나 몸에 걸치지 않은 초라한 미국사람이 돼버린 우리를 대하는 친지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게 되고 왠지 남들이 "미국에서 오셨군요" 하는 감지하기 어려운 말투가 귀에 거슬리기도 하다.

조지훈 시인의 '승무'는 영문으로 옮기기 가장 힘들다고 하는 한국 문학작품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한국 전통문화 정서를 순 우리말로 더할나위 없이 효과적으로 나타낸 걸작으로 인정받는다.

승무는 기생 황진이가 지조선사를 유혹하기 위해 췄다는 일화로 기억한다. 이 춤은 승가에서 뿐 아니라 기방에서도 추어졌다고 한다. 속세 번뇌의 종교적 승화를 육체의 동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아(無我)지경에 달해야 비로소 가락을 탈 수 있다 하며 북소리가 관중을 몰아(沒我)의 정신 상태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춤이라고 한다. 나는 그 시에서 '외씨버선' 이란 말을 만나게 되었다.

외씨버선! 묵시였다. 나의 뇌리에 각인된 고모할머니의 맵시가 나의 인생의 갈 길의 지침을 밝혀주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 말의 참 가치를 알게 되기까기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못다 한 이야기 우리 말로 쓸 용기 줘

1952년 6.25 전쟁통에 피란살이 부산에서 서울대 입시에 합격, 문리대에 입학해 1년 다니다가 1953년 유학 와서 이민생활이 6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말 사전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영어로만 글을 쓰면서 살아온 긴 나날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듯 이제는 우리말로 글이 쓰고 싶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말을 다시 더듬고 찾아 쓴 미숙한 글에 장려상을 주시어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못다한 이야기를 우리말로 쓸 수 있다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이번 당선은 다시 소생하는 말과의 만남을 뜻하며 소중한 선물에 감사합니다.*** <김옥영>

<5면에서 계속>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지만, 내 아버님은 대대손손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국보들을 보존하기 위해, 특히 서울시에 사적이 없어지며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여 "총과 칼은 무식하게, 원시인들을 만드는데 쓰지 말고,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데 써야 한다"고 준엄하게 타이르신 진정한 애국자의 절개와 사학자의 본분을 지켜오신 분으로 그 분의 장례에 참석해 마지막의 존경을 표하기 위해 불가능한 여정을 조종사의 특별한 배려로 내가 이같이 여러 분들과 같이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께서 저를 위해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승객들이 고개들을 숙이고 조용해졌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동생에게 전화로 알리자, "누이! 정신이 좀 돌지 않았어? 어떻게 이날, 이 시간에 김포공항에서 전화할 수가 있어?"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고,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 미국에서 한국까지 쉬지 않고 날아왔으니까, 택시를 타고 갈 테니 그리 알고 진정하도록 해라!"

집에 도착하여 현관에 들어서자 백합 향기가 진동하기에 동생보고, "미국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날아오는 동안 감각에 변화가 생긴 듯 하다"고 했더니 동생은 빙그레 웃으며 "누이 감각기능은 정상이니 신경쓰지 말고 아버님 모신 방에 들어가봐!"

아버님 방에 들어가자 마자 너무 놀란 것은 아버님 관 위에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합꽃송이들로 만든 고전 선비의 모자가 높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관 위에 쌓아 올려 있어서, 아버님께 인사하는 것도 잊고 동생에게, "지금 3월인데, 어디에서 저 많은 백합을 구할 수 있었는지 너무도 신기하고 궁금하다"고 하니 동생은 으젓하게 한 마디로, "누이, 관 앞에 있는 하얀 봉투 속을 열어봐!"

동생의 말이 떨어지자 마자, "아버님! 제가 멀리에서 숨도 안쉬고 날아왔습니다!" 인사를 우선 간단히 드리고, 하얀 봉투를 열어보니,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증정"

동생 말에 의하면, 신문사와 방송국에 통지를 했는데, 대통령이 제일 먼저 조문객을 보내고, 선비 학자의 모자형으로 백합 수백개를 모아 아버님 관을 덮어 장식하여 주었다고 하기에, "역시 군사정부 독재자가 아니면, 어떻게 3월달에 거의 1천개나 되는 백합을 그처럼 빨리 구할 수가 있겠니? 그래도, 아버님이 직접 대놓고 훈계한 것을 귀담아 듣고, 아버님 영혼에게 존경을 표시한 것을 목격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대장다운 모습을 보인 것 같으므로, 내가 생각했던 박정희보다는 깊이가 있어 보여 다행이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다시 한 번 백합 송이들을 쳐다보고, 부드러운 소리로, "평생에 잊지 못할, 1천 송이의 백합! 독재자 군인 대통령도 아버님이 청렴결백하게 일생을 애국정신으로 살아오신 진정한 사학자에 대한 존경을 1천 송이의 백합으로 조의를 표했으니, 아버님의 혼이 좀 더 편히 하늘나라에서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아버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래 오래 축복된 기억으로 마음 속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아버님에게 많은 실망을 드리지 않게 열심히 계속 공부하며 충실한 교직생활을하고,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해주신대로 틈틈이 글을 쓰면서 보람있는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아버님의 영혼에게 약속하였다.***

미숙한 글을 뽑아주어 감명과 감격

거의 30년을 미국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별로 한글로 전문적인 수필을 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럼에도 동창회보 수필작품 모집에 과감하게 응모했는데 이렇게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버님의 혼이 내게 '천송이의 백합' 이라는 수필을 쓰도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게끔 숭고한 사학자의 일생을 보내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동창회보 편집 및 심사위원들께서 미숙한 글을 당선시켜주신 데 대해 여러 면으로 감명과 감격받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부디 많은 독자들이 이 수필을 통하여 군정 초기 당시 서울의 많은 국보건물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도전하셨던 저의 아버님이 진정한 애국 사학자였음을 느끼며, 미주 우리 동창들도 항상 마음 속에 애국심을 간직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긍지를 지키며 생활하기를 바란다.*** <김석민>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수필 장려상

미국 병원에서의 첫날

서안희(간호대 63) AL

한국에서 모교 간호학과 졸업시 내과, 외과병동 근무 경험은 기본이고 앞으로 일하는데 유익하다는 교수님과 선배의 조언에 따라 간호학과 조교로 일하기 전 서울대병원서 내과와 외과 스태프 간호사로 근무했고 신생아실과 소아과 병동 수간호사로 근무했다.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선배 간호사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집에 가서도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다른 병동으로 옮긴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동생이 없어서인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고 귀여워 하였다. 피난지 대전에서도 셋집 애들을 귀여워하여 집 뒤에 위치한 국민학교(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점심먹으러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려면 셋집 아이가 울고 매달려 엄마가 학교 늦을까봐 싫은 내색을 하시던 기억이 있다.

대학 재학시절에도 친구들이 블라인드 데이트 가자고 하면 집에 가서 조카인 형석이 데리고 노는 게 더 재미있다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친한 친구가 나를 지금의 남편에게 중매할 때 그 나이에 도 "꼭 맹꽁이 같은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시집 조카딸한테서 나중에 들었다.

그러니 신생아실 일터는 내게 적격이었는지 나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

물론 아이들 울음소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귓전에 맴돌기도 하나 내게는 크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미국에서도 신생아실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미국 시골의 작은 병원은 분과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인터뷰 하던 인사과장은 "학력, 경력을 보면 간호과장을 해도 넘치는데…." 하였다. 간호과장과 면접하고 분만 전, 분만 후의 산모와 신생아실이 있는 Maternity ward에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에 도착하고 한 달 쯤 후 나는 테네시 주의 Greenville이란 작은 마을에 있는 한 병원에 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작은 농촌, 백인 마을이었고 그 외 인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요일이면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는 때였다.

첫 출근 전 날 소지품, uniform 등을 잘 준비해놓고 시간에 늦지 않게 출근하였다. 병원에 가보니 아침 인수인계를 받을 시간인데 벌써 다들 분담된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벌써 낮근무의 일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게 웬 일인가 싶어 의아히 여기는데 그 시간에 나타난 나를 보고는 다들 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럴줄 알았다"고 하며.

Day light savings time이 시작되는 날이라 이미 한 시간 전에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Summer Time은 한국서도 익숙했는데 이곳에서의 시작 날짜는 생각지도 못했다. 스태프 모두가 다들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는 중 환자실의 호출신호가 있어 그 환자실로 갔더니 여자 백인환자가 Dr. Pepper를 원한다고 했다. 나는 즉시 nursing station에 가서 Dr. Pepper가 누구냐며 환자가 Dr. Pepper를 원한다고 열심히 말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의사와 staff들이 모두 폭소를 터트렸다. 나는 Dr. Pepper가 음료수 이름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비슷하게, 다른 환자가 Mountain Dew를 원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Mount Everest처럼 하나의 산 이름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 했더니 나를 식품점에 데리고 가서 음료수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런 이름의 음료가 있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었고 미국 오기 전 받은 소양 교육에서도 없었다. 그러니 병원생활에 익숙한 나의 귀에는 의심없이 Dr. Pepper는 의사 이름으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분만장에 다른 간호사와 같이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 이야기하다 무심히 내가 한국의 midwife 자격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다 받아놓자 싶어 양호교사 자격증, 또 근무하며 1년 과정의 조산수습 과정을 거쳐 조산원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분만실에서는 산모가 분만대에서 출산준비를 하고 있었고 분만대 앞 의자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앉아 있었다.

더 나은 내일 위해 노력하라는 뜻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담담하게 보낸 글인데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기뻤습니다.

심사로 수고해주신 백순 주필님, 이영묵 전 회장님, 서윤석 편집위원님, 장경태 편집위원장님 등 네 분의 심사위원님과 동창회보 이기준 편집주간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서안희>

동행했던 백인 간호사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내가 한국 조산원 자격증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 산부인과 젊은 백인 의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나보고 "분만시켜보겠느냐"며 자리를 내주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곧 속으로 크게 후회하였다. 자격증에 맞도록 자신있게 미리 준비하지 않았음을 후회한 것이다. 그 이후로 조산원 자격증이 있다는 소리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산모 방을 다른 간호사와 함께 돌아 보니 산모들이 대개 조용히 진통을 견디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끔은 진통의 고통에 큰 소리가 분만실 복도에도 들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분만장에서 분만한 많은 산모들이 "Thank you, Lord!" "Thank you God!"하며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크게 놀랐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있나, 하고 생각된 것이다. 시골이라는 지역 특성인지, 백인 문화권 탓인지 모르겠으나 나를 놀라게 했고 어느 면으로는 큰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나의 미국에서의 병원생활은 시작되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지내며 느낀 한국과 다른 점 등 미국 인상기를 썼는데 그 곳 지역신문에 게재되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신문기사가 나간 후 한 동네에 사는 Larry가 "신문을 봤다"며 아이스크림을 한 통 사 들고 웃으며 찾아 왔다.

병원 내에서도 일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병원 방문객들이 나를 보고는 즉시 반갑게 "That's her!"하고 소리치며 친근하게 다가와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사람같이 "내 남편도 Dr. Pepper를 싫어한다"고 농담을 하며 친근하게 말을 건네왔다. 신기하게 느껴졌다.

하루 하루 살다 보니 어언 40여년이 흘렀다. 루이지아나 주에서 살 때는 뉴오리언스에 있는 Touro Infirmary의 Newborn Nursery와 Extended Care Nursery에서 일했고 이 곳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로 이사 와서는 Baptist Medical Center의 Newborn Nursery(신생아실)과 Neonatal Intensive Care Unit(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이젠 점점 토착민처럼 되어가는 듯 하다. 돌아오는 봄에 는 'Sentimental Journey'로 테 네시의 봄을 돌아보고 싶다. 온 산이 Dogwood와 Redbud로 덮였던 봄의 산이 눈에 선하다.***

추모사

존경하는 벗 김홍락 박사를 기리며

배효식(문리대 52) CA
American Baptist Seminary
Berkeley, California 교수

아직 한참 더 사시면서 후진들을 가르치셔야 할 나이에 세상을 등지시다니 참 억울하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김홍락 교수와 나는 1952년 문리과 대학에 같은 해 입학하여 부산시 서대신동 가교사에서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나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교양과목은 같이 들었습니다.

성품이 쾌활하고 건강한 체격으로 미남형입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는 지금까지도 나의 마음 한 모퉁이에서 메아리칩니다. 나와는 극히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1년 후 서울 동신동 본교로 올라와서도 과는 다르지만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미국에 왔어도 1970년대 나는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 성인 교육 담당으로 영어를 가르칠 때 김 교수는 George Town University 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West Virginia University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까지 재직하셨습니다. 47년간을 오직 한 곳에서 교수로 역임하신 김홍락 교수를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1974년대 이곳 나성지역 박영총 여사께서 저에게 남북화해 문제에 관해 세미나를 해달라하는 청을 받았을 때 저는 기꺼이 김홍락 교수를 주 간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한미 교육 연합회라는 기관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열변을 토하며 우리나라의 남과 북은 하루 빨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그 세미나에 Georgia 대학 교수인 박한식 박사님과 연방정부 교육성에서 Special Education Department의 Director로 계시던 진교륜 박사님께서도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 세분의 만남도 너무나 중요했고 그 때 그 좋은 시간을 가진 것을 기뻐하시던 생각 간절합니다.

↑고 김홍락 박사. 47년간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해 7월 7일 80세를 일기로 작고했다.<동창회보 2014년 10월호 12면 참조>

김홍락 박사님! 이 세상보다 더 좋다는 저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만끽하시기 바라며 머지 않아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우정을 그리워합니다.

두고 가신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는 영적으로 돌보실 책임이 있겠네요. 김 박사님의 가족은 물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친구중 한사람 배효식 드림>***

동문 시 감상

하늘과 땅의 그대

유영민(미대 60)
중앙대 명예교수·시인

하늘과 땅이
그대 속에 녹아들어
그대는 하늘
그대는 땅

그대 샘 속의
하늘엔
샛별이 반짝이고
그대 한 웅큼
흙 속엔

반만년 나무가 자라네
그대는 산과 강
그대는 구름과 비

세찬 질풍도
그대 속에 잠자네

그대 서면
하늘과 맞닿고
그대 앉으면
땅과 하나 되네

좌정한 그대는
한 그루 나무
시간을 뛰어넘는
한 그루 나무 ***

모교 소식

↑서울대병원이 위탁 경영하고 있는 UAE 왕립 SKSH(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전문병원

서울대 'UAE왕립 병원' 2월 18일 개원

사우디·오만·이란·쿠웨이트 등지서도 찾아올 것

지난 해 8월 아랍 에미리트(UAE) 왕립 SKSH(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전문병원의 위탁 운영권을 따낸 서울대병원의 'UAE 왕립병원(미주 동창회보 2014년 8월호 1~2면 참조)이 지난 2월 18일 현지에서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이 병원은 UAE 두바이에서 30Km 떨어진 북쪽 해변 라스알카이마에 위치한 248병상 규모로 암·심장·신경계 질환·응급·재활·소아드의 질환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미국 스탠퍼드·존스 홉킨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독일 샤리테 등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부속병원들과 경합 끝에 최종 낙찰을 받아 세계적인 뉴스가 된 바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국내 의료진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한국 의사 35명을 포함해 170여 명이다. 외국인 의료진 280명을 합쳐 4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천여 명으로 늘고 병상도 400여 병상으로 늘일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수익과 관계없이 5년간 1조원의 운영비를 UAE로부터 지원받기로 돼 있다.

이 병원은 앞으로 UAE 전역을 포함해 오만·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전역의 환자를 받는 전문병원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은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고난이도 수술 전문병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UAE 전역과 인근의 사우디아라비아·오만·이란·쿠웨이트 등에서 치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와 700억원 규모의 의료정보 시스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또한 SK텔레콤, 이지케어텍과 공동으로 종이 차트가 없는 병원을 짓고 있다. 이 병원은 5년 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고교에 걸린 서울대 합격 현수막이다. 현수막에는 '서울대 5명!! 일반고 전남최다 합격!'이라고 쓰여 있다.

'서울대 합격' 현수막 "이젠 그만"

'고3 전원' 이름 담은 현수막도 게시... "대다수 학생들 박탈감도 감안해야"

해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후 수시합격자 및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면 일부 고등학교 교정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다.

바로 전국의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 학생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몇 명이 합격했다'고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는 것이다. '서울대 5명!! 일반고 전남최다 합격!'

이 학교의 경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의 민원제기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져 현수막을 내렸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사례는 이 학교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 전남 순천의 육교에 걸린 한 고등학교의 현수막과 지난 해 9월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걸린 현수막에는 학생들의 이름까지 선명히 적혀 있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경찰대학 ○○○, 육군사관학교 △△△, 해군사관학교 □□□"

"201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만점을 축하합니다. ××고 3학년 ◇◇◇"

반면 이런 사례도 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숭일고는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학교에 내건다. 올해에도 졸업을 앞둔 숭일고 3학년 1~11반 학생 413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학교 건물에 걸렸다.

그렇다고 숭일고가 '수능 고득점자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없어서 이러한 현수막을 내건 것은 아니다. 올해 201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숭일고 학생 8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정시모집 후 서울대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숭일고 서현기 교장은 "이같은 현수막은 10년 이상의 전통이다. 매년 현수막이 걸리면 학생들이 자기 이름이 있나, 확인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지난 1월 졸업을 앞둔 숭일고 3학년 1~11반 학생 413명의 이름이 모두 적힌 현수막이 학교 건물에 걸렸다.***

<오마이 뉴스>

'빗물박사'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

"빗물은 하늘이 주는 가장 평등한 자원입니다!"

"마을을 뜻하는 '동(洞)'자는 '물 수(水)'와 '무리 동(同)'이 합쳐진 말입니다. 빈곤국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려면 우리의 빗물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는 물 부족 국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빗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빗물박사'로 유명한 그가 최근 관악캠퍼스에서 언론(국민일보)과 인터뷰했다.

한 교수는 "물은 우리가 마시기 전까지 여러 경로를 거치는데, 그 거리가 길수록 오염물질이 섞이기 쉽다. 반면 빗물은 '마일리지'가 제로다. 오물도 녹조도 묻지 않은 깨끗한 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왜 꼭 빗물이어야 할까.

▶비소로 오염된 우물은 '조용한 살인자' = 1970~80년대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 구호단체와 공동으로 우물 수백만 곳을 팠다. 국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셔 수인성 질병이 속출하자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해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지하수가 비소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기 때문이다.

원인은 히말라야 산맥이었다. 황화물을 머금은 암석이 오랜 기간 풍화되면서 남아시아 지역 지하수에 섞여 들어갔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억5천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비소 오염 지하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교수는 "비소는 옛날 사약의 원료 물질"이라며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시면 당장엔 해가 없어도 나중에 피부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예전부터 베트남 주민들은 메콩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베트남전쟁 후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상수원이 폐기물과 쓰레기로 오염됐다. 그러자 주민들이 우물을 파 비소 오염 지하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베트남 우물 옆에 빨간 글씨로 'As>0.05'라 쓰인 푯말을 흔히 볼 수 있다. 물에 포함된 비소가 0.05ppm을 넘는다는 뜻이다. 국제 기준치는 0.01ppm 이하다.

▶빗물, 가장 쉽고 효과적인 해답 = 그동안 세계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코자 많은 방안이 논의됐지만 빗물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한 교수는 "댐이 바람직하나 비용이 비싼 데다 파급 범위가 제한적이다. 지하수는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듯 오염 우려가 있다.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의 수도관은 18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물에 진흙이 섞여 수도관 벽에 쌓이면서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고립된 소규모 마을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를 돌며 물 부족 지역에 빗물 취수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해왔다. 베트남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부터 에티오피아·탄자니아 같은 아프리카에도 그가 설치한 빗물 시설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현지 반응은 뜨겁다. 한 교수와 연구진은 2013년 탄자니아의 한 마을을 찾아 빗물 시설을 시범 설치했다. 첫해는 한국에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이듬해에는 탄자니아 정부가 설치비의 반을 내겠다고 나섰다.

한 교수는 "우물이나 상수도를 설치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빗물이 물 부족 해소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도 잘 들어맞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빗물 통한 인권향상 = 저개발 지역에서 물은 희소자원이다. 수원지를 둘러싼 마을·부족간 갈등도 상당수다. 심지어 외국 구호단체가 설치한 우물을 놓고 분쟁이 생겨 유혈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반면 빗물은 평등하다. 지붕 위에 취수 시설만 설치하면 필요한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물로 인한 분쟁은 자연히 해소된다.

현지인들의 인권 향상에도 보탬이 됐다. 탄자니아 어느 마을의 여성과 아이들은 물을 뜨느라 20kg짜리 물통을 진 채 왕복 3~4시간의 먼 거리를 다녀야 했다.

한 교수와 연구진은 이 마을의 초등학교 지붕에 빗물 시설을 설치했다. 여성과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뜨러 다니는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 학교에서 물을 뜨니 자연스레 학생들의 수업 출석률도 높아졌다. 한 교수가 처음 마을을 찾았을 때 교실 안에는 학생이 2~3명에 불과했지만 빗물 시설이 갖춰진 뒤에는 출석률이 10배 이상 늘었다.

한 교수는 "국제 원조에는 교육·위생·보건·소득 향상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보다도 우선 해결돼야 하는 게 물 공급"이라며 "전기는 없어도 되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다. 물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빗물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모교 '기초학문분야 학문 후속세대' 선정

박사과정 재학생과 수료생 총 73명에 격려, 시상

모교는 지난 3월 13일 호암 교수회관에서 '2015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 후속세대' 선정증서 수여식을 개최, 73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학문후속세대는 기초학문분야 적합성, 학업계획서, 논문계획서 및 현재까지 연구성과에 대해 평가, 선정한다. 올해 박사과정 재학생 33명과 박사과정 수료생 40명 등 총 73명을 선정해 시상을 실시했다.

선발된 학문 후속세대에게는 등록금, 생활비 및 자료구입비 등으로 박사과정 재학생은 연간 2천만원, 박사 학위 논문준비 수료생은 연간 2천4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기초학문분야 연구노트 공모에서 입상한 최우수상(1명)과 우수상(2명)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했다.

관계자는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이라는 국립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해 오고 있다"며 "서울대는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연구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정경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성낙인 총장이 선정증서와연구노트 상장을 수여하고 학문후속 세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사를 통해 격려했다.*** <베리타스 뉴스>

↑서울대 '2015학년도 기초학문 분야 학문 후속세대' 선정 증서 수여식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 = 모교 홍보부>

해외 개도국 교수 박사학위 지원

SNU-SPF 장학생, 베트남·연변·미얀마·라오스서 4명

모교 서울대는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장학프로그램 'SNU(서울대) 프레지던트 펠로우십(SPF)' 장학생을 선정해 지난 3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SPF 프로그램은 개도국 주요대학 교수 중 박사학위 미취득자를 서울대 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SPF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 기숙사 입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1학기 장학생으로는 ▶베트남 호치민의약학대 마치탄(MA Chi Thanh) 교수 ▶중국 연변대 김현진(JIN Xuanzhen) 연구원 ▶미얀마 치과대 엉투헤인(AUNG Thu Hein) 교수 ▶라오스 국립의과학대 왕후이(VANG Hue) 교수 등 30대 신진 교수 4명이 선발됐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해 1학기 5명, 2학기 3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장학생이 서울대에서 수학 중이다.

학교 측은 "서울대의 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교류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성낙인 서울대 총장(왼쪽에서 세번째)으로부터 'SPF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왼쪽부터) 마치탄 김현진 엉투헤인 왕후이씨.

올해 공대 신입생 중 17%

"의대도 합격했지만 공대 선택"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지방대 의대를 선택하던 2000년대 입시 풍토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추가 선택지가 생기면서 학부 졸업 이후 취업과 의학 진로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게 됐고,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 공학 전공자들의 강세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모교 공대가 2015학년도 정시모집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 675명 중 17%에 해당하는 115명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 의·치·한의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가 높은 기계항공 공학부의 경우 146명의 응답자 중 29.5%에 해당하는 43명(의대 합격 37명, 치대 6명)의 학생들이 최종 공대를 선택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서울대 전체 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오현 입학본부장은 "지난 해 기준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90.1%였는데 올해는 92.8%로 3% 가까이 올랐다"며 "공과대학의 등록 인원이 늘어난 점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우 공과대학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게 돼 학교 측도 놀랐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1학년을 마치고 주전공으로 공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절반을 넘을 정도"라며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면서 전문 기술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차석원 공대 대외부학장도 "국내 취업시장에서도 공과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다 보니 입시 결과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을 지원했던 효과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금융위 요직 모교출신 독점

금융소비자원 '9명 경제관련 학과' …, "서열화 인사로 상호 견제 못한다"는 비판도

고국 정부 금융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서울대 경제 관련(경제·경영·국제경제) 학과 출신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3월 10일 위원장 등 금융위의 14개 주요 직책을 맡은 고위 공무원들의 출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 경제학과 6명, 경영학과 1명, 국제경제학과 2명 등 9명이 서울대 경제 관련 학과 출신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처럼 금융위 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대학의 같은 학과 출신들이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소원에 따르면 신제윤 위원장, 고승범 사무처장,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정지원 상임위원, 조성욱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정찬우 부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금소원은 "금융위 주요 직책을 보면 나이 순, 출신 학교, 고시 기수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과 심인숙 비상임위원, 김성용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3명은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다. 정완규 국장(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과 정석우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각각 고려대 행정학과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위의 주요 직책을 같은 학교 학과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어 상호 견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이런 관행을 시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금융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금융위원회 소속 주요 고위직 출신 대학		
직 책	이름	출신대학 및 학과
위원장	신제윤	서울대 경제학
부위원장	정찬우	서울대 국제경제학
사무처장	고승범	서울대 경제학
금융정책국장	김용범	서울대 경제학
금융서비스국장	손병두	서울대 국제경제학
자본시장국장	이현철	서울대 경영학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도규상	서울대 경제학
국장(파견)	정완규	고려대 행정학

행정대학원 세종시 이전 사실상 무산

세종시 조성 계획 당시 논의됐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4일 행복도시청과 서울대에 따르면 세종시 조성 계획 당시 논의됐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세종시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서울대 측에서 세종시 조성 이후에도 행정대학원 이전에 관심을 보였으나 현재 논의되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교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조성 계획 당시 행정대학원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잠시 이뤄졌으나 현재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조성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전 계획의 주요 이유는 '공무원 재교육'이었다. 행정대학원을 세종시에 자리 잡게 해 수준 높은 공무원 재교육을 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세종시 조성 계획 당시 계획에 포함됐을 정도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세종시 조성계획 변경 등을 거치면서 이전과 관련된 협의 진척은 없었다.

애초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은 행복청에서도 적극적이었다. 세종시에 대한 인식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치만으로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정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전이 무산된 것은 서울대 교원과 학생의 반대도 작용했으며, 행정대학원 단일로만 이전하는 것 자체가 서울대에는 큰 이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은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검토되면서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환영 여론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대는 현재 시흥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힘쓰는 만큼 세종시에 일부 대학원을 이전하는 데 관심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서울대 내부에서는 서울대 병원, 한라건설, 시흥시, 서울대학교 등을 축으로 시흥캠퍼스 설립 논의에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신건강 의학

성격개조
Personality Restructuring<1>

김병석(의대 53) NY

'성격' 이란 개인의 특징을 형성하는 지속적으로 일관되는 특성이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다양성이다.

많은 학자들이 성격형성의 과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해왔지만 확정된 이론은 없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아니면 후천적 환경 요소로 형성되는 것인가 하는 논란의 계속이다. 필자의 임상경험으로는 어느 한쪽만이 아닌 두가지 요소가 성격형성에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 주요 논제는 성격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성격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라는 대립과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양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논란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병적 성격은 물론 치료의 대상이 되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병적인 성격장애를 정신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성격장애를 예로 들면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윤리 도덕심이 없고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와 폭력을 일삼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이 정상적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병적 성격으로 인식되지 않는 노이로제적 성격장애다.

▶**노이로제** = 먼저 노이로제(neurosis)를 정의하면, 기능적 정신장애로 망상이나 환각은 없으나 하나 또는 몇 가지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나타나며 그 증상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를 신경증적(neurotic)이라 부르며 늘 과민하고 비현실적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이 보통이다.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으나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왜곡하는 정신적 장애다.

노이로제를 증상 노이로제와 성격 노이로제로 나눈다. 증상 노이로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불안증세, 공포증, 불안공황증, 강박증 등과 우울증 등 분명한 증상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성격 노이로제는 이런 분명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마치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구조인 것처럼 보이는 장애다. 즉 지나친 완벽성(perfectionism), 공격성(aggressiveness), 성급(impatience), 지나친 겸손(compliance), 무관심(indifference)등의 특징이 지속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런 성격노이로제적 증상은 여러 면으로 특징이 두드러지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요소를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적인 정신적 장애로 자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위대한 정신분석 학자 카렌 호나이(Karen Horney)는 성격노이로제가 얼마나 정신적 성장을 방해하는가를 깨닫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론을 발전시켰다. 카렌 호나이는 '성격노이로제' 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이 성격 노이로제의 형성과정과 특증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처음부터 지나친 완벽성, 공격성, 조급증, 지나친 겸손, 무관심 등의 성격적 문제를 호소하면서 정신과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환자들이 처음 정신과에 올 때는 대부분 하나 또는 몇 개의 표면증상을 치료받기 위해 오거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지만 치료를 진행해보면 바로 노이로제적 성격상 증상들이 발견된다. 이런 성격 문제가 두드러진 사람들 자신은 자기가 성격노이로제라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각이 없다. 다만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고통스럽거나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명치에 뭉친 것이 있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신체적 증상이 발전돼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찾게 되는 것이다.

성격노이로제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빨리 빨리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자기가 제일 잘 났다고 뛰어 다니는 성격, 남의 비위를 맞추고 무조건 남한테 잘 보이려는 성격, 매사에 무관심하고 나는 빼달라는 성격 등 세 가지다. 이런 성격적 요소는 누구나 다 갖고 있으며 정상인은 이 세가지 면을 생활에서 융통성 있게 잘 배합하고 보완해서 건설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경우 정신 분석학상 병적인 성격적 노이로제라고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이러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 모습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늘 그 방법으로만 일을 처리하고,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초조해져 스스로 불안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분석적 용어로 이런 현상을 강박적(compulsive)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의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반대로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며 결국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결벽증의 사람이 하루에 수십번 손을 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격 노이로제의 발생 기전을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그 기틀이 시작된다. 부모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뉴로틱하여 자기들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 이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뉴로틱한 요구에 따라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순수한 정이나 사랑을 주기가 어려워 자녀양육 또한 노이로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너무 엄격하고 지배적이거나 과잉 보호적이거나 버릇없이 두거나 짜증스럽거나 위선적이거나 편애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뉴로틱한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심각하게 불안전한 느낌과 막연한 근심을 갖게 되고 잠재적으로 적대적 세상 속에서 고립감과 무력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은 이 불안한 느낌을 제거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을 하게 되며 어릴 때부터 이 느낌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안갈등 해결을 위해 흔히 처음 시도하는 방법은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힘센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반항하거나, 주위 모든 사람들을 차단해 버리는 노력을 하게 된다. 즉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거나 대항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빨리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자기가 제일 잘 났다고 뛰어 다니는 성격, 남의 비위를 맞추고 무조건 잘 보이려는 성격, 매사에 무관심하고 나는 빼달라는 성격 등 노이로제의 세가지 성격이 시작되게 된다. 아이는 처음에는 이 세 방향으로 헤매면서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세 방향 중 하나를 택해 두드러지게 사용하게 되고 다른 융통성을 잃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생활의 단상

은퇴 첫날의 단상

문성길(의대 63) VA
워싱턴 DC동창회 전 회장

말이 은퇴지 정말 믿기지 않는 은퇴가 지난 해의 어느 날 밤 자정을 기해 성큼 나에게 다가왔었다. 한편 생각하면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70대 초반의 처음 2년여이기에.

어차피 2~3년 더 일하다 은퇴하려 했었으니까 이제 2~3년 더 빨리 현실화 된 건 인생에서 결코 손해가 아니고 크나큰 축복임이 틀림없겠다.

누가 앞 일을 훤히 알 수 있을까? 2~3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때 가서 후회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 붙잡을 때 떠나는 것이 아마도 축복받는 떠남의 시점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최적의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실패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늘 말해 오지 않았는가?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늘 들어오지 않았는가?

허나 이런 일들은 모두 그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먹기와 그에 버금가는 행동과 노력 여하에 달렸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 날 하루를 축복인지 위로인지 모를 두세 개의 간단한 파티에 초대되고 덕담들을 듣고 자정을 기해 자식뻘 되는 후임자에게 임무를 인계했다. 직장을 떠나며 밤 하늘에 우뚝 서 있는 정든 병원을 보니 만감이 오갔다.

많은 좋은 추억들을 뒤로한 채 그동안 정든 익숙한 퇴근길에 접어드니 참 우연히도 자동차 라디오에서 평소 내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은퇴 첫 순간을 음악과 함께 시작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연히도 '운명' 과 같은 느낌이었다.

은퇴 첫날 아침 집 뒤 패티오에 죽어 있는 참새를 발견하고 뒤뜰에 묻어주었다. 또 부슬비를 그대로 맞고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손자뻘 되는 이웃집 초등학생에게 내 우산을 빌려주고 승차할 때 그대로 놔두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했다. 작지만 이웃배려로 은퇴 첫날을 한껏 잘 장식한 것 같다.

정오 경엔 집사람의 수채화 개인전 마감 날이어서 잔심부름을 했다. 오후에는 고교 때부터의 친구와 함께 지냈다. 한국에 사는 그가 딸의 집에 와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나 다름없는 그 친구로부터 컴퓨터 강의(?)를 듣고 김치찌개와 오징어 튀김을 안주로 삼아 대작하며 정말 뜻있는 하루를 마감하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친구는 내 컴퓨터 실력이 유치원생 정도라고 평가하며 그 실력으로 글 쓰고 신문에 기고하는 것에 놀란다.

앞으로 남은 날이 20년이라면 과욕이 될까? 어찌됐든 은퇴 첫날인 오늘처럼만 매일 매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

시사 엿보기

선진국 푸념

조중행(의대 63)
재 시카고 심장외과 전문의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진료소장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 살기도 좋아.

자꾸 부추켜서 비행기 타고 오니, 여기는 옛날 여름방학 때, 내가 곤충채집하러 오던 곳, 어머니 친정, 청주 한씨 땅.

압구정동 주차장, 포르셰 멜세데스 BMW 사이를 간신히 지나, 현대 아파트 AB동 12층 18호에 짐을 풀고 한강을 내려다 보니 그냥 눈물이난다.

내가 어릴 때 스케이트 타던 한강은, 기름에 쪄들어 추운 겨울날 얼어보지도 못하고, 말없이 흘러간다.

곡면 TV에선, 미니스커트 입은 20세 갓 넘은 소녀 앵커가 빨간 입술로 총리후보 청문회 뉴스를 앵무새같이 읽고 있다.

타워팰리스 사고 팔고, 분당 땅도 사고 팔고 하던, 부동산 박사 투자 전문가라는데, 지난 번 후보 때에는 교회 안에서 한 기독교 만담 설교 가지고, 지지고 볶고 깽판내던 기자 녀석들도 "야 임마, 저 패널부터 막아,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빼고 이러더라고…. 지가 죽는 것도 몰라!"

이 한 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부동산학 박사님은 늠름히 총리 공관으로 들어가더니, 첫번째로 하는 일이 까만 양복입고 옛날 왕초들에게 조폭처럼 큰 절 올리고, "결과로 말하겠다" 고 하더이다.

용인 상현에서 문정공 조정암 선생이, 강릉 오죽헌에서 문성공 이율곡 선생이, 남양주 마현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회초리들고 내려오신다.

"이놈들, 정신차려라" 하신다.

예수께 받은 창을 받들고 김교신 선생께서 '불의 전차' 를 타고 내려오신다,

다 죽어가는 개구리 살려놨더니, 요놈들 찢고 까불고 야단이구나.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시네,

"아, 이놈들아! 불쌍한 내 새끼들아. 이제 우리들이 나아가, 저 끈질긴 악귀(惡鬼)들을 쫓아내야겠다."

<주> ▶김교신 선생 = 일제 말 기독교인, 교육자, 성서조선 발행인, 시론 '조와(弔蛙, 죽어가는 개구리를 조문함)' 발표. 일제에 구금, 양정고교, 경기고, 송도 고교에서 가르침.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 산업혁명 후 영국 기독교 정신의 피폐를 경고하는 영국시인, 화가. William Blake의 시 Jerusalem 중에서. ***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권영민 명예교수가 버클리 문학회원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UC버클리 초청 권영민(문리대 71졸) 명예교수

버클리 문학회 초청으로 특강

"문학은 만남이다" 주제

UC버클리 초청교수인 권영민 교수가 지난 3월 7일 버클리 문학회(회장 김희봉) 강사로 초빙돼 문학강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권영민 교수는 1995년 샌프란시스코 문학지 1호인 '서른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 만났던 동포 문인들을 20년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문학은 만남"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30여 명의 문학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댄빌의 김희봉 회장 자택에서 열린 모임에서 권영민 교수는 "문학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세계와 만남으로 운명처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문학은 만남의 언어임을 강조했다.

이날 권영민 교수는 1940년대 정지용 시인의 추천으로 '문장' 지를 통해 등단한 조지훈과 박목월의 만남을 통해 현대 한국문학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경주 건천역에서 만남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박목월의 '나그네'와 조지훈의 '완화삼' 시 소개와 두 사람의 만남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면서 '문학은 만남이다'라고 결론을 전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갖고 '평생 꿈이 문학공부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2년간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와 인문대학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 후 지난 해부터 버클리 대학 초청으로 한국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김경년 시인의 영시 해설과 강학희 시인의 시 낭독, 김종훈 수필가의 음악 연주 등 문학과 음악이 함께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김이배(국제경제학 88졸) 동문

아시아아항공 미주지역 신임본부장

'지난 해 LA 이어 뉴욕도 6월 A380 취항할 것'

"미주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 지역 신임 본부장을 맡은 동문 김이배(50•사진 국제경제학 88졸) 상무가 한인사회에 첫 인사와 함께 업무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김 본부장은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첫 취항을 한 이래로 미주지역 한인들의 아낌없는 성원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미주 노선의 중요성과 상징성은 각별하다"면서 "더욱이 지난 해 첫 LA노선에 투입된 A380기의 운영도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 호응 속에 안착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미주지역본부 관리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본부장은 "LA에 이어 올 6월 뉴욕 노선에도 A380 취항을 앞두고 있어 미주지역 한인들이 보다 편하고 쾌적한 항공여행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교에서 국제경제학, 시라큐스대 MBA를 마친 김 본부장은 1988년 입사해 2007년 전략경영팀장을 역임하고 2008년 상무 승진과 함께 전략기획담당 임원으로 근무해왔다.***

권길상·송진웅·이봉수·장진현 동문

CA·CH·Tallahassee에서 작고

▶**권길상(음대 기악 48졸) 동문** = '스승의 은혜' '과꽃' '꽃밭에서' 등의 작곡가로 너무나도 유명한 권길상 동문(사진)이 지난 3월 13일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88세로 작고했다.

고인은 1927년 8월 4일 출생으로 모교 음대 1회 졸업생이다. 이화 여중·고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작곡 활동을 해오다 37세 때인 1964년 형을 따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 정착했다.

권길상 동문은 대한민국의 아동음악가로 약 200여 곡의 동요를 작곡하였다. 1945년 12월 작곡가 안병원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어린이 합창단 '봉선화 동요회'를 조직해 동요보급에 앞장섰다.

미국에 와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등 동요 보급에 힘썼다. 미국 이주 뒤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 창작과 보급 활동을 펼친 것이다.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초대 회장, 미주 동요 사랑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동요 대상과 한국 아동음악상, 제31회 소파상, KBS 동요작곡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페이스 신학교에서 종교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송진웅(농대 57) 동문** = 지난 해 8월 23일 시카고 Arlington Hts 자택에서 작고했다.

▶**이봉수(공대 71) 동문** = 휴스턴 동창회 장학 위원으로 봉사하고 Florida 대 교수로 Tallahassee로 이주했던던 이봉수 동문이 지난 3월 Tallahassee 에서 작고했다.

▶**장진현(사대 76졸) 동문** = 극작가 장소현씨의 동생으로 잘 알려진 장진현 동문이 지난 3월 7일 캘리포니아에서 작고했다. 장례식은 12일 할리웃 포레스트론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다. (818)344-6257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LA 협의회

'2015 한·미 평화통일 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LA협의회(회장 최재현·수의대 66·사진)가 5월 21일 LA에서 '2015 한·미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한다.

목적은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정세의 변동에 맞추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양국의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것이다.

참석자는 민주 평통 자문위원, 양국 주요인사, 관계 전문가, 언론인 등 약 150여 명이다.

이번 포럼의 기본방향은 총 2세션(세션별 사회자 1명, 패널 4명)으로 구성, 한·미간 실효성 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양국의 사회자 및 패널을 동수로 조직하고 있다.

주제는 세션 1. 북한의 체재변화 등 통일을 위한 한·미간 협력방안, 세션 2는 통일 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미 동맹의 역할에 관해서다.

세션별 사회자 진행으로 패널 4명(한국 2명, 미국 2명)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한다.

진행방식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언어의 특수성, 원활한 의사진행 등을 감안하여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실시한다.

참석자는 논의내용의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을 폭넓게 초빙한다.***

한동대 장순흥(공대 원자력공학과 76졸) 총장

산호세 온누리 교회 창조과학 세미나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공대 원자력공학과 76졸·사진)이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온누리 교회(담임 목사 김영련)에 강사로 초청돼 지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창조과학 세미나와 전도 간증 집회를 가졌다.

장순흥 총장은 모교 공대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아 핵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한국의 핵 분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크리스천 학자다.

장 총장은 미국 유학 후 1988년 귀국하여 한국 과학기술원 원자력 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교학부총장,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자문위원,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 한동대 이사장 등 원자력과 과학분야의 중요한 단체와 기구에서 활동했다.

현재 한동대 총장, 신형원자로 연구센터 소장, 한국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크리스천 학자로서 독특한 전도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크리스천 전문인으로서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장순흥 총장의 창조과학 세미나 및 간증은 3월 13일부터 3회 실시됐다. ***

이형준(농생대 농경제학 88졸) 동문

신한은행 CA 어바인 지점장 부임

캘리포니아 LA의 신한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이형준(농생대 농경제학 88졸) 동문이 신한뱅크 아메리카의 어바인(2730 Alton Parkway #111 Irvine) 지점장으로 지난 3월 발령받아 최근 부임했다.

지난 2008년 BBCN 은행에 입행한 이 신임 지점장은 2013년 6월부터는 신한은행에서 커머셜 론 오피서로 경험을 쌓았다.

모교 농생대 농경제학과를 1988년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MBA를 받은 이 지점장은 지역 한인사회를 위한 최선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949)660-0505 ***

바이올로니스트 고(故) 안용구(음대 46) 교수

하워드 카운티 예협 '예술 유산상'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부로 불린 고(故) 안용구 교수(음대 46·피바디 음대 명예교수·사진)가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 예술협회로부터 예술 유산 상(legacy in arts award)를 수상자로 결정돼 유족들이 대신 수상했다.

하워드 예술협회는 안 교수와 함께 우수 예술인 및 신인들을 선정, 지난 3월 28일 시상했다. 예술협회는 매년 음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피트 바렌브리지가 우수 예술인상, 그렉 잉글리시 교사(레저보 고교)가 우수 예술 교육가상, 하워드 은행이 우수 예술 지원 비즈니스상을 각각 받았다. 또 '떠오르는 별' 파이널리스트로는 친-정 슈 등 9명이 선정됐다.

한국 현악계의 산 역사인 안 교수는 강동석·김영욱·정경화·강효·김민 등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길러낸 것으로 유명하다.

안용구 교수는 모교 음대의 전신인 경성 음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했다. 서울대 교수와 KBS교향악단,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악장으로도 활약하는 한편 안용구 현악합주단과 현악 3중주단·4중주단을 조직해 실내악을 보급하는데도 힘썼다.

1968년 도미한 그는 피바디 음대 교수로 2002년까지 34년간 후진을 양성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8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안 교수의 시상식을 겸한 제18회 연례 하워드 카운티 예술 축하 행사가 이날 28일 오후 6시

하워드 커뮤니티 칼리지의 피터 앤드 엘리자베스 하로위츠 비주얼 앤드 퍼포밍 아츠 센터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안 교수의 미망인 김정현 여사와 안호(캔사스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주자), 안준(IT 엔지니어), 안영희(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비올라 주자) 등 가족이 모두 참석, 수상 소감을 대신 전했다.***

고병철(법대 55)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명예교수

반세기 전에 쓴 글을 Pacific Affairs에서 재출판

<고침> 지난 3월호 11면에 이와 관련된 지면을 게재했으나 빠진 부분을 추가했다.

Vancouver의 British Columbia 대학에서 계간으로 나오는 Pacific Affairs는 아시아 학회에서 출판하는 Journal of Asian Studies, UC Berkeley가 출판하는 Asian Survey 함께 3대 Asia 문제 학술지 중의 하나다.

그 학술지의 2014년 12월 호에 고병철 동문(법대 55·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명예교수)이 반세기 전에 쓴 글이 재출판되었다.

반세기 전의 글을 재 출판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Pacific Affairs는 재조명해 볼 가치가 있는 글을 발굴해 ▶50년 전의 글 ▶세 학자의 평가 ▶저자의 답변을 출판하고 있다.

고 동문이 1965년 쓴 글 'North Korea and the Quest for Autonomy(북한의 자주성 추구)는 북한관련 글이 희귀한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 후 북한연구를 한 학자들과 정책수립자, 특히 정보분석관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자체는 자주성 추구의 핵심인 경제적 자립에 실패해 자주성은 구호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고 동문의 재평가다.***

극작가 이재현(사대 60) 동문

장편소설 '찻잔 속의 영혼' 출판

원로 극작가 이재현(사대 60) 동문이 첫 장편소설 '찻잔 속의 영혼'을 펴냈다. 주로 희곡 작품을 써오던 이 동문이 소설에 처음 도전해 눈길을 끈다.

이 동문은 "소설을 통해 우리의 정통 다도(茶道)에 깃들어 있는 정신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 나아가서 해외 동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소설은 이민 1세대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넘겨받게 된 한인 2세 여성이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으로 재산을 포기하고 다도에 심취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을 담고 있다.

판 동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동문은 그동안 '빨간머리 앤' '흥부놀부' '오유란전'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왔다.

평양에서 태어난 이 동문은 모교 사대와 동국대 대학원을 거쳐 한국에서 극단 부활 대표 등을 역임했다.

'찻잔 속의 영혼' 출판기념회는 4월 16일 오후 6시 30분 뉴욕의 플러싱 KCS(35-56 159스트릿)에서 열렸다. ***

첼리스트 이방은(음대 63) 동문

CA 엔시노 장로교회에서 연주회

첼리스트 이방은(음대 63)동문이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엔시노의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Encino)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회에서 이방은 동문은 드볼작의 '첼로 콘첼토 Op. 104',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D단조',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바리에이션 Op. 33' 등의 작품을 연주했다. 피아니스트 폴 핏맨이 함께 했다.

모교 음대를 졸업후 이 동문은 뉴욕 매네스 대학을 졸업했으며 호놀루루 심포니 교향악단에서 활동했다. 미국과 한국, 평양 등에서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했으며 솔레네 앙상블을 창단, 체임버 앙상블 연주회를 열어왔다.

한국에서는 서울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대만성 국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와 중국 문화대학 교수를 지냈다.

최근 이 동문은 동생으로 북한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리만섭과 함께 연주한 곡(노을 비낀 바다가)을 담아 연주실황 앨범(After a Dream)을 펴낸 바 있다. USC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피아니스트 폴 핏맨은 샌 퍼난도 밸리의 음악교사협회(MTA:Music Teachers' Association)회장을 지내며 음악 교육에 공헌해 왔다. 독주회를 비롯 많은 체임버 뮤직 연주회를 가져온 폴 핏맨은 엔시노 제일장로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이 동문과 듀오 리사이틀을 가져왔다.***

뉴욕 필 수석 첼리스트 역임 박정윤(음대 93) 동문

John F. Kennedy고교에서 연주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출신의 박정윤(음대 93·사진)동문이 지난 2월 28일 첼로 연주를 선보였다.

박정윤 동문의 공연은 이날 28일 오후 8시 나소 카운티 플레인뷰에 위치하는 John F Kennedy 고등학교(50 Kennedy Drive) 강당에서 열렸다.

박 동문은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리즈마)에서 첼로 연주를 맡고 있으며 현재 노스쇼어 심포니오케스트라 소속의 첼로 연주자이기도 하다.

박 동문은 1997년 모교 음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8년간 음악 공부를 마쳤으며 다시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8년째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짜르트 심포니 교향곡 드보르작과 스메타나의 곡들을 선보였다.

지휘는 스토니브룩대 음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잔 디버가 맡았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내용은

www.northshoresymphonyorch.org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스트만 음대 박사 플룻연주 최혜성(음대 95) 동문

Rancho Mirage 도서관서 독주회

최혜성(음대 95) 동문이 지난 4월 14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의 Palm Springs에 위치한 Rancho Mirage Public Library 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이번 독주회에는 저명한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음대 02)이 함께 했다.

독주회 테마는 'Music with Stories' 이야기가 있는 플룻곡들로 구성했으며 관중들을 위해 해설도 곁들이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독주회에서 연주된 프로그램은 Gubaidulina: Sound of Forest John Rutter: Suite Antique Reinecke: Undine Sonata Bizet/Borne: Carmen Fantasy 등이다.

최혜성 동문은 음대 99년 졸업으로 이스트만 음대 석사를 거쳐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문연주자 자격증(Artist's Certificate)을 목관악기 연주자 최초로 취득했다.

그동안 샌안토니오 심포니 수석, 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을 역임했다.

미국 플룻 연합 영아티스트 콩쿠르(National Flute Association's Young Artists Competition)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현재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에 출강하고 있으며 Flute and Harp Duo 'Dolce', Flute Ensemble 'the Ten' member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 탈북자 돕기 음악회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 서병선·음대 65)가 오는 5월 3일 프러싱 JHS 189 강당(주님의 교회)에서 제31회 탈북난민돕기음악회를 갖는다. 다음은 '초대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 뿐인 민족분단국가로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탈북자들을 잡아 처형하는 반인륜적 극악무도한 야만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수치입니다.

독일도 한 때는 민족분단국가였으나 서로 친지상봉 등이 자유롭더니 10년만에 평화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은 가곡의 발상지로 국민 거의가 가곡을 사랑하고, 가곡의 자질인 소박, 정직, 인내, 지성, 사랑 등이 정신문화에 주축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온 한국 땅위에 가곡이 널리 보급될 때 민족분단의 비극은 사라지고 독재자가 설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동안 뉴욕 동포들의 감동적 동포애는 수십만 탈북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음악회 성금은 1천400여명을 한국과 미국으로 구출시켰고 탈북자 구제에 목숨 바쳐 헌신해 온 천기원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두리하나 USA에 전달됩니다.

음악회에는 열정적인 연주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뉴욕그레이스 여성합창단(단장 홍정실)이 특별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문화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

←원주 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이 이사회 후 기념촬영했다. 오른쪽이 유홍열(자연대 74)회장.

원주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 유홍열(자연대 74)회장

지난 해 불우이웃 18만 달러 지원

정기 이사회, 후원확대 논의

원주 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회장 유홍열자연대 74, 이사장 정인준 신부)이 지난 해 17만 7천 500달러를 고국 복지후원과 결연후원, 해외 복지후원, 성심야구부 후원 등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카리타스는 지난 3월 23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한강' 레스토랑에서 정기 이사회를 소집, 후원회원 확대 및 재단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홍열 회장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지난 해 큰 활동을 하지 못했다. 올해는 기빙트리 캠페인의 포맷을 바꿔 진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연말 기빙트리 캠페인을 통해 총 901명의 지구촌 불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면서 "1년에 한 번 선물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 곳 후원자들 역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보람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리타스는 지난 해 20만 2천 700달러의 총수입에 18만 7천800달러를 지출, 현재 잔고 8만 8천여 달러로 집계됐다. 재단은 또 DC 갤러뎃 대학에서 영어 ESL과정을 밟고 있는 창각장애인 서길원 군 돕기 전담 이사로 김만식씨를 위촉했다.

이사회에서는 제1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낭독 및 승인, 2014년도 사업보고, 활동평가, 재무보고, 2015년도 사업 활동 계획, 카리타스 회지 발간 등이 논의됐다.

카리타스 회원은 매달 12달러를 후원하는 정기회원, 특별후원, 매달 60달러씩 후원하는 고국 아동결연, 해외아동복지급식지원(연 200달러) 회원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35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문의(571)432-9868 ***

김금자(간호대 63) 동문

헨리 화랑 전시회

김금자(간호대 63 미국명 Alice Chung) 동문이 필라델피아 펜 스테이트 대학원에 있는 헨리 화랑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김 동문은 'Colors of Korea'라는 주제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국화가 8명과 함께 작품 7점을 출품해서 그룹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김 동문은 모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 온 후 필라델피아 시내에 위치한 PAFA(Pennsylvania Academy of the Fine Arts)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전문 화가로 20여년 동안 한국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작품 활동 및 전시회를 해 왔으며 현재 7번의 개인전과 120 차례의 그룹전을 열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공모전 입상 및 입선으로 현재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The Henry Gallery, Penn State Great Valley, 30 E. Swedesford Rd, Malvern, PA ***

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수(공대 80졸) 차기회장

"한·미 과학계 연결고리 넓혀야"

"미국 과학계에서 요즘 가장 선호하는 유학생 중 하나가 한인 학생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봐요. 앞으로 양국 과학계를 잇는 연결고리를 더 넓히는 게 중요하죠."

1971년 12월 미국에서는 한국계 과학자 69명이 속속 워싱턴 DC로 모여들었다. 전공 분야도, 출신지역도 달랐지만 고국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은 같았다. 이렇게 출발한 모임은 44년 만에 6천여 명의 등록회원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얘기다.

KSEA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수(57·공대 80졸·사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석좌교수는 "이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미국에서 널리 인정받는 수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해 선거에서 44대 회장으로 당선돼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KSEA를 이끌게 된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김 차기회장은 연구실과 공사현장을 넘나드는 전문가로 꼽힌다. 모교를 졸업하고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전 국내 대기업 건설사에서 3년가량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은 덕택이다.

KSEA 회원은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과학·공학·의학 등을 공부하는 한국계 학생, 교수, 연구원 등이다. 이들은 한미 과학·기술·기업가 정신 학술대회(UKC), 청년 과학기술 지도자 학술대회(YGTLC), 한미 공동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며 양국 교류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초창기엔 '조국에 애국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입하는 회원이 많았지만 최근엔 한·미 과학교류에 동참하려는 1.5세, 2세 과학자들이 늘었다. 김 회장이 꼽은 KSEA의 최대 화두도 '차세대 양성'이다.

"KSEA 역사상 처음으로 44대 회장단 임원진(executive director)으로 40대 중반인 차세대 과학자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재미 한인사회를 이끌 리더를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한인 1세대에 이어 차세대 과학자들이 한미 양국을 잇는 고리를 튼튼하게 이어갈 수 있겠죠."

KSEA의 최대 행사는 한·미 과학자, 기술인,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대회인 'UKC'다. 올해는 7월 29일~8월 1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며 1천3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조각가 안병철(미대 82) 서울시립대 교수

LA 유니언 갤러리 초대전

'생명의 흐름(Flow of Life)'을 타이틀로 '씨앗 형상화, 그곳에 생명을 담다'로.

조각가 안병철(미대 조소과 82) 서울 시립대 교수 초대전이 LA 아트코어 유니언 센터 갤러리에서 지난 2월 12일부터 개최돼 20일까지 열렸다.

안병철 교수 조각 작품 초대전은 애초에 지난 2월 1일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캘리포니아의 서부 항만 물류 운송 장애 사태로 서울서 운송돼 온 작품이 롱비치 항에 묶여 전시를 미루게 되면서 12일부터 전시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식물의 씨앗이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안 교수의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 표면을 고광택으로 처리한 반짝이는 조각품과 한지를 이용한 평면 조형 작품이다.

'생명의 흐름(Flow of Life)'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인 이번 작품 초대전에서 안 교수는 씨앗을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생명의 신비롭고 경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이다.

안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해 "씨앗,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고 끝이며, 영원히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이다. 고통을 침묵의 기다림으로 극복한 희망의 원천이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그것은 작되 절대 작지 않고 단단하되 결코 단단하지 않다"며 "작품 속에 표현된 미스테리한 힘의 원천을 관람객이 함께 느끼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모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안 교수는 현재 서울 시립대 예술체육대학 환경조각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LA 아트 코어는 월요일과 화요일 문을 닫아왔으나 이번 전시기간 중에는 12일부터 20일까지 계속 오픈하면서 안 교수의 작품을 전시했다. 주소는 120 Judge John Aiso St. LA .

www.laartcore.org ***

모교 융합과학대학원 김성훈 교수

남가주 한인과기협 컨퍼런스서 특강

남가주 한인과학자 KSEA 서부 컨퍼런스 2월 28일 샌디에고에서 열려…, 초빙 특강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Engineers Association)가 지난 2월 28일 샌디에고에서 서부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 및 공학산업의 기술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샌디에고를 비롯한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 한인과학•기술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정주 KSEA 샌디에고 지부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생명공학, 하이 테크놀러지(IT)는 물론 토목,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에게 폭넓은 인적 네트웍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신고용 창출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회복지 ▶상호협력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홍보 강화 및 차세대 육성 등이 토의됐다.

'2015 서부지역 컨퍼런스'에는 한국에서 최고 과학자상(2012), 올해의 우수과학자상(2006) 을 수상한 모교 융합과학대학원 김성훈 교수가 특별 강사로 초빙돼 특강을 해주었다.

KSEA는 한국과 미국의 포스터 글로벌 과학협력,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잠재력 개발 및 인적 네트웍 결성을 목적으로 지난 71년 설립되었다.***

뉴욕 약대 동창회

대동연회장에서 신년 '동문의 밤'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뉴욕 프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약대 동창회(회장 이대연, 이사장 김창수)의 2015년 신년 축하 동문의 밤이 90여 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은 한 시간 가량의 칵테일 파티 후에 손진태(약학과 67)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영천(약학과 72)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연(약학과 65) 회장은 "동문들의 대부분이 약사 이민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민 초기에 뉴욕주 약사 면허 시험 준비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 후 인턴과 직장 생활을 같이하면서 동고동락을 해오는 동안 선후배들이 가족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재 격월로 진행되고 있는 이사회 모임과 10년 이상 계속되어 온 해외 단체 여행을 통해 꾸준히 친목을 다진 결과 다른 단과대학 동창회에서는 볼 수 없는 단란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회장은 또한 전임 회장단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내빈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필자(김창수 이사장·약학과 64)는 "노령화 되어가는 동문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동창회 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오늘과 같은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또한 필자는 건강상 이유나 집안 사정 등으로 이날 파티에 참석치 못한 동문들께 안부를 묻고, "평소에도 동문들끼리 자주 모임을 갖자" 고 제의하였다.

이어 내빈으로 참석한 이준행(공대 48) 뉴욕 골든클럽 회장과 민준기(공대 59) 뉴욕동창회 차기회장을 소개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뉴욕 한인 약사회의 최윤선 회장과 김수지 차기회장, 조명하 이사장도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준기 동문은 뉴욕 동창회를 대표해서 축사를 하였으며, 이준행 골든클럽 회장은 뉴욕동창회의 원로로 약대 동문들께 격려사를 하였다.

뉴욕 한인 약사회의 조명하 이사장도 뉴욕 약대 동창회의 신년 축하 모임을 경하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참석한 모든 내빈들이 약대 동창회에 각기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날 '동문의 밤' 에 약대 뉴욕 동창회는 지난 1년간 동창회 업무를 위해 시간과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종대(약학과 65) 직전 회장과 성기로 직전 이사장(약학과 57)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각각 증정하였다.

↑왼쪽사진부터 이대연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이종대 전 회장(오른쪽), 감사패를 받는 성기로 전 이사장(오른 쪽), 감사 선물을 증정받은 송재한 동문(왼쪽)과 손갑수 동문.

그리고 동창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손갑수(약학과 59) 동문과 송재한(약학과 61) 동문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증여하였다.

'동문의 밤' 2부 프로그램에서는 '박양명과 그의 악단' 의 음악 연주에 맞춰 소셜댄스와 라인댄스, 그리고 동문간의 노래자랑 순서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 푸짐한 경품과 참가 상품들이 골고루 제공돼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한편 이날 파티에는 현재 뉴욕 근교 대학원에 유학 중인 후배들과 1959년 이전 졸업생들에게는 입장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예전과 같이 신참 졸업생과 대선배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 = 김창수 이사장·동창회보 논설위원, 사진 = 손갑수 이사>

조지아 동창회

도라빌에서 정기총회 개최

↑조지아 동창회 동문들이 도라빌에서 정기총회후 기념촬영했다.

조지아 동창회가 지난 2월 22일 도라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강창석(의대 74)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존스크릭에서 의사로 활동중인 강 회장은 "새해를 맞아 서로를 배려하고 동창회 발전에 솔선수범하는 회원들이 되자" 며 "저도 동창회원간 친목도모와 모교의 위상 재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현 전 회장은 "동창회원으로 봉사하면서 그동안 도와준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한다" 고 인사했다.

동창회는 부회장에 이운파, 재무담당 이상엽, 총무 홍성구 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새로운 동창회 홈페이지(www.snuaaga.com)를 소개하고, 조지아주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회원명부 작성 ▶봄•가을 야유회 개최 ▶불우이웃돕기•장학기금 마련 음악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정기총회 후에는 김형우 어번대 경제학과 교수가 강연했으며, 이영진 동문이 '여행과 삶' 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또 구정 설날을 맞아 만찬, 전통 민속놀이 행사도 개최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워싱턴 주 동창회

신년회, 차기회장 하주홍 동문 선출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섭)가 2015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모두 4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서로 간에 안부와 뉴스를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젊은 층의 동문 참여가 저조하여 아쉬웠기에, 별도로 젊은 동문들만의 행사를 따로 생각해보고 있다.

일단의 개구장이 선배들께서는 필자(임헌만 수석총무)가 특히 아끼는 중국에서 가져온 고급술 마오타이를 한 병을 까서 한 잔씩 돌아가며 마시는 바람에 왁자지껄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선배들의 사모님들은 모두가 자녀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도 차기 →워싱턴주 동창회 동문과 가족들이 그룹으로 나뉘어 윷놀이 시합이 열중하고 있다.

회장 후보로 하주홍 동문(경영대 77)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고, e-mail을 비롯한 공지사항 등에 대한 동문회의 방향에 대해 토의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 결정과정, 본부에서 온 소식 등 공지사항 전달이 있었다.

여흥을 위한 게임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윷놀이를 하며, 즐겁게 웃고 유쾌한 게임을 즐겼는데 최고점 승자와 최하점 마이너스 패자에게 골고루 상품을 나누어 주는 미덕을 보였다.

올 여름철 피크닉은 8월 두번째 주 토요일이 8일이므로, 8월 8일 11시로 잡았다. 장소는 Redmond 소재 Perrigo Park으로 정했고, 가족행사 어린이 스포츠 행사가 많은 공원의 shelter에서 열기로 하였다. 이곳은 지난 해 사용했던 Grasslawn park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착오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신년회에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원섭(농대 77)·임헌민(공대 84)·김무웅(음대 64)·박찬형(의대 56)·김재훈(공대 72)·김인배(수의대 59)·윤석진(문리대 64)·송준(공대 55)·최준한(농대 58)·하주홍(경영대 77)·윤태근(상대 69)·이정자(사대 61)·이정관(농대 83)·이회백(의대 55)·유성렬(공대 72)·이정재(사대 82)·변재준(의대 78).***

<글·사진 = 임헌민(공대 84) 동창회 수석총무>

밴쿠버 동창회

밴쿠버-서울신년회

밴쿠버 동창회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한식 레스토랑 '배나무골 오리집' 에서 '밴쿠버-서울 신년하례(新年賀禮)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신년하례 모임답게 원로 대선배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선배님들은, 김형실(53) 유동성(58) 한일상(63) 이시성(66) 이홍일(70) 김용진(76) 박병우(76) 선배님 등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스리랑카 등 동남아 여행을 하고 오신 이시성 선배님, 지난 해 디스크로 고생하신 이홍일 선배님께서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동문 선후배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글·사진 = 박병우>

↑왼쪽부터 김종수(공대 74) 부회장), 정윤호(사회대 82) 부총영사), 홍경삼(문리대 61)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이장우(문리대 72) 전 동창회장, 오연천 총장 부인(음대 72), 정국휘(미대 77) 총무, 오연천 총장, 이수정(음대 88)부회장), 박희례(간호대 73) 동창회장, 김대경(공대 88) 총무) 김숙 전 UN 대사.
→김숙 전 UN대사와 오연천 전 총장이 지난 1년간 Stanford에서의 소중안 시간들을 되돌아 봤다.
레스토랑 청담에서 동문들이 환담 중이다.

북가주 동창회

오연천 전 총장 송별회 가져

북가주 동창회(회장 박희례·간호 73, 이사장 홍경삼·문리대 61) 임원들이 Stanford 대학에서 1년간 초빙 교수로 지난 해 초청돼 1년간 국제 재정학 강의를 마친 오연천(문리대 정치학 70) 전 총장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산호세의 레스토랑 '청담' 에서 송별회를 가졌다.

오연천 전 총장은 부인과 함께 참석했는데 부인 역시 동문으로 음대 72학번이며 첼로를 전공했다.

이날, 역시 Stanford 대학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 활동 중인 김숙(문리대 사회학 70) 전 UN 대사도 함께 해 자리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두 분은 같은 70학번에 같이 문리대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 온 죽마고우 사이로 알려져 있어 이날 더욱 도타운 정을 나누었다.

오연천 전 총장은 Koret Foundation후원으로 모교 총장 임기가 끝난 지난 해 3월 Stanford 대학에 초빙돼 이처럼 강의를 맡아 왔다.

오 전 총장은 3월 1일자로 현대그룹이 경영하는 울산대 총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울산대생들은 오연천 박사를 총장으로 모시게 돼 벌써부터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방대에 큰 활력을 넣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가교육를 위하여 큰 용단을 내리신 오총장에게 경의를 표한다.

김숙 전 대사는 33년간 공직생활 가운데 17년은 국내에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국정원 차장을 지낸 뒤 16년은 외교관으로 활동한 북미 외교 전문가로 UN 대사를 역임했다.

한 분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 후학 양성에 힘써 온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세계의 외교 무대 한복판 UN에서 우리 조국 한국의 우상을 높인 분, 이 두 거목은 우리 모교 서울대의 큰 자랑거리다.

이 두 분과 이날 모인 동문들은 덕담과 함께 지난 학창시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글·사진 = 홍경삼(문리대 61)>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Zinfandel Club

북가주 동창회에 Zinfandel Club 이라는 모임이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 Pichetti Winery 뒤편의 Zinfandel Trail을 걸으며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참석 인원들이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2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기본적인 하이킹 외에 두 달에 한번 야외 행사나 회원 집에 모여 또 다른 나눔의 장을 가져왔다.

지난 3월 14일 야외 행사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Tomales Bay Oyster Company를 18명의 회원들이 찾아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초고추장을 곁들인 한국식 석화 구이를 비롯, 좋은 와인, 회원들이 각자 가져온 각양의 도시락들이 회원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회원들이 새로이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굴도 실컷 먹으면 배불러진다는 것!*** **<임준원(공대 77)>**

북가주 음대 동창회

‘슈베르트의 시와 환상’ 음악회 개최

북가주 음대 동창회가 지난 3월 21일(토) 동문은 물론 동포사회에 훈훈한 감성을 가슴에 넣어주는 연주회를 Santa Clara 대학 Mission church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음악회는 동문 음악인 뿐 아니라 동포사회 음악인도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시와 환상’ 이다. 이 음악회는 동문들과 가족을 비롯해 지역 동포 4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우리 인간은 울면서 태어난다. 곧이어 옹알이를 한다. 이 옹알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며 우린 모두 훌륭한 작곡가였다.

자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각자 자기에게 맡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음악은 인간과 태어날 때부터 영원 불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악적인 소질을 보유한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계속 유지하며 연마한다. 오늘 그분들을 만나고 음악을 통하여 슈베르트도 만났다.

Franz Schubert(1797.1~1828.11)는 31살에 요절하지만 Winterreise(전 24곡 겨울나그네), 마왕을 비롯해 600여 곡의 가곡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남겼다.

Der Hirt auf dem Felsen(바위 위의 목동)은 피아노 안영실(79), 크라이넷 윤혜민(Guest)의 반주로 이윤정(음대 04) 동문이 열창해주었는데 이 곡은 슈베르트가 1828년 11월 운명 직전 병마와 싸우며 긴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친구인 소프라노 Pauline Anna Milder-Hauptmann의 작곡의뢰를 받고 마지막으로 작곡한 것이다.

가사는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와 ‘겨울여행’ 을 쓴 Wilhelm Müller의 시(1~4절 및 마지막절)와 Karl August Varnhagen von Ense의 시(56절)을 인용했다.

알프스 푸른 초원에서 양치기 목동이 바위에 올라 산골짜기를

↑북가주 음대 동창회 이수정(음대 88) 회장이 음악회에 앞서 인삿말을 전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혜원(음대 96)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소프라노 이경민(음대 00) 동문이 Schubert가 20살 때 작곡한 Die Forelle(송어)를 열창하고 있다. 바이올린을 열연하는 이희정(음대 91) 동문. 이윤정(음대 04) 동문이 안영실(음대 79)동문의 피아노와 Guest 윤혜민씨의 클라리넷 반주에 맞춰 Der Hirt auf dem Felsen(바위 위의 목동)을 열창하고 있다. 서혜원(음대 96), 이경민(음대 00)동문.

보며 부르는 노래는 에코가 되어 돌아오고, 이는 사랑하는 임의 호소로 외로운 목동을 더욱 침통하게 하고, 크라이넷 연주와 함께 겨울에 쌓인 눈은 녹고 봄이 찾아 온다는 희망의 소리로 끝맺음한다.

연주 시간 12분이 조금도 길다고 느껴지지 않고 몸을 조용히 흔들며 음률에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된다.***

<글·사진 = 홍경삼(문리대 61)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이날 음악회에서 봉사해준 동문들과 Guest들. 왼쪽부터 김동준(Guest·피아니스트)·서혜원(음대 96·피아니스트)·윤혜민(Gyest·클라이넷)· 이윤정(음대 04·소프라노)·안영실(음대 79·피아니스트)·이희정(음대 91·바이올리니스트)·이경민(음대 00·소프라노)·홍세라(Guest·첼로리스트).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용주·공대 69)가 지난 3월 15일 2015년 드루리 레인에서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시카고 동창회

이사회 및 음대동문 주류사회 활동

2015년 제1차 이사회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용주·공대 69)에서는 지난 3월 15일(일요일) 드루리 레인에서 2015년도 첫 제1차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이사회에는 75명이 참석했는데 정승규 수석 부회장(공대 60)의 사회로 2015~2017년도 신임이사(이사진은 1년에 3분의 1씩 새로 선출)를 추천, 인준하고, 지난 해인 2014년도 재무 결산보고와 같이 2014년도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동문(서울음대 교수) 초청 시카고 서울대 동문 음악회(장학기금 모금)에 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있을 2015년도 행사계획과 예산을 인준하고, 미주총동창회 평의원, 차차기 회장 선발 위원회, 장학생 선발위원회와 장학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작년으로 임기가 끝난 위원직들을 새로 선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중요 행사로는 5월 16일 춘계 골프대회, 6월 27일 여름 야유회, 9월 19일 추계 골프대회, 12월 5일에 총회 및 연말파티, 그리고 예년과 같이 장학생 선발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 사업으로 2015년도에 새 주소록을 만들 예정이며,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교수가 시카고에서 2014년도에 가진 한국 가곡 독창회 때 발표한 한국 가곡의 세계화(Opera Star Korean Art Song Project) 작업에도 계속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대 동문 주류사회 활동

시카고 동창회 음대 동문들이 미 주류사회와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연계해 작곡과 연주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곡 소개 및 연주 동영상이 한국 작곡가 협회 게시판에도 올려져 우리 고국에서도 시카고 음대 동문들의 음악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한국 작곡가 협회 이사장 황성호 교수(음대 작곡과 74, 현 한국 예술종합학교 작곡과)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입니다.

황성호 교수는 이를 웹사이트(https://www.facebook.com/kocoaspage?fref=nf)에 올려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호 교수는 "아마 많은 사람들, 특히 연주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카고 동창회에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세종문화회의 루시 박(박종희 의대 69) 교수에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 교수는 시카고 WFMT 98.7 Relevant Tones에 곡들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http://blogs.wfmt.com/relevanttones/2015/01/10/in-the-field-seoul-part-i/ http://blogs.wfmt.com/relevant-tones/2015/01/17/in-the-field-seoul-part-ii/)

황 교수는 미 주류 방송을 통해 동문 음악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작곡가의 음악과 해설을 곁들여 이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동문 작곡가들이 훌륭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작곡가들의 훌륭한 곡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연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한국 고유의 테마가 들어간 곡들은 세종문화회를 위해서도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필자는 시카고에 있는 동문들(이소정·음대 84·피아노, 김미숙·음대 82·작곡)의 음악회에 초청받아 가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루시 박 교수와 같이 세종문화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한국의 테마가 들어간 곡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테마가 들어간 곡들이 연주된다고 하면 꼭 가서 듣고, 촬영이 허락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많은 분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경선 교수(바이올린)가 시카고 동창회 장학기금 마련 연주회에서 연주했을 때도 시카고 루즈벨트 대학 Teddy Niedermair 교수(음대 99·바이올린 전공 백선기 동문 부군)가 세종음악경연대회를 위해 작곡해준 밀양 아리랑을 부인 백선기 동문과 같이 연주하는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밀양아리랑 = 바이올린과 피아노곡 by Teddy Niedermaier (2014년 세종음악경연대회 바이올린 중등부 지정곡)http://youtu.be/NiNBvX0CYIk Teddy Niedermaier, piano백선기, 바이올린

▶파랑새 = by Teddy Niedermaier (2014년도 세종음악경연대회 피아노 고등부 지정곡) http://youtu.be/DOHU5CpBDXI Teddy Niedermaier, piano

▶창부타령(2012) = 김미숙 동문작곡. Wheaton대학 Faculty Recital에서 2014년 연주. http://youtu.be/DFgvcCE8CJ4.Lee Joiner,Violin, Linc Smelser, Cello, Paul Sanchez, Piano

▶세종문화회 동영상 모음 = http://www.sejongsociety.org/video_index.htm

<글 = 김호범(상대 69) 세종문화회 이사장>

시카고 동문들을 위한 특별 문화강연

Art Institute of Chicago의 Department of Asian Art를 후원하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인, Asian Art Council (AAC)에서 'Encounters With Asia'라는 타이틀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예술을 소개하는 특별 강연회 시리즈를 주관하여 Art Institute of Chicago 에서 강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물게 한국예술을 소개하는 순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수), 5월 6일(수), 5월 13일(수), 5월 20일(수) 등 4회에 걸쳐 한국예술 분야의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한국 예술에 관한 아주 귀한 특별 강연회를 다음과 같은 주제로 Art Institute of Chicago 에서 갖기에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9일 = Soyoung Lee, Korean Art Curator, Metropolitan Museum of Art. What's "Korean about Korean Art?

▶5월 6일 = Burglind Jungmann, UCLA Male Worlds/Female Worlds: Gender-Specific. Aspects of Early Joseon Painting

▶5월 13일 = Lee Talbot, The Textile Museum, Washington DC. The Art of the Inner Quarters: Textiles and Women's Culture in Joseon-Dynasty Korea

▶5월 20일 = Richard Born, Senior Curator, Smart Museum of Art. University of Chicago From the Land of the Morning Calm:Forming the Korean Art Collection at the Smart Museum

이 강연에 참가 문의는 312-443-7262 또는 aac@artic.edu

<이번 강연에 관해>

몇년 전 'Art Institute of Chicago'에 상설 전시할 아시아 작품 한 점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여 아시아의 어느 나라 작품을 구입할까 하고 Asian Art Council member들이 투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한국의 이인진 도예가의 도자기 작품이 결정되어 그 도예 작품이 현재 Art Institute of Chicago의 한국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 때 지난 25년간 꾸준히 Asian Art Council member로 활동하며 한국작품 구입에 투표하도록 주위 멤버들을 설득한 앤드류 배 갤러리의 앤드류 배씨에 의하면, 이번 한국 예술에 대한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한국예술에 정통한 분들이고, 강의 주제도 좀처럼 접하기 여러운 귀하고 좋은 강의들이라고 하며 이런 분들을 만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지지 말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관련하여 백범 김구선생님의 다음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한국의 예술품에서 '한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4월 29일 첫 강의를 맡은 뉴욕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Korean Art Curator 이소영(43·사진)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하고 스웨덴·영국·일본과 한국에서 자랐으며 콜롬비아 대학에서 동양예술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테마가 들어간 예술품, 한국적인 작품 등을 말하지만 정작 주의의 친구들이 한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에서 한국작품들을 사들일 때 어떤 작품들을 구입할까를 결정하는 이소영 curator의 강의를 통해 '한국적이라는 것' 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 이 시리즈 마지막 강의를 맡은 Richard Born씨는 시카고 대학 Smart Museum 의 Senior Curator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꾸준히 Smart Museum의 curator 로 활동하며 특히 거의 매년, 한국에서 열리는 해외 curator 들을 위한 연례 Korean art workshop에 참석하고, 한국 작품들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문화의 정체성을 포함한 작품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From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주제로 한국 예술품들만의 특별 전시회를 주관했습니다. 41년 전 Esquire 와 Coronet 잡지의 발행인 David A. Smart와 Alfred Smart형제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시카고 대학 Smart Museum 에 전시되고 있는 한국 예술품들을 오랫동안 수집해 모아놓은 Richard Born씨의 한국 예술품에 대한 강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문과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글 = 김호범(상대 69) 세종문화회 이사장>

↑김생철(법대 54·오른쪽)동문의 사회로 정인환(법대 54) 작가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남가주 법대 동창회 & 총동창회

정인환 동문 서예·수석전시회 주관

지산 정인환(법대 54) 팔순 기념 및 서예·수석 전시회가 3월 10일 LA '작가의집(대표 김병연·공대 68)에서 90여 명의 동문과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 법과대학 동창회(회장 채규황·법대 68)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혜옥·간호대 69) 회장단,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총동창회 전 회장, 대한민국 예비역 해병장교회 미 서부 지회가 행사를 주관, 각 단체 회장들의 축사가 있었다.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를 진행한 정인환 작가의 친구 김생철(법대 54) 법대 동창회 전 회장이 사회를 진행하였는데 일반 MC 이상의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회자의 개회사와 더불어 필자(백옥자·음대 71)는 서예와 수석의 깊은 맛에 어울리는 가야금 민요와 심금을 울려주는 산조의 연주로 축하객들과 지산 정인환 작가의 팔순 기념을 축하했다.

서예부문에서는 호봉 오규환 선생, 수석부문에서는 이정애 한미수석회 회장의 덕담으로 지산 정인환 작가의 오늘이 있기까지를 설명했는데, 수석 채집 때의 어려움과 기쁨이 함께 해서 전시회장의 출품 작품들이 더 값짐을 느끼게 했다.

인삿말에 나선 지산 정인환 작가는 팔순의 나이에도 핑크빛 화색의 얼굴과 하얗고 곱게 내려진 앞머리의 Wave는 너무 젊어 보여 팔순의 연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작품을 하나 하나 설명하는 정 작가의 모습은 생기있었고, 각 작품들과 같이 한 그 날들을 떠올리면 즐겁기만 하다. 한시의 매력은 내용이 후세에 전해줄 명언으로 마음에 새기며 모두가 뜻깊게 들었다.

대한민국 예비역 해병장교회 강신문 회장께서 해병장교 내빈 소개를 해주었고, 김형호 회장은 광주 동문들을 소개했다.

양민(공대 77) 남가주 동창회 총무국장은 동문 소개를 한 데 이어 채규항 법대 동창회 회장은 참석한 법대 동문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각 단체에서 보내 준 화환들이 전시장과 팔순 기념식장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다.

이날 이기준(법대 54)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이 다 함께 건배를 주재했고 내빈들이 작품 전시회장의 Tape cutting을 하였다.

축하 연주에는 Flute 최혜성(음대)동문과 Harp 윤희진(음대) 동문의 Moon River외 Bizet: L'Arisienne Menuet/Carmen Fantasy 와 Piazzola: Bordel 1900 from Histoire du Tango, Ibert: Entr'acte 등의 곡을 연주했는데 두 악기의 조화는 언제 어디서 들어도 음색의 색감이 고요하고 아름답다.

Happy Birthday Cake Cutting을 다 함께 부르며 어느새 지내온 세월들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그래도 사랑하는 작품, 너무 아까워 판매도 하지 않는 값진 보물, 내 작품들이 있어 지내온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였음에 작가는 풍족하기만 한 것 같다.

작가의 수석에 대한 매력에서 옛 선비들은 수석의 돌 하나에서도 맑은 산수경치를 읽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한 컵에 국화 향기 내용을 느끼면서 검 푸른 돌 색감을 서늘한 소나무 그늘인 양 보았다. 한 덩어리 돌에 나타난 울퉁불퉁한 모양을 저 중국의 전설적 명산의 하나인 무산의 12봉의 군봉으로 연상하며 작은 돌에 대자연에 비기며 즐거워 했다.

세상살이에는 말이 많건만 돌은 비록 말을 할 수 없어도 석부지언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수석회원들이 소장한 수석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 전시회는 3월 10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계속됐다.

4월 4~5일은 LA County Arboretum & Botanic Garden 식물원에서 다른 전시회를 열었다. 끊임없는 욕망이 젊음을 부른다.

'작가의 집' 에서 준비된 음식 가운데 항상 김문희(김병연 동문 부인) 시인의 손맛이 곁들여져 있어 더 맛갈스럽다.

<지산 정인환 동문 약력>

▶1953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1954~1960년 서울대 법과대학 입학 및 졸업 ▶1961~1962년 대한민국 해병학교 입학 및 해병 소위 임관, 1969년 월남전 참전(국가보훈 유공자) ▶1977년 미국 이민 ▶1978~83년, TarTan Industry(호크미사일, CNC. Programer, 미 Boeing사 QC. & ZEISS CMM Programer ▶1999년 상기 회사 Retire ▶미주 한인 서예협회전 5회 출품 ▶일본 서예공모전 2회 출품 ▶서울 Asia 미술초대전 5회 출품 ▶LA Griffith 산악회 감사 ▶예비역 해병장교 미 서부 지역회 감사 ***

<글·사진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김종하 에디터가 USC 대학원에 재학 중인 웨인 박(왼쪽) 군에게 제1회 아크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에스더 이(오른쪽) 양은 미 동부 지역에 머물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남가주 동창회 관악연대

제1회 아크로 장학생 2명 선정

에스더 이 양, 웨인 박 군…, "역경 딛고 성장, 사회, 후배들에 환원하길…"

남가주 관악연대(연대장 고정범·법대 79)가 운영 중인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이하 아크로)가 창간 6주년을 앞두고 동문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장학금의 장학생이 결정됐다.

이 장학제도는 관악연대에서 처음 설립된 것으로 모교의 재능 있는 저소득층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익명의 독지가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설립된 'WIN 장학기금' 의 후원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첫 아크로 장학금 수상자로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올 가을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진학하는 에스더 이 양과 USC를 졸업, 현재 USC회계대학원에 재학 중인 웨인 박 군이 뽑혔다.

한국 고아원에서 자원 봉사한 경험이 있는 에스더 이 양은 올 봄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이며, 대학원 진학 후에는 국무부에 취직해 한미 양국 관계를 탄탄히 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꿈이다.

올 봄 단기 코스로 USC 대학원을 1년 만에 끝낼 예정인 웨인 박 군은 패사디나의 하이텍 기업 전문 세무법인에 이미 취직이 된 상태로, CPA로 경험을 쌓은 후 의료 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돼 병마로 고생하는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WIN 장학기금' 은 선발된 서울대 재학생에게는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미주 지역 서울대 졸업생 자녀에게는 5,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WIN 장학기금 창립자가 작년 장학금을 받은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들려준 격려사를 줄여서 편집한 것이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서양에서 태평성대로 꼽는 시절이 있다면 로마의 '5현제 시대' 일 것입니다.(중략)

서양에 '5현제 시대' 가 있다면 동양에는 요순시대가 있습니다. 요순과 5현제는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순 역시 못난 친자식을 제쳐두고 가장 유능한 인물을 골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요는 시골에 묻혀 살던 순을 사위로 삼아 제위를 물려줬고 순은 치수에 능한 우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가 친자식에게 제위를 물려주면서 요순시대도 끝났습니다.

하나는 역사고 다른 하나는 전설이나 두 얘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이상사회는 부모 잘 만난 사람이 대대손손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능력자가 대접받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재학생의 1/3이 돈이 없어 학업 중단을 심각히 고려한 적이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는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한국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그래도 자기 힘으로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WIN 장학금은 무상 증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투자며 융자로 여러분은 이 돈을 스스로가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는데 사용해야 하며 사회인이 된 후 반드시 약속대로 같은 처지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남보다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인간을 보다 성숙시키고 더 깊게 살게 합니다.

하늘이 인간에 내린 고통의 의미를 더 깊게 성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먼저 심지를 괴롭게 하며 뼈와 근육을 수고롭게 하고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몸을 궁핍하게 한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바를 막는다. 이는 마음을 움직여 참을성을 길러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려 함이다.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후 고치고 마음이 피곤하고 걱정으로 어지러운 후에야 일어선다. 하고자 하는 바가 얼굴에 나타나고 목소리로 표현돼야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다.안으로는 법을 지키는 가정과 선비가 없고 밖으로는 적국과 우환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삶은 우환 속에 있고 죽음은 안락 속에 있음을 알라." 고 했습니다.***

관악세대/Acro광장

"가족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이원영(인문대 81) CA
LA 중앙일보 편집국장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지난 해 말 고향 부산에 살고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e-mail을 받았다. 올해 설날에는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두 다 한 번 모여보자는 제안이었다. 아버지 팔순 생신 행사도 당겨 함께 하자는 거였다.

우리 네 형제는 멀리 떨어져 산다. 부산, 서울, 중국 칭다오, 미국 LA로 그렇다.

따라서 한 번 모두 모이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딸린 자식들까지 빠짐없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구들이 죄다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 꼭 빠졌다.

이번에도 서울에 사는 동생이 대학 시험 준비로 바쁜 '고 3' 아들을 남겨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나머지 형제들이 "예외 없다"고 압박했다. 그래서 진짜 '다' 모였다. 처음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도 한국행을 망설였다. 할 일이 지천이었다. 가족이 한 번 나가자면 돈은 또 오죽 많이 드나.

이 핑계, 저 핑계 대자니 휴가낼 형편이 안 됐다.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지 어찌 아나 싶은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고향서 닷새를 보내고 돌아왔다. 지금 심정은? 너무너무 잘 했다, 스스로 칭찬을 듬뿍 해주고 있다.

우리는 보통 떨어져 사는 부모, 형제, 자매를 거의 잊고 산다. 그냥 한 지붕 아래 있는 가족이 모두인 것으로 안다. 멀리 있는 가족을 가끔 생각하지만 그저 희미한 이미지로만 떠오를 뿐이다.

아마도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1세 이민자들도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고국에, 타주에 가족들이 있어도 여건이 안 된다며 차일피일 하다가 십수 년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고국 여행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강렬했다. 특히 가족에 대한 느낌이 그렇다. 가족은 에너지요, 힐링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저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금세 풀어질 수 있는 혈연의 정,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서로 기댈 수 있다는 느낌, 그런 것이 서로 에너지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실상은 가족이 무너지는, 무너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흩어지고, 지리적으로도 여기저기 떨어져 살게 되고, 얼굴 보고 손 잡아보는 것보다는 그저 전화 한 통, 카톡 교환으로 만족하는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눈빛, 목소리, 흰 머리칼, 주름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어찌 전화 목소리 듣는 것과 손 잡아보는 것이 같을까. 그럼에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흔한 모습이다.

가족이 아니라 '웬수'가 된 관계도 있다. 아예 가족이 없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관계가 무너졌다면? 만나서 손잡으면 다시 세울 수도 있다. 가족이 없다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가족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데 가족을 너무 잊고 사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결코 잘 사는 방식이 아닌 것 같다.

이웃 민족인 라티노들을 보면 꼭 우리네 옛적 오손도손 했던 가족애를 떠올리게 한다. 공원을 뒤덮는 라티노들의 모임을 보면 가족이 주는 에너지를 느낀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그들의 얼굴엔 우리보다 웃음이 더 많이 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 해도,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임계점도 따라서 높아질까. 아닐 것 같다. 행복은 잊었던 것, 소홀했던 것, 작은 것, 그런 데 숨어 있을 것 같다.

걸출한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현경 교수(유니언 신학대)가 쓴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는 책 제목이 생각난다. '결국은 가족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로 바꿔 읽어 보자. 그러면 아마도 내가 '구원' 해줄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을까.***

내 안의 감정들과 친해지기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서양에서 흔히 감정은 '이성의 적대자'로 여겨졌다. 그래서 플라톤은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예술을 금지시키고 이성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으며, 근대의 사상적 상징인 데카르트 역시 '감정적 판단보다 이성적 판단'이라는 말로 감정과 이성을 대립시키기도 했다.

동양 문화에도 '참을 인(忍) 세 번에 살인을 면한다'는 말처럼 선조들은 감정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다.

'나한테 감정있어?' 혹은 '감정적으로 하지마' 처럼 '감정' 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머리나 이성으로 명령할 수 없는 지극히 솔직한 실존이다.

한편 때론 미움, 억울함, 수치심,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머리로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 라고 명령하며 급히 눌러버리곤 한다.

그러나 억제된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였다가 '욱' 하는 성격이 되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부하직원에게 분노 폭발로 표출되곤 한다.

마냥 참고 누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면, 나의 소유인 나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소화하고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

첫째는 떠오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에 감정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학자들은 감정을 크게 7 종류로 나눈다. 행복, 흥미, 슬픔, 분노, 경멸, 혐오감과 두려움이 그것이다. 그 큰 감정 그룹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감정들이 있다. 지금 어떤 한 기억에 따른 감정을 떠올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자.

첫째는 '행복' 이다. 사랑스러움, 고마움, 유대감, 기쁨, 황홀감, 극치감, 명랑 쾌활함, 만족감, 하늘로 붕 뜨는 느낌, 반가움, 감사함 등이다.

둘째는 기대감, 관심, 열심, 몰두감, 재미, 흥분 등의 '흥미로운 마음' 이다. '슬픈 감정' 에는 우울함, 기분이 처지고 가라앉음, 절망, 실망, 후회, 미안함, 불행함, 비통함 등이 있다.

넷째는 '분노의 감정' 인데, 그 안에도 짜증, 불쾌감, 불만, 격노, 시기심, 좌절, 환멸 등의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다. 만약 최근에 분노폭발을 경험했다면 어떤 분노의 감정이 깔려 있는지 가까이 들여다 보라.

다섯째는 '경멸함' 인데 그 안에는 무례함, 비판적, 씁쓸함, 거부감 등이 있다. '혐오감' 안에는 기피하고 싶음, 싫어함, 증오, 구역질이 있고, 마지막 '두려움' 안에는 불안, 겁남, 걱정스러움, 소심함, 혼란스러움, 경악, 예민함, 무서움, 불편함 등 다양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은 이름이 붙여진 감정들을 한 발자국 물러서서 바라보고 안전한 곳에서 그 감정을 솔직히 표출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감정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일기장이나 저널에 솔직한 마음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에,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마음에 응어리진 기억들을 한 번에 하나씩 꺼내서 바라보고 표현하는 작업을 권한다.

감정은 기억 속에 함께 저장된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 속에는 기쁨, 행복, 고마움, 친밀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깔려 있고, 슬프고 아픈 기억 속에는 거부당함, 모멸감, 수치심, 두려움,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공존한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눌려진 기억 속 감정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정이 재경험되고 표출되고, 아무 판단과 편견없이 공감받는 일은 치유와 회복 과정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감정표출과 공감의 힘이 상담실을 넘어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와 가족 간에, 친구와 동료 간에,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4monicalee@gmail.com

세계 문화유산 수난시대

이종호(인문대 81) CA
중앙일보 논설위원

파르티아(BC 247~AD 226)는 고대 중동의 대제국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전신으로 중국에선 안식국(安息國)이라 불렀다. 고대 중국과 파르티아를 잇는 내륙 무역로가 비단길, 실크로드였다.

아시리아(?~BC 605)는 이보다 더 오래된, 기원전 14세기부터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이다. 구약성서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앗수르다.

이들 제국의 도시들은 고고학의 보고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즐비하다. 지금 그 고대 유적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때문이다. 최근 IS의 공격을 받은 '하트라'는 고대 파르티아 제국의 거대한 요새 도시다. 지난 5일 파괴된 이라크 북부의 '님루드'는 아시리아 제국의 두 번째 수도였다. 고래 배 속에서 살아나온 구약성서의 선지자 요나의 무덤으로 알려진 나비 유누스 묘지도 지난해 7월 IS에 의해 폭파됐다고 한다.

IS의 유물 파괴는 자신의 존재감 과시와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유물 밀거래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든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세계유산은 161개국 1007점이다. 문화유산이 779곳, 자연유산 197곳,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유산이 31곳이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50), 중국(47), 스페인(44), 독일(39) 프랑스(39)가 '톱5'다. 한국은 11개, 북한은 2개다.

미국엔 22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다. 12개는 자연유산, 9개는 문화유산 그리고 1개는 복합유산이다. 세계자연유산은 대부분 국립공원이다. 옐로스톤, 그랜드캐년,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켄터키주 매머드동굴, 워싱턴주 올림픽국립공원,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요세미티,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뉴멕시코주 칼스배드동굴 국립공원 그리고 캐나다 국경지역의 알래스카 산악공원군과 워터톤 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이 그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은 ①콜로라도주 메사버디국립공원, ②1776년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홀 ③미시시피강 유역의 카호키아 마운드 인디언 사적지 ④뉴욕 자유의 여신상 ⑤뉴멕시코주차코 인디언 문화유적지 ⑥버지니아주의 토머스 제퍼슨 저택 몬티셀로와 그가 설계한 버지니아대학 건물 ⑦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의 푸에블로 인디언 유적지 푸에블로 데 타오스 ⑧루이지애나 북동부 북미 대륙 최초의 고대도시 유적지 파버티 포인트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라포탈레사 & 산후안 역사지구까지 포함해 9개다. 하와이 북서쪽 파파하나우모쿠아키아 해양 내셔널모뉴먼트는 복합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아무리 살펴도 빛나는 조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빼어난 자연 아니면 아메리카 원주민 유적지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미국을 문화 후진국이라 여기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세계 제 1의 문화강국으로 부러워한다.

왜일까. 몇 안 되는 유물 유적일지언정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보존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산재한 크고 작은 뮤지엄들이 그 현장이다. 종류와 내용,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한가.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을 찾는 부지기수의 방문자들이다. 이것이 미국의 힘의 원천이다.

역사와 문화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일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세력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인류의 귀중한 자산을 훼손하고 있는 IS가 반드시 새겨야 할 대목이다. 중동의 고대 유적·유물들이 더 이상 수난당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관악세대/Acro광장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사는 소기관으로 '발전소' 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세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 없이는 세포의 생존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체도 살아갈 수 없다.

이 소기관은 인체 내 다른 세포와 다른 특징을 하나 갖고 있다.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만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점이다.

현재 모든 인류의 미토콘드리아는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들 어머니도 그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 여성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주장이 70년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라 불리는 이 가설은 지난 40년 동안 유전 공학이 발달하면서 가설 단계를 지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이브의 짝으로 'Y 염색체 아담' 이라는 것이 있다. 남녀 성별을 결정하는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만 유전된다. 이것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현존 인류의 공통 조상인 'Y 염색체 아담' 으로 귀결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아담과 이브가 지금으로부터 10~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연구를 제쳐놓더라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만 남게 되는 날에 이르게 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공통의 조상을 가졌고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에도 불구,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상식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반인들 사이에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도 피부색과 인종으로 인간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여 년 동안 미국인들은 인간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는 '독립 선언서' 를 쓴 토마스 제퍼슨은 노예를 해방하지 못했지만 "신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고 고백했으며 '미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유언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전원 해방시켰다.

미국이 치른 다른 모든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낸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러험 링컨은 미국이 겪고 있는 참화에 대해 흑인 노예들의 피땀으로 일군 부(富)를 모두 쓸어버리려는 신의 뜻으로 해석했다.

연방 헌법을 고쳐 노예제를 폐지하고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뒤에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됐다. 이들이 법적으로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1965년 '투표권 법' 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 법 통과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1965년 3월 7일 앨러바마 셀마에서 벌어진 평화 행진이다.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며 셀마에서 주도 몽고메리로 가려던 시위대들은 에드먼드 피터스 다리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흩어졌으며 시위대 중 한 명이 곤봉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1주일 후 린든 존슨 대통령은 '투표권 법안' 을 의회로 보내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셀마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운동의 일부이다. 이는 흑인들이 미국인으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려는 노력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편견과 불의의 유산을 극복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라는 연설을 했다. '투표권 법' 은 그해 의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3월 셀마에서 열린 '피의 일요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오바마를 비롯한 수 천 명이 참석했다.

진정한 인종통합을 위해 미국이 가야할 길은 멀지만 흑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먼 길을 왔는가도 보여준다. 그런 사회가 좀 더 가까이 오도록 힘쓰는 것은 이곳에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건강의학 칼럼

고혈압 약 줄이면 큰일 나나?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70세 남성 환자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해오시던 분이 내원했다. 보통 때는 120/75mmHg 정도로 쭉 잘 조절되었던 분인데, 이번에 혈압을 재보니 90/60mmHg으로 조금 낮게 측정되었다.

평소 고혈압 약을 3종류로 처방해 드시던 중이었는데 혈압 약을 좀 줄여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약을 먹다가 줄이면 심장병이나 중풍이 온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먹어오던 약을 정말 줄여도 괜찮습니까?" 라고 반문했다(참고로 고혈압의 기준은 140/90이지만,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120/80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혈압 약은 줄일 수 있다. 위의 환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 조절을 위해 3가지 종류의 약을 처방 받아 조절해 왔는데, 정상 혈압에서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복용하던 약을 줄이는 것이 옳다.

특히 체중이 줄면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진다. 이 때 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자신에게 아주 좋은 일인데도, 줄이라고 하면 겁내시는 분들을 종종 본다.

환자가 질문한 '약을 줄이면 심장병이나 중풍이 온다 하더라…' 는 그야말로 "~카더라" 통신이다. 높은 혈압을 가진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 없이 갑자기 약을 자의로 끊는다거나, 줄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와전된 경우다.

만약 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 중에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약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 몸 상태가 한결 같을 수 없듯이 혈압도 파도와 같이 유동적이므로 고혈압 환자는 적어도 2-3개월에 한 번씩은 주치의를 찾아와서 혈압 측정을 하고 약을 적절히 처방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고혈압 약은 줄일 수도 있고 드물지만 아예 끊을 수도 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고혈압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절대로 평생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잘 못된 건강 상식이다. 물론 80% 정도의 환자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압 약을 계속 줄이다가 혈압 약이 없이도 혈압이 조절 잘 되고 주치의가 약을 끊고 지켜 볼 만 하다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끊을 수도 있다. 이 때 약을 끊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 해 보았을 때, 조절이 잘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지켜 보았는데 다시 올라간다면 그 때 가서 약을 다시 복용하면 된다. 그렇다고 고혈압 병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계속 세심하게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심전도 등 각종 검사는 계속해야 한다.

당뇨를 가진 환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당뇨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여 당뇨 조절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 특별한 이유 없이 당이 낮게 측정되었다면 약 용량을 줄여야 한다. 만약 줄이지 않고 복용 해오던 양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혈당으로 운전중이나, 길을 걷다 쓰러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혈압이 아주 높다거나 낮거나 하는 데는 특별히 느껴지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 몸 상태는 파도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므로 이에 맞게 유연히 대처해야 되는 것이다.

유연한 대처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성인병의 근원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고혈압과 당뇨에 따라오는 합병증들이 많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약도 줄이고 2차적인 질환들을 예방하자. ***

동심 흔드는 어른들의 욕심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주간지본부장

요즈음은 드물지만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러 유급하는 운동선수들이 꽤 있었다. 한창 성장기의 1년은 신체적 성숙도나 기량의 차이가 확연했고 당연히 경기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중요한 지도자들로서는 핵심 선수의 1년 유급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엔 축구부가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우리 학교는 5개 전국대회에 출전해 모두 우승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 당시 3학년 선배 가운데 4명이 훗날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만큼 독보적인 팀이었다.

그 중 한 명인 B선배에 얽힌 일화 하나. B는 중학교 3학년 때 고교팀 경기에 차출돼 팀 승리에 일조했다. 문제는 경기 후 상대방이 'B가 부정선수' 라고 항의한 것이다. 워낙 출중한 실력을 지닌 B가 나이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빌미가 됐다. 결국 B가 뛴 팀은 몰수패를 당했지만 그의 이름은 더 널리 알려졌다.

작년 8월 열린 리틀리그 야구 월드 시리즈 결승에서 한국팀과 맞붙었던 시카고 '재키 로빈슨 웨스트' 팀의 미국 챔피언 자격이 박탈됐다. 시카고 남부지역이 아닌 교외 지역에 사는 선수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말 인근 에버그린파크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재키 로빈슨 웨스트가 선수 거주지 규정을 위반했다' 고 결론짓고 미국 및 지역 챔피언 타이틀을 떼고 감독·리그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많은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룰은 룰' 이라며 조직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어른의 욕심이 순수한 동심에 상처를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어린 선수들에게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자부심을 잃지 말고 당당하기 바란다" 고 격려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욕심은 쉬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에버그린파크팀 역시 시카고 거주 선수를 영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선수의 어머니가 예전에 아들이 해당 리그팀으로부터 "주소지를 바꾸면 된다" 며 영입 제의를 받았던 사실을 고백, 이 같은 관행이 만연됐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5~6년 전 개인적인 경험이 떠올랐다. 두 아들 모두 시 공원국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리그에서 약 10년씩을 뛰었다. 5~7학년 때는 마을 대표팀에도 선발됐다. 그 즈음 정규 시즌이 끝난 후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한 막내 팀이 첫 경기를 앞두고 선수 한 명이 부족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일부 선수들이 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빠진 탓이었다. 감독은 수소문 끝에 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했던 선수 한 명을 데려왔고 경기는 짜릿한 재역전승으로 끝났다.

이튿날 2차전을 위해 아침 일찍 공원 경기장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전날 우리에게 패한 팀 감독과 마주쳤는데 "너희 팀 몰수패야. 소식 못 들었냐" 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추가로 데려온 선수의 자격이 불거진 것이다. 팀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설픈 플레이로 그저 머릿수만 채운 선수 때문에 소중한 승리가 물거품이 됐다. 이후 우리 팀 감독은 마을 대표팀은 물론 타운 리그서도 더 이상 감독을 맡을 수 없었다.

타인의 일이나 나와는 동떨어진 현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규정은 규정'이라는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쉽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되면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당시 몰수패는 지금 생각해도 참 억울하다. 아이들 마음에 남겨진 아쉬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재키 로빈슨 웨스트' 팀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어부지리를 취하려는 어른들의 숨겨진 욕망도 언뜻 본다. 평소 흑인이나 소수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 시장 후보가 "재키 로빈슨 웨스트는 우리의 자랑이고 여전히 챔피언" 이라고 돋우는 목청은 선거 때가 되면 들려오는 표를 얻기 위한 공허한 메아리로 울린다.***

영화 이야기

팜므 파탈 'Body Heat'

박준창(인문대 79) CA
변호사

이 영화는 철저히 성인물로 너무 재미있다. 노출심한 베드 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줄거리 = 한 femme fatal의 출세를 위한 몸과 머리를 이용한 철두철미한 간계, 거기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주인공의 운명. 약자와 강자, 강자와 약자가 구분이 안 되는 사악한 탐욕적인 남녀 주인공. 무더운 플로리다 해변을 배경으로, 끈적끈적한 성에 놀아나는 남자. 제목이 영화 내용에 아주 적합하다.

첫 장면부터 습기 찬데 불까지 났으니 끈적끈적하기 이를 데 없다. 무더운 여름 화재의 흰 연기가 오프닝 신이다.

주인공 Ned Racine은 작은 플로리다 해변 도시에서 조그만 형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실력 없는 변호사며 지독한 바람둥이다.

그 해 여름은 무지 덥다. 그리고 기온은 내려갈 줄을 모른다. Ned가 여자와 정사를 치른 다음 담배를 물고서 화재 현장을 바라다보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뒤에 나올 방화의 복선.

더운 여름 어느 날, 밤 바닷가에서 열리는 야외 음악회를 중간에 빠져나오는 섹시한 여자를 만난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얇은 흰 블라우스에 흰 split skirt. 바람에 날리는 치마 사이로 긴 다리를 보여주면서 걷는다.

▶끈끈한 유혹 =한 번 유혹해보고 싶은 욕망을 그냥 일으키는 여자. 바람둥이 Ned가 이를 놓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한다. 길지 않은 대화에서 여자 이름이 Matty이고 근처 부촌에 살고 있는 유부녀임을 알게 된다. 남편은 거의 주말에만 집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Matty는 사라지고 없다.

아쉬운 Ned는 그녀의 동네 술집에서 기어코 Matty를 찾아낸다. 이때 처음 둘은 서로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대며 약수를 하는데 여자의 손이 무척 뜨겁다.

"차의 엔진이라도 들어 있는 건지" 하는 그녀의 말에 "튠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응수하는 Ned. 그 말에 "올바른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받는 Matty.

둘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 그녀는 집에 wind chime이 있다며 그 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오는데 올해는 바람 없이 그냥 무덥기만 하단다.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서는 Matty에게 Ned는 풍경을 보여 달란다. Matty는 그렇다면 그냥 풍경만 보고 가겠다면 오라고. Matty는 동네 술집이라 남 눈이 있으니 Ned가 먼저 나가서 자기를 기다리란다.

그런데 Matty가 Ned와 너무 친하게 보이는 것 같다 하니 바로 Ned의 얼굴에 철썩 Matty의 손이 올라온다. 한 방 얻어맞고 Matty의 차를 따라 가는 Ned. 그런데 풍경을 보여 주더니 그냥 가란다. 키스까지 하고는 자기는 유혹에 약하니 그냥 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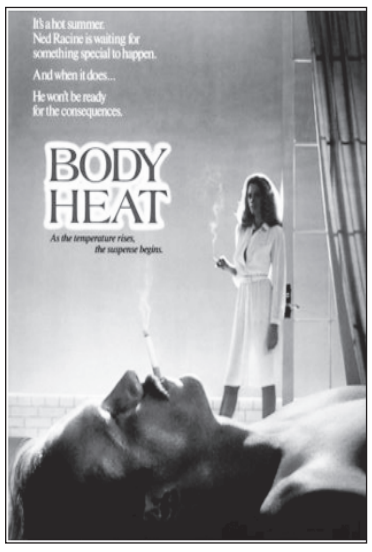
차에까지 왔지만 도저히 그냥 가기가 아쉬운 Ned. 올라가보았더니 아직도 Matty는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 그런데 문들은 다 잠겨져 있고.

이쯤 되면 남자는 미치게 마련. 참다못한 Ned는 창문을 두드려 부수고 들어가 둘은 격정적으로 한 몸이 된다. 욕망을 참느라고 숨을 몰아쉬는 Matty. 어느 남자가 안 넘어가겠는가?

▶살인계획 =이렇게 해서 불륜 사이가 되는데 어느 날 Matty는 남편이 싫지만 이혼할 수는 없다고 한다. 혼인 전 계약(prenuptial agreement)때문에 자신은 이혼하면 그 많은 남편의 재산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죽는 것인데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금세 죽을 이유가 없다. Matty는 남편이 죽는 것이 가장 자신이 바라는 일이지만 그런 것은 말조차 꺼내는 게 두렵다고. 말이 씨가 된다며….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 줄 몰랐다. "Talk is dangerous. Sometimes it makes things happen." 나중에 다 알게 되지만, 물론 Matty는 Ned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악의 씨가 영글어가고 있는데 남편의 어린 조카가 둘의 진한 밀회 장면(표현하기 민망한 장면이니 영화를 직접 볼 것)을 목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Ned, Matty, 그리고 남편 셋이 예기치 않게 저녁식사까지 하게 된다.



↑영화 포스터. 여 주인공 역의 Kathleen Turner는 이 영화 한편으로 할리웃 스타가 된다.

식사 도중 남편은 자신도 Columbia 법대를 나온 변호사며 사업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변호사 일은 안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느 법대를 나왔냐. 이 작은 도시에서도 삶이 있냐"고 물어 지방 Florida State 법대를 나오고 돈도 없는 Ned의 자존심을 확 구겨 놓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알쏭달쏭한 말을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공에 빗대 "사람은 필요한 일이면 뭐든 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Do whatever is necessary."

이 말에 고무된 Ned는 마침내 어려운 결심을 한다. 그리고 과거에 변호해 준 폭약 전문가를 찾아간다. Mickey Rourke가 앳된 얼굴로 폭약 전문가 역을 연기하는데 이렇게 젊고 멋있었나 싶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 게다가 말도 cool하게 잘한다.

"범죄를 할 때는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50가지는 되는데 천재라면 25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그런데 당신은 천재가 아니다"라고. "그 말은 당신이 내게 해준 말이다"라고.

살인을 계획하는 Ned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에서 관객들은 "푸핫"하고 웃게 된다. "Arson is a serious crime."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Ned는 Matty 집에 침입, 남편 Ed를 죽이고 Ed 소유의 바닷가 빌딩에 시체를 유기하고 화재가 난 것처럼 폭약을 터뜨린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이애미의 한 변호사에게 전화가 온다. 처음 유언장을 작성해 준 남편의 변호사로 Matty가 새 유언장을 제시했는데 유언장은 Ned가 작성한 거라고. 그런데 유언장에 문제가 있으니 모두 만나 얘기하자고 한다.

무슨 유언장? Ned는 유언장을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 찜찜하지만 안 만날 수도 없어 만남에 응하는 Ned.

▶얽어드는 사슬 =미팅에는 놀랍게도, 탭 댄스를 즐겨 Fred Astair라는 별명이 붙은 Ned의 검사 친구가 와 있다. "남편의 죽음에는 의문이 있다"며 이 친구 검사가 남편의 죽음을 수사 중이라 불렀단다.

더 놀라운 것은 고친 유언장이 무효라는 것. 더구나 새 유언장은 Ned가 작성하고 또한 증인으로 서명을 했는데 또 다른 증인은 Matty의 친구 Mary Ann Simpson.

Mary Ann은 Ned가 이전에 Matty의 집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여자. Mary Ann의 뒷모습이 너무나 Matty와 흡사해서 "Lady, you want to f___?" 하고 한 마디 던졌는데 Oops! 등을 돌린 여자는 딴 여자. 그러면서 답은 cool하다.

"Gee, I don't know." 그리고 그제서야 Matty가 나타나 둘을 인사시켰었다. 그런데 Mary Ann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고친 유언장은 왜 무효인가? 고친 유언장에 의하면 Matty와 남편의 조카가 같이 반반씩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조카에게 물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Ned가 실수를 했다는 것.

이 잘못된 문구 때문에 'Rule Against Perpetuities'라는 법리에 반하고, 이 때문에 유언장 전체가 무효인 것.

유언장 전체가 무효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언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플로리다 법에 의하여 남편의 유산 전체가 배우자인 Matty에게 돌아간다는 것.

▶겨누어진 화살 = 남편의 변호사 설명은 이어진다. 남편의 변호사는 행여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판사를 골라 볼까 하여 마이애미가 아닌 이 곳 법원에서 유언 검인을 신청했다고. 그런데 된통 걸리고 말았다고. 내용인즉, Ned가 이전에도 어떤 사람의 유언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엉망으로 만들어서 malpractice 소송을 당한 것. 4년전 그 사건의 주심 판사가 바로 이 판사였다고.

Matty는 고백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유언이 담겨진 Ned의 편지지 양식은 Matty가 훔쳐 온 것.

그런데 사망 사건 수사의 화살은 서서히 Ned에게로 겨누어 진다. 검사 친구와 함께 일하는 수사관 Oscar는 정의감이 충만한 형사. 그는 Ned를 좋아하지만 정의는 정의이고 진실은 진실.

수사관 Oscar는 Ned에게 Matty에 대해서 경고한다. "She is poison. A big time, major league trouble."이라며. 그리고 모든 정황들이 Ned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들이다. 남편은 늘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안경이 시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Ned의 알리바이가 부정되는 점. 둘은 이전의 만남을 부인해 오고 있었는데 둘의 민망한 밀회를 남편의 조카가 목격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마침내는, 유언장 malpractice 사건 얘기를 그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가 Matty에게 해주었고, 그가 미안한 마음에서 Matty 의 변호사로 Ned를 추천해 주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속은 것을 깨닫다 = 수사망이 Ned를 옥죄어 오는데 Matty에게 전화가 온다. 남편 사후 처리가 끝나서 돈은 이제 다 자기 것, 아니 우리 것이 됐다고 하면서 문제의 안경을 가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었고 안경을 자기 집 보트 하우스에 갖다 놓기로 했으니 거기 가서 안경을 찾아오고 자기도 갈 테니 저녁 7시30분에 만나자고.

보트 하우스에 간 Ned. 하지만 그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집안을 살피게 되는데, 문에 폭약이 장치된 것이 아닌가? Ned는 Matty에게 완전히 속은 것. 그리고 총을 준비한다. 한편 수사관 Oscar도 Ned를 체포해야 하겠다며 총을 준비하고 그를 잡으러 간다.

Ned는 Matty의 집에서 Matty를 기다린다. 그리고 총을 보여주며 Matty보고 가서 안경을 집어 오라고 한다.

Matty는 보우트 하우스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순간 마음이 변한 Ned가 Matty를 만류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보우트 하우스는 폭발한다. 이 모든 장면은 수사관 Oscar가 다 지켜봤고.

장면은 바뀌어 Ned가 수감된 감옥. 여기서 Ned는 하나씩 하나씩 Matty의 간계를 깨닫고 Matty야말로 'the kind of person who could do what was necessary, whatever was necessary'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Matty의 과거와 그녀의 진정한 정체는…? 결말은 짐작되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말하지 않고 넘어 가기로 한다.

영화는 정말 재미있다. 베드 신도 화끈하거니와 대화, 플롯도 훌륭하다. 주인공 역의 William Hurt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배우지만 이 영화에서 연기는 아주 좋다(1980년에 본격적으로 나왔으니 거의 데뷔작이다).

여주인공 Kathleen Turner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일약 stardom에 오르고 Romancing Stone으로 계속 히트친다.

탭 댄스를 추는 검사 역에는 나중 comedy TV drama Cheers로 성공하는 Ted Danson이 나온다. 1981년 개봉. 당시 충격적인 베드 신으로 대히트했다.***

<짤막 법률 토크>

Rule Against Perpetuities

영화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법은 유산이 대를 이어 영구히 이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리는 간단히 한 문장이다.

"No interest is good unless it must vest, if at all, not later than 21 years after some life in being at the creation of the interest."

죽은 자가 자신이 남긴 재산에 대해 영원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간단한 한 문장의 법리가 이해도 어렵고 적용도 더욱 어려워 변호사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워낙 어려운 개념이라 변호사가 이 법리를 모른다 해도 malpractice에 걸리지 않는다는 1961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도 있을 정도.(Lucasy.Hamm,56 Cal.2d583,15Cal.Rptr.821)

필자도 법대 다닐 때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험문제에 안 나오겠지, 바라며 그냥 간단히 넘겼다.

이 법이 너무 어렵다고 해, 영화가 나온 후인 1990년 경 내용을 개선한 The Uniform Statutory Rule Against Perpetuities가 제안됐고 영화의 무대인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 25개 주가 이 법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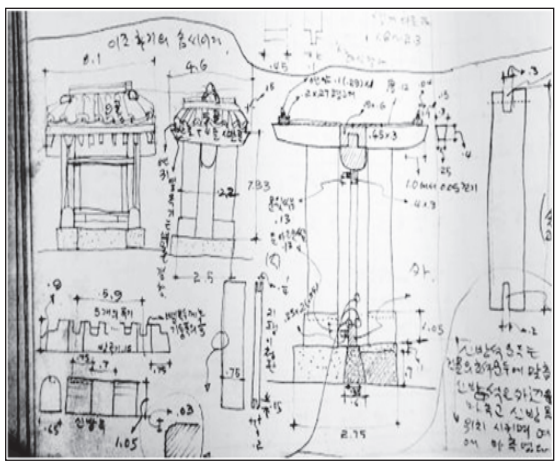
(필자는 1985~198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대를 다녔고 졸업 후 이 법이 나왔는데 개업 중 이런 이슈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박준창>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21>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지난 1962년 필자가 숭례문 해체실측을 자세히 기록한 자료를 2008년 한국 문화재청에서 설명한 뒤 조선일보에 공개하는 모습. 오른쪽은 숭례문 해체보수 공사 당시 실측해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기록이다.

앞면 5칸 옆면 2칸으로 기둥 상부를 들보로 연결하고 기둥과 지붕구조 사이에 수많은 첨차와 소로를 축적하여 만들어진 공포 구조물을 갖춘 다포양식이다. 다포의 기능은 지붕의 무게를 고르게 분배하여 처마의 곡선이 아름답게 조성되고 오래토록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도와 설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추녀와 처마의 곡선을 찾아서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목조건축은 건축부재들이 지붕 위에 기와를 비롯한 무거운 하중을 받아 차츰 휘어지게 된다. 목조 건축물에 처마곡선은 필연의 결과다.

▶숭례문 현판 = 아시아의 남방 건축물들은 처마곡선이 크고 북방 건축물들은 비교적 작다. 시대적으로 고대건축물은 처마곡선이 경직하고 후대에 올수록 곡선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숭례문의 추녀모양과 그 밑 귀포의 모양은 웅장하며 우아한 곡선으로 각 부재들이 그 기능에 맞는 예술적 표현으로 역사의 향기가 가득하다. 지붕에서 기와를 들어내면 크기를 기록하고 문양을 탁본해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전수해온 정교하고 안정된 예술과 기술이 숭례문의 모든 부재 하나 하나에 가득하여 감탄을 멈출 길이 없었다.

문루 하부 석축은 거대한 화강암을 사각방형으로 다듬어 맞춰 높게 쌓고 무지개 모양 홍예를 짓고 관문 통로를 이루었으며 철갑문을 달았다.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종을 쳐서 알렸다. 색깔 찬란한 단청은 붉은색과 초록색 두 가지의 혼합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문루 중앙에 걸린 숭례문(崇禮門)이라는 현판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의하면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해 세로로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썼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곽건축 건설기록은 화성(수원) 성역의괘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기록됐다.

1961년 7월 시작된 서울시 산하의 공사 관리는 중단되고 1962년 3월부터 문교부 문화재 위원과 국립박물관의 협조로 진행됐다. 필자는 쉬지 않고 조원재 도편수와 새로 부임한 김정기 감독을 보조하며 해체되는 모든 부재를 하나하나 실측하고 기록했다.

▶숭례문 모든 기록물 보관 = 수천 개에 달하는 숭례문 건축부재들을 하나 하나 기록하여 원형을 찾고 그 모든 기록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조원재 도편수 댁에 투숙하여 도편수와 함께 출퇴근하며 사라져가는 전통건축기술을 이해하고 용어를 기록하여 후에 건축학계에 전해줄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동기동창 여상현과 장석진의 도움을 받으며 실측도와 복원도를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궁금증을 위해 당시 일간신문에 보도하기도 했으며 당시 손으로 쓴 원고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공사 도중에 발굴된 기록과 유물들은 앞으로고 계속해서 연구할 의문들을 남겼다.

예를 들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서둘러 진행된 보수공사가 이조 후기 어느 때였을지, 이 태조 때 건축양식이 세종 성종 때 변조되지 않았는지, 지금의 우진각 지붕이 원래는 팔작지붕이었는지, 많은 의문이 숨겨있는 국보 1호 건축물 안의 실마리를 찾아 규명하는 과정이 우리의 근원을 찾는 학구적 임무이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63년 5월 14일 준공식에 최봉주 현장사무소장, 김정기 감독관, 조원재 도편수, 필자인 최용완 제도사, 네 사람은 윤태일 서울특별시장에게서 중수공사 공로표창장과 금일봉을 받았다. 그때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참석하셨다. 그 후에 윤천주 문교부 장관은 나를 문교부 건축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당시 철도청 산하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한국문화사와 건축사 강사로 일하며 25세 젊은 나이에 바쁘게 연구하며 종사하였다.

교육 공무원인 아버님도 교육원에 오셔서 교육과정을 거치는 중에 내 강의를 듣고 가셨다. 김정수 교수는 연세대 이공대 학장으로 부임하고 나는 건축과 졸업반에게 특강을 했다. 당시 대학원 과정이 설치돼 이경회 학생과 주남철 학생이 한국건축 관계논문을 준비 중이었다. 윤장섭 교수와 현지답사하며 함께 연구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이 다행히 디지털 측량 기업인 위프코가 2002년 문화재청 의뢰를 받아 3D 레이저 스캔으로 촬영해 놓은 자료가 있었고 수기(手記) 형태 숭례문 도면도 있었지만, 이 3D 레이저 스캔 자료가 복원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태조 5년(1396년) 창건 = 옛사람들은 건물 부재들의 용도에 적합한 여러 가지 나무들을 산에서 찾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베어 바닷물에 수년 동안 침수한 다음 다시 그늘에서 수년 동안 말려 나무의 결을 따라 부재용도에 맞는 모양으로 제작했다.

박원규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는 "건축물 나무 부재(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의 벌채 연도를 알면 건축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숭례문 목부재 68점의 나이테 연대를 측정한 결과 1860년대에 대대적인 지붕 공사가 있었던 흔적을 찾았고, 조선 태조 때 사용됐던 건축양식을 가진 목부재도 알아냈다" 고 말했다.

숭례문은 조선 태조 5년(1396년)에 창건돼 세종 29년(1447년) 터를 새로 닦으면서 재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종 10년(1479년)에 대규모 공사가 이뤄졌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6.25 한국전쟁 때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한 게 전부다.

하지만 이번 나이테 연대 측정 결과 숭례문의 상층과 하층의 지붕을 받치는 목부재인 '추녀' 7개가 1860년대에 벌채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종 5년(1868년) 정도에 '숭례문 문루와 성문 수리 공사가 급하다' 는 내용의 개인적인 기록 등이 나온다" 며 "그 시기에 지붕까지 들어내는 대규모 공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고 했다.

▶화재 후 필자 자료 대서특필 = 1966년 모교와 자매결연한 미네소타 주립대에 대학원 과정을 위해 서둘러 도미할 때 숭례문 자료들은 부모님 댁에 남겨 두었다. 수년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림을 치우실 때 숭례문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셨고 내가 미국에 온 지 20년 후 이민 오실 때 숭례문 모든 자료를 고스란히 가져오셨다.

그 후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다시 20년 동안 숭례문의 모든 자료를 보관할 수 있었음은 어머님의 정성으로 감사해 한다. 숭례문은 불에 탔어도 사라진 부재들의 기록이 살아 있기에 불에 타지 않은 아랫층을 회복하고 여기에 보관된 기록에 따라 윗층이 회복되면 숭례문은 다시 국보 1호로 화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옴을 나는 믿었다. 600년의 역사가 다시 후세에게 전해지게 됨은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느껴졌다.

화재발생 후 2008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 사이 LA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와 한인 방송국들은 내가 소장해온 숭례문 실측도와 자료들을 대서특필했다. 1963년도에 작성돼 서울시에 전해준 실측도와 복원도는 문교부 문화재 관리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모두 분실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내가 가진 실측자료가 숭례문 복구에 유일한 설계 자료임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재청에서 조상순 학예사는 곧 나에게 숭례문 실측도와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나는 서둘러 한국에 나가 숭례문 현장에 찾아가 문화재청 최종덕 건축과장을 비롯한 숭례문 현장사무소 이정연 사무관과 문화재청 직원들과 보수공사 도편수 신응수씨를 만났다. 신응수 도편수는 1962년 이광규 부편수를 도우며 당시 복원 공사장에서 함께 일한 젊은 목수였기에 다시 만남을 무척 반가워했다.

다음 날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사무소에서 소집되었고 나는 문화재 위원들에게 자료들을 설명해주었다. 1962년 숭례문 현장 감독으로 일했던 김정기 씨도 만났다. 문화재청 이건무 청장은 나를 숭례문 복구단의 고증분과 위원과 기술분과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료의 일부는 사진촬영으로 복사하여 남겨주고 미국에 귀국하였다.

문화재청은 60년대 숭례문 수리공사 당시 실측 조사작업에 참여했던 필자의 숭례문 해체실측 기록 소장자료들을 확보해 조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체실측 기록 자료에는 지난 1961년부터 1963년 사이에 진행된 숭례문 해체보수 공사 과정이 낱낱이 기록돼 있으며, 특히 부재 규격, 수리된 부재의 위치와 수량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 숭례문 원형 복원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했다.

현재 숭례문 복구자문단 고증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필자가 해체실측기록 이외에 숭례문 기와, 부재 등의 탁본 자료와 사진 등을 가지고 방한해 숭례문 해체보수 당시 도면 기록 작성을 담당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필자는 소장한 해체실측 기록 등을 숭례문 복구단에 공개하였고, 숭례문 복구단은 기록 등을 자세히 분석해 숭례문 복원 설계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KBS-TV에 출연해 생방송 = 서울에 체류 중 문화재청의 알선으로 2008년 10월 14일 오후 9시 뉴스에 KBS TV 방송의 대담 요청을 받았다. 정은승 아나운서와 숭례문에 관한 대화로 생방송을 하였다. 나는 한국의 문화재 건축과 현대건축이 연결되어 대학 건축과에서 교육과정에 전통건축 연구가 이루어지고 현대 건축의 설계에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이건무 문화재청장, 최종덕 건축과장, 신응수 대목장, 관여 기관장들이 참석해 복구공사 착공식이 열렸고 화재 잔여부분 해체에 착수하였다. 숭례문 발굴 및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드디어 해체실측이 진행됐다.

문화재청 숭례문 복구단체는 복구공사팀, 실측고증팀, 행정지원팀, 3팀으로 구성되고 복구자문단은 고증분과, 기술분과, 방재분과, 3자문위원팀으로 구성됐다. 나는 고증분과와 기술분과 위원으로 일했다. 매년 숭례문 복구 현장에 찾아가 공사과정을 지켜보며 신응수 도편수를 도우며 고증과 기술면에서 협조했다. 하지만 상세도면 없이 공사가 진행됨은 우리나라 문화제 보수공사에 현대건축기술과 완전히 결별되었음을 보았다. 한국의 국보 제1호 문화재 숭례문의 복구가 외국에 있는 동포 건축가의 소유물인 실측도에 의존해 복구되는 상황은 참으로 고국의 슬픈 현실임을 모두가 함께 느꼈다.

신응수 도편수는 2010년 3월 5일 KBS 아침마당에 건축 팀을 소개하였고 도편수 본인이 초보자 목수로 1962년에 이광규 부편수의 조수로 숭례문 공사에 참여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당시 조원재 도편수와 일하는 최용완 제도사(필자)를 도와주기도 했고 목수에게 도면을 읽는 일이 필연으로 느꼈을 때 최용완 제도사가 남대문 시장에 데려가 9가지 제도기 세트와 제도기구를 사주며 제도실의 제도판에서 실습하도록 해준 최 선배의 친절에 지금도 고마운 마음 잊지 못한다" 며 다시 숭례문에서 함께 일하게 됐던 인연을 기뻐하였다. 나는 아침마당 방송을 통해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인식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이 우리 앞에 직면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국 문화재청은 유홍준 청장이 화재 책임으로 사퇴하고 이건무 청장이 약 3년 동안 근무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최광식 청장을 임명했는데 6개월 후 문화부 장관으로 승진되며 김찬 청장이 뒤를 이었다.

숭례문 하체의 불에 타지 않은 하층부분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화재로 소실되어 사라진 상체부분 공사에 진입할 무렵에야 김찬 문화재 청장은 나에게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문화재청에 인수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1963년 서울시에 전해준 실측도와 복원도는 문화재 관리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모두 분실됐고 내 자료가 숭례문 복구에 유일한 설계 자료로 알게 됐다"

1900년도 워싱턴의 교통수단은 오로지 마차와 자전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윗 사진은 역동하는 미국의 모습을 집약한 것이고 아랬사진은 역대 대통령의 First Ladies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다.

문학기행<2>

스미소니언 역사 박물관

이영묵(공대 59) 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존경하는 장수영(왼쪽) 선배와 함께 역사 박물관을 관람했다.

"미 국가의 가사는 미·영전쟁 때 Francis Scott Key가 감금당한 채로 영국군이 포탄을 퍼붓는 것을 보다가 아침에 요새가 함락되지 않고 펄럭이는 성조기에 감격해 지은 시다"

내가 평소 존경하는 분 중 장수영(공대 57) 선배가 있다. 포항공대 총장을 지내시다가 은퇴해 지금 이곳에서 살고 계시다.

▶존경하는 선배 = 항상 끊임없는 학구열과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다. 또한 참으로 학식이 많은 분이다. 내가 스미소니언 역사 박물관에 갈 예정이라고 했더니 "한 번이라도 전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George Fouk(1858~1943)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14살에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시아 함대 장관의 전속 무관으로 일본어를 단숨에 배우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후에 귀국시 한국을 경유 유럽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한국에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한 것이 스미소니언 역사 박물관에 소장 돼 있죠"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이번 역사 박물관에 같이 가자고 했고, 또 흔쾌히 받아 들여 동행하게 되었다.

역사 박물관 구경은 거의 10년 전이라 마치 처음 오는 듯 했고, 정 선배 역시 그렇다고 한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물관 지도를 받아 펼쳐보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미국 역사는 1950년대에 신천지를 꿈꾸며 버지니아주에 세운 제임스 타운, 종교적 박해를 피해 떠난 메이플라워가 개척한 마사추세츠 주로부터 시작함이 바람직한데 대부분의 경우 독립전쟁으로 시작이 좀 못마땅했다는 말이다.

▶인기 대통령 순위 = 우리는 2층에 독립전쟁시 영국군의 진출을 지연시켜서 오늘의 독립이 가능했다는 대포가 실린 필라델피아호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옆 대통령 방에 들어서면 '훌륭한 대통령은?' 하면서 전자 인기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1등이 워싱턴, 2등이 링컨, 그리고 3등이 오바마 대통령이다. 행여 이곳에 흑인 관광객이 많아서 그가 3등을 한 것은 아니겠지?

대통령 방에는 몇 가지를 구분해서 전시하고 있다. '국가의 리더' '군 최고 사령관' '경제의 수장' '행정의 수반' '파티의 리더' '외교의 수장' 등이다. 이러한 역할 중 중요도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전자 투표도 있다. 그 투표 순위가 내가 윗줄에 열거한 순서대로다. 나는 클린턴의 골프 세트와 미국 대통령 선전 포스터 등을 대강 훑어본 뒤 대통령 부인(퍼스트 레디) 방으로 향했다.

▶First Lady = 방을 돌아다 보면서 동행한 장 선배는 확실히 속된 말로 백과사전이었다. 건국의 아버지 중의 하나요, 권리의 장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4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부인 Dolley Madison의 드레스 앞에 섰다.

"파티의 여왕이었죠. 아니 파티라기보다 사교계의 꽃이었죠. 하지만 2차 미·영전쟁 때 백악관에서 도망가기도 했고, 후에 불에 탄 대통령 관저를 흰 색으로 칠하여 백악관(White House)가 되기도 했고 말입니다."

나도 뒤를 이었다. "내가 비엔나에서 살았죠(버지니아 북부) 길 이름에 돌리 메디슨이 있고, 그 길에 있는 제임스 메디슨 고교를 내 아들이 졸업했죠. 그는 젊은 과부의 몸으로 당시 미국의 수도인 필라델피아에서 17년 연상의 제임스 메디슨과 결혼해서 먼저번 남편과는 자식이 있었으나 메디슨 대통령과는 자식이 없었죠, 메디슨이 국무차관 시절부터 First Lady 역할을 한 대단한 여인이었죠."

우리는 다시 프란시스 클리브랜드 22대 대통령 부인 사진 앞에 섰다. 22대 대통령 부인으로 나이가 제일 어린 21살에 백악관에서 결혼했다. 장선배가 말을 이어간다.

"백악관에서 결혼한 그리고 클리브랜드 대통령보다 27살이나 어린 나이였고, 가장 아름다운 퍼스트 레이디였죠.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뉴욕으로 떠나면서 '집기를 그대로 두세요. 우리는 4년 후 다시 올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4년 후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다시 백악관 안주인이 됐죠."

▶제퍼슨 스캔들의 진실 = 퍼스트 레이디들의 사진이 주욱 걸려 있는 사진 속에서 링컨 대통령 부인이 보인다. 혹자는 악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속에서 좋게 보면 근엄해 보이고, 나쁘게 보면 심술이 있게 보인다. 그러다가 마사 제퍼슨 이란 아르다운 여인상이 보인다. 누군가 자세히 보니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조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선배가 보충 설명했다.

"세인들은 제퍼슨이 흑인 노예를 데리고 살았고,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하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복잡해요. 제퍼슨 대통령의 장인이 흑인 여성과 관계를 맺어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딸을 제퍼슨에게 시집 보낼 때 그 흑인 여인을 같이 보냈습니다. 족보로 따지자면 이복 자매지요. 제퍼슨이 관계를 맺은 흑인 여인이 바로 그 여자였지요. 다시 말해 자기 부인의 이복 동생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퍼슨 조카 사진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원봉사 안내원이 우리에게 와서 친절히 설명을 했다.

"여기 사진들이 곧 퍼스트 레이디만은 아니랍니다. Royal family라고 해야 겠지요." 호기심이 많은 내가 질문을 했다.

"아까 링컨 대통령 부인 드레스를 보니 키가 꽤나 작아 보이네요" 하니까 대답을 했다.

"맞아요. 링컨 부인은 5피트, 돌리 메디슨 부인은 5.1피트로 작았지요. 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이 5.9피트로 제일 컸지요. 오바마 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요. 그녀는 6피트랍니다."

"아까 어느 대통령 부인의 하이 힐 슈즈가 보이던데 하이힐은 언제부터 신었나요?"

"19세기 초부터로 보아야죠."

2층의 방들을 돌아보고 1층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커다란 성조기 무늬 스크린의 방이 보인다.

국가(Star Spangled Banner)의 방이다. 이곳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다. 사실 내부는 초기 국기로 모직으로 만들어진 엉성한 국기 이외에는 별 것이 없다. 아마도 경건함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 것 같다. 그러면서 미 국가 가사가 영상으로 비추어 주고 있다. 2차 미·영전쟁 때 Francis Scott Key(1779~1843)가 발티모어 항구에서 감금당한 상태에서 영국군이 미국의 멕켄리 요새에 포탄을 퍼붓는 것을 지켜 보다가 아침에 요새가 함락되지 않고 펄럭이는 성조기를 보면서 감격에 떨며 지은 시다.

▶소수민족의 비애 = 다른 방을 찾아드니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인물들, 산업의 발달 등이 전시된 방이 있었다. 나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발음하는 '싱거 미싱' 이었다. 나의 어머니도 1.4 후퇴 때 값 비싼 골동품들은 다 팽개치고 이 '싱거 미싱' 만은 가지고 피난길에 올랐었다.

다시 옆방에 들르면서 나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 방이 미국 흑인들의 역사와 그림의 방이었다. 그리고 그림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노예로 아프카에서 끌려오는 장면부터 학대받는 장면 같은 그림이었다. 흑인들의 오랜 노예생활에서 끈질긴 투쟁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또 가해자인 백인들의 속죄의 의식으로 흑인들의 기념적인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현재의 인구 수의 비율이나 미국의 역사 속에서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제는 그들 히스패닉에게도 그 무엇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다.

지하 1층 방에는 음식 조리, 기구 등과 함께 이야기, 그리고 배, 육지의 마차, 자동차, 기차 등의 발달사와 여러 전시물이 보였다. 매우 흥미로웠다. 그 중에도 기차 레일을 만드는 중국의 소위 쿨리들이 일당 1달러씩 받고 12시간씩 일을 한다는 당시 신문기사였다. 미국 도시마다 소위 차이나 타운의 뿌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박물관을 나서면서 장 선배가 기차 레일이 전시된 곳에서 나에게 들려준 말이 맴돈다.

"영국에서 기차 레일을 깔 때 폭을 얼마로 하느냐고 하다가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바로 그 로마 길의 마차 바퀴 폭과 똑같이 했지요. 일본이 그대로 영국을 본받아서 똑같이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어 자갈까지 영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조선의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로를 깔면서 기술 완성을 본 것이지요."

이제 2000년 전에 로마 마차의 폭은 영국·일본이 아니라 전 유럽과 미국 전체도 똑같은 기차 레일의 폭이다. 이 통일의 움직임이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여행기>

폴튜갈 여행

이건일(의대 62) CA

폴투갈은 잘 아시다 시피 유럽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 우리 나라처럼 힘센 옆의 나라(스페인) 한테 오랫동안 시달린 역사를 갖고 있지요.

지금도 400여년 전에 스페인에서 독립한 날을 국경일로 삼고 있으니 알만 하지요. 우리와 비슷한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 때 브라질이라는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적이 있어 거기서 들어오는 금으로 온 나라 안의 성당을 금으로 도배를 하는 등 돈을 흥청망청 쓰다 보니 20세기 초에 들어와 국가가 재정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겠다고 하는 경제학 전공 대학교수인 Salazar에게 정치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가 36년간이나 독재를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오직 몇몇 가문에게만 나누어 주고 통치하기 쉽다고 국민을 문맹으로 만들려고 학교도 안세우는 것은 물론 수도, 도로, 병원조차 만들어 주지 않아 그가 죽었을 즈음에는 그 거대한 브라질을 업고 유럽에서 큰 소리치던 나라가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튜갈에서는 영어가 잘 안통합니다. 중년 층 이상에서는 자기 나라 글도 잘 못읽는 인구가 아직도 많은데 외국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1980년대 이후에 European Union에서 돈을 대주어 낙후된 Infrastructure를 건설하고 교육, 의료에 힘을 써서 요즘은 많이 나아졌나 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번 이들이 그 돈을 고향으로 송금하여 일생 소원인 집을 지었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폴튜갈 시골을 돌아 다니다 보면 옛날식 정취있는 기와집은 별로 없고 보기 싫게 지은 넓적한 콩크리트 집들 밖에 안보입니다.

꼭 어느 나라(?) 시골에 간 것과 같습니다. 옛날 것은 무조건 나쁘고 후진 것이라는 잘못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내가 갔던 Oporto (O=The, Porto=항구)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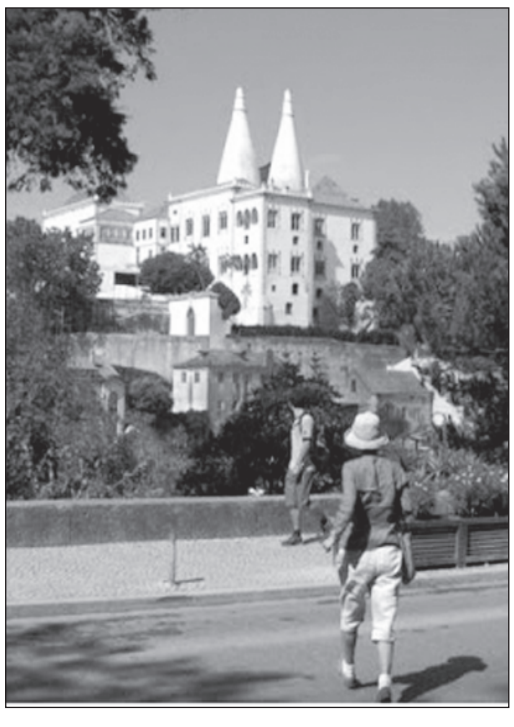
트라팔가 해전(Trafalgar, 1805년 10월22일)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 함대를 물리친 영국이 Gibraltar를 차지함과 동시에 폴튜갈에 대한 영향력을 스페인에게서 빼았게 되었고, 영국인들이 좋아해서 다량으로 수입하던 Port Wine 산지의 포도원들을 아예 대량으로 사들이게 되어 오늘날 Taylor, Graham 등의 상표가 붙은 포트 와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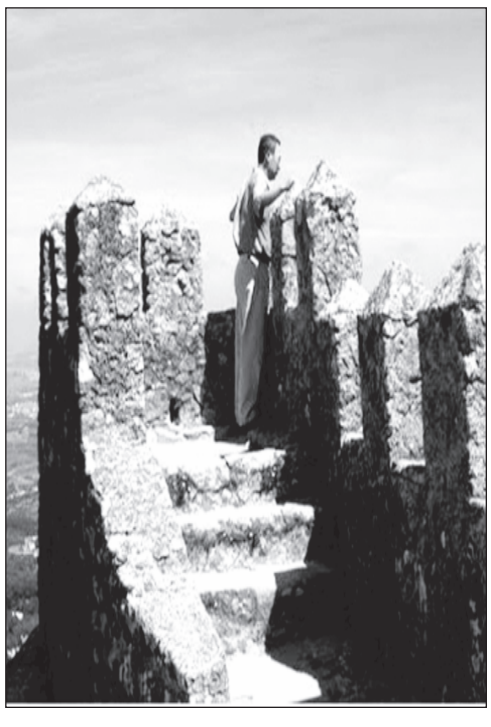
와인으로 보는 역사는 그대로 인류 역사입니다. 그 외 폴튜갈은 특히 타일 만드는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나는 2003년, 2004년 두번에 걸쳐 Lisboa, Oporto, Amarante, Cascaia, Sintra, Tomar 등을 돌아 다녔습니다. 차를 빌려 우리 집 마나님과 둘이 다녔지요.

Oporto에서 Douro강 상류 계곡을 따라 올라 가다 점심 먹으러 들렀던 어느 작은 시골마을 식당의 올리브 기름 넣어서 만든 볶은 밥은 우리 마나님이 두고 두고 이야기 할 정도로 맛 있었습니다. ***

↑페나 궁전(Palacio Nacional da Pena). 어느 얼빠진 국왕이 국고를 탕진해가며 돌산 꼭대기에 지었답니다. 전기, 수도관 끌어 들이느라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는 군요. 어느 나라나 이런 바보들이 있기 마련인 모양입니다. 그 후손들은 이걸로 돈 벌고 있긴 하지만.塞翁之馬得失?(변방 늙은이 말 잃고 얻기)





→왼쪽 첫번째 사진은 Convento de Cristo(그리스도 수도원) in Tomar. Portugal의 7 Unesco World Heritage Sites 중 하나. The Order of the Knights Templars 와 오랜 연관이 있음.

두번째 사진은 신트라 왕궁 박물관(Palacio Nacional de Sintra) 왕궁 부엌의 쌍둥이 굴뚝으로 별다른 통풍장치가 없었던 왕궁의 유일한 환기 장치.

세번째 사진은 무어인이 쌓은 성벽의 윗 모습 중 일부다 .

역사 칼럼

아직기(阿直伎)와 직지왕(直支王)

장수영(공대 57) MD
포항공대 전 총장

日本書紀 應神 15년 秋 8월 초에는 백제왕이 阿直伎를 파견하여 양마 두필을 바쳤는데 아직기가 기르도록 하였다.

아직기는 또 경전을 잘 읽었다. 태자 菟道稚郞子를 가르치게 하였다.

천황이 아직기에게 물었다. "너보다 뛰어난 박사가 또 있는가."

대답하기를 "王仁이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인을 불러왔다.

이 기사는 진실과 허위가 혼합되어 있다. 우선 일본사에서는 응신 15년이 서기 284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응신을 神功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응신 즉위년도를 270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이며 二周甲 인상하여 즉위년도는 390년이고 응신 15년은 404년이 된다.

그리고 태자는 응신 사후에 형에게 왕위를 양보하면서 3년을 기다리다가 자살하고 형이 즉위하여 仁德天皇이 되었다 한다. 어느 나라 역사에 왕위를 사양하면서 자살한 예가 있는가?

응신 16년(405년)에는 백제의 阿花王이 薨하였다. 천황은 직지왕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나라에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라" 고 하였다. 그리고 東韓의 땅을 하사하고 백제로 파견하였다. 천황이 백제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기사를 보면 아직기가 바로 백제 18대 직지왕 또는 腆支王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阿莘王 6년 (397년)에 태자 腆支를 왜국에 보냈다고 되어 있다.

아신왕 14년(405년)에 "전지는 왜국에서 부음을 듣고 울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왜왕은 군사 100명으로 호송해 주었다."

阿莘王의 '莘' 을 '華' 로 잘못 쓴 것을 다시 '花' 로 썼기 때문에 '아화왕' 이 된 것이다.

백제 태자가 왜국에 온 것을 말 기르는 사람이 온 것으로 써놓았다. 말 기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전을 알고 태자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갑자기 405년에 직지왕이 나타나서 백제로 귀국하여 전지왕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도 아직기가 직지왕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병도는 말년에 이것을 알고 "내가 왜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백제 태자가 왜국에 가 있다가 귀국해서 백제왕이 된 경우는 또 있다.

제24대 東城王은 文周王의 아우 昆支의 아들이다. 475년 고구려의 長壽王이 백제 한성에 쳐들어와 개로왕을 살해했고 문주왕은 웅진으로 피신해서 제22대 왕위에 올랐으며 아우인 곤지는 內臣佐平이 되었다. 477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雄略天皇 21년(476년) '천황은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 파멸되었다고 듣고 久麻那利(공주)를 문주왕에게 주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천황이 백제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웅략 5년(460년)에는 개로왕이 아우 곤지(軍君)에게 "너는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겨라" 라고 말하였다.

곤지가 筑紫의 各羅島에 도착했을 때 부인이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島君(斯麻)이라 하였다. 그 아이는 제25대 武寧王(斯麻王)이 된다.

한편 479년에는 백제 三斤王이 薨하였으므로 웅략천황이 곤지의 아들 末多王에게 친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백제왕으로 하고 군사 500인으로 호송하였는데 그가 東城王이다.

동성왕을 이은 분은 무령왕인데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로 되어 있으나 그 점은 일본서기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듯하다.

곤지왕은 477년에 죽은 것이 아니고 왜국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飛鳥戶神社의 제신이 되었다. 제27대 威德王과 제28대 惠王도 왜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백제왕이 되었다.

또한 642년에는 의자왕의 아들 翹岐가 왜국에 와서 百濟大井의 집에서 살았다. 그가 왜국에서 받는 대접을 보면 실질적 지배자처럼 보인다.

당시 최대 권력자였던 蘇我大臣이 교기와 친히 대화하였다고 한 것은 소아대신이 백제왕자에게 정무보고를 한 것이라고 崔在錫은 주장한다.

한편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왜국에 살던 의자왕의 아들 豊璋은 귀국하여 백제왕이 되어 백제 부흥을 위한 전투를 지휘하였다. 일본서기에서는 교기와 풍장이 별개의 인물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결국 왜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백제왕이 된 사람은 직지왕, 동성왕, 무령왕, 위덕왕, 혜왕과 풍장등 여섯분이나 된다.***

<여행기>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4>

이강홍(상대 60) NY
Manhattan Woods Golf Club
CEO

▶**제8신** = 새벽녘부터 줄기차게 비가 내린다. 순례자들 낯빛이 어둡다. '이베리아' 반도 머리 위의 영국과 아일랜드가 궂은 날씨면, 다음 날 여기 고원에는 비나 눈이 온단다. 판초로 몸과 짐을 감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넣고, 무거운 발걸음을 숙명인체 걸어 나간다. 아침 출발시는 경쟁하듯 명랑한 인사를 나누다가도 두 세 시간만 지나면 지쳐서 엷은 미소로 인사를 대한다.

날씨가 차츰 진눈깨비로 변하면서 앞선 사람들의 모습이 안보이네. 신경을 곤두세우고 금색조개와 화살표를 살피는데 상당한 거리를 가도 눈에 띄지 않는다. 차츰 겁이 나고 미심쩍은 마음으로 계속 걸으면서 온 길을 반추해봤지. 그냥 곧장 걸어왔다는 생각뿐 잘못을 찾을 수 없었는데….

저 앞 눈발 속에서 여나믄 명의 판초부대가 거꾸로 오며 내게 손짓으로 U-Turn하란다. 그렇구나, 어디선가 빗나갔구나! 이 와중에 어느 남녀는 언쟁을 한다. 자기 여자 파트너가 고집을 부렸다고. 오는 도중 오른쪽 언덕길로 오르는 순례객을 보고 그쪽으로 따라가자고 했는데, 여자가 앞선 무리를 그대로 따르자 했다나?

그렇지! 오늘 행로에는 높은 고개가 있었지! 일행을 만나 안도감이 생기자, 판초 속 온 몸은 땀범벅이고, 찬 눈에 얼굴이 붙어 있는 것도 느끼질 못했구만. 결국 70여분을 허비하고 제 코스로 들어설 수 있었지. 이 못난 일행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말소리도 높아진다. 원인이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니 차질은 눈이 길 표식을 덮어버렸고, 또 갈래 길이 있을 때 부지불식간에 평탄한 길로 가고픈 본능 아니었겠나?

Robert Frost가 '가보지 않은 길' 에서 한 말이 있었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지으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무도 쉬어가자는 말이 없다, 잃어버린 시간을 make-up하려고. 나 역시 일행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힘들게 보조를 맞추고 있지, 패권을 잃은 숫사자처럼. 오늘의 실수는 경험 많은 이 중노인의 지혜로 얼마든지 젊은이들을 선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구나.

한 여자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간다. 볼 일이 있는 게지. 그 틈을 타 서로 등 쪽의 판초를 걷어주고 배낭끈을 풀어 먹거리를 꺼내준다. 끈끈한 동료애가 느껴지네. 그 여성이 어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가 바나나 하나를 건네주었지. 이럴 때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이 더 어울리지.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에서, "용변 보고 싶은 여성 더없소?" - "Any more lady nature calls?" - 폭소가 터진다.

'사하군' 이란 도읍으로 들어간다. 성당이 중앙에 위치하고 돌로 포장된 광장 모퉁이에 있는 순례자 휴게소가 비와 눈에 질퍽여 앉기 어렵다. 이를 측은하게 여긴 성당측이 본당 옆의 기도실을 개방해 점심을 먹도록 선처해주는 교직자의 자애로운 모습에 빵을 씹는 내 목이 메인다.

어느 구석에서 웃고 떠드는 우리말이 들려오네, 성당 안에서! 조금 전의 감복이 깨지며 노여움으로 바뀌더군. 그 쪽으로 다가가 "반갑네, 한국인들 만나서" 하며 살피니, 20대의 잘 생긴 두 여성이 되받아 인사하는데 20대와 30대의 남자 넷은 인사도 미소도 없다. "여기는 성당 안이니 타국 사람들처럼 조용히 해줘야죠!" 하고 노인의 티를 냈지요. - 좋은 학교를 나오면 무엇하나,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있어야지! 남들과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시민의식을 갖춰야지…,

한 숨이 나온다. 그래도 동포라고 마지못한 침묵으로 주섬주섬 짐을 챙겨 앞을 스치는 30대 남성에게 아몬드 봉지를 튼어 한 웅쿰 집어주니 그제서야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다운 인사를 하더군. 일본인과 얽힌 셔츠와 독도일이 후회돼 다시는 셈하지 말고 마음에 떠오르면 그대로 베푸리라 하는 각오를 하였지.

점심 후 찬란한 성당 내부를 찬찬히 살피며 성 야고보님의 기도실에 헌금을 하고 촛불을 몇 개 꽂았죠. 성모님 기도실에도 헌금을 하려는데 야고보님보다 더 해야 할 지 또 셈을 하는 내 속물근성이 몹시 추하게 느껴지더군. 저 아름답게 조각된 입체의 성모님이 당신 무릎 위에 피 흘리며 죽은 예수님을 안고 비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평면의 사진틀 안에만 남아 있는 내 어머니가 군에 간 셋째 아들을 행방불명으로 잃고 비통해하던 모습이 겹쳐지더군. 한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사체를 잃고(승천), 한 여인은 살아 있던 모습의 아들만 기억할 뿐인데…, 두 여인 중 누가 더 애절했을지 생각에 잠겼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소.

오후에 접어들며 아예 눈폭풍이 →사하군의 성당 안 내부.진눈깨비를 피해 점심을 먹도록 해준 고마운 성당이다.

다. 젊은이 몇 명은 낮에 떠난 '사하군' 으로 되돌아간다. 나는 진퇴양난이구나. 절반의 짐을 택배로 저녁에 묵을 호스텔로 보내놨으니…, 그대로 진행하자! 해병대 출신에게 후퇴란 없다.

여럿이 뭉쳐 지혜를 모으며 나간다. 바나나를 받아먹은 '코스타리카' 여성은 화가란다. 화구를 앞세워 보냈는데 젖지 않고 잘 도착했을까 걱정이다. 당신 몸 젖는 것을 간수하라고 말해줬지. 바람과 함께 들이치는 눈보라로 전진이 안된다. 영화에서나 보던 눈폭풍이다. 일열로 가도록 소리치고 남자들이 20분씩 교대로 앞장을 서도록 정리해주자 나를 보는 모습이 사뭇 달라졌다.

"커리어 솔져(직업군인)냐" 고 묻더군. 한국의 겨울철 산악지역은 눈이 많아 일렬종대의 행보로 훈련받는다고 말하니, 저녁 테이블에서 내게 각양각색의 경례를 합디다. 그리고 일행이 돼주어 고맙다는 인사들도 잊지 않고.

여기 순례길 식당은 영양을 갖춘 저렴한 값의 pilgrim's menu를 제공한다. 대개 8인 좌석의 테이블이다. 식탁에는 주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와인 한 병씩 놓여 있다. 어디 한 병으로 끝나나? 주인은 선을 베풀어 천국이 보장되고, 순례자는 답례(?)로 몇 병을 더 따고. 선에는 선으로! 기실 이곳 와인값은 무척 저렴하다.

오늘은 인간들의 선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 티격태격 언쟁도, 강한 자기 주장도 함께 겪는 고행 속에 묻혀버리고 순화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진정한 인간가족의 면면을 생생하게 보았지. 그리고 올리브 기름에 졸인 풋고추를 안주삼아 포도주를 한없이 마시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오. 내일 걱정은 내일 몫으로 하고….

▶**제9신** = 앞으로 며칠은 낮은 고원길이라 덜 고생이 되겠다 여겼더니 연일 내린 빗물과 천년 이상을 인마의 발바닥과 수레바퀴가 갈아놓은 석회석 가루가 반죽이 되어 신발에 무겁게 달라붙는다. 몇 걸음마다 돌과 나무줄기에 발바닥을 문질러 흙을 떼어내려니 무척 짜증스럽다.

이태리에서 온 수녀님 몇 분은 아예 맨발로 걷는다. 저 얼음같이 차거운 진탕 속을…, 매우 안쓰럽구나. 길 주변 잡풀로 뒤덮인 덤불 속으로 걸으면 낫겠다 싶어 들어가니 사막성 기후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옷을 찢으려 달려든다. 오늘 목적지는 언제 도착할지 난감하네. 한발 두발 골라 딛으며 가려니 경치와 풍광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비맞은 중처럼 연신 불평조의 넋두리가 중얼중얼 튀어 나온다. 한낮, 메마른 넓은 초원에 당도해서야 늦은 점심을 들면서 친밀한 위로의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흐뭇한 모습이다.

오후 중반쯤 사질의 구릉을 오르는데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철 지난 포도잎엔 녹색과 갈색반점이 무늬를 만들어 오히려 시월하순의 절기를 잘도 표현하네. 길 주변 포도넝쿨이 흩어진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 것으로 짐작컨대 급하게 서리한 까닭이련다.

한참을 가려니 늦은 종자의 백포도가 탐스럽게 늘어져 있다. 견물생심! 행동할 때가 지금 아닌가. 한 송이를 따서 맛을 보니 알은 잘지만 무척 달다. 스쳐가는 청년에게 손을 뻗어 먹어보라 하니 벌써 먹었다며 씩 웃는다. 공범이구나. 갑자기 네 살 먹은 막내 손녀 얼굴이 떠오른다.

그놈 포도를 너무도 좋아하는데…, 일순 단 맛이 달아나며 콧등이 맵다. 그립구나!

멀리 숲과 바위가 어우러진 부채모양의 산 중턱에 높은 성채 비슷한 건물이 엄청난 규모의 포도원을 내려다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고 우뚝 서 있다. 서둘러 오르는데 8kg의 배낭이 18kg처럼 무겁게 느껴지더군. 회백색 건물이 시야를 꽉 채우는 거리에 다다르니 저만치에 20여 명의 남녀가 줄서 있는 모습이 들어온다. 2~3층 높이부터 난 창문에는 굵은 철책이 있고, 실히 5~6층은 될 성 싶은 돌건물 가슴높이 쯤에 오래된 청동 수도꼭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네. 한 쪽은 물이 나오고 그 밑의 이끼 낀 돌 여물통에 물이 넘치는데 동물은 없고, 다른 쪽은 아주 가늘게 붉은 포도주가 졸졸 내리고 있더라.

마침 포도주를 받고 있는 이들은 일전 성당에서 소리내 떠들던 한인 남녀 6명 일행이라 막 반가움을 표시하려는 데 한 30대 녀석이 500cc 물병을 덤불 숲에다 쏟아버리고 있더군. 하나님 맙소사! 이 포도주는 고행하는 구도자를 위로하고자 흘려주는 자비의 선물로 목을 축이고 가라는 것인데 이것을 커다란 병으로 받아가려는 저 추한 욕심! 또한 쏟아버리는 그 물이 어떤 물인데! 뒤에서는 한 잔 받으려 조그만 그릇 - 심지어 페트병뚜껑 - 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무슨 천벌 맞을 짓거리들이란 말인가!

그동안 수행하며 얻은 마음의 평화가 산산 조각나는 느낌이 듭디다. 한 녀석은 나를 면식이 있다고 자기들 무리에 끼워주겠다고 소리쳐 오라는군. 대꾸를 않고 손등으로 어서 꺼지라고 표시하고는 고개를 돌렸지. 마음 속으로는 "동족이라 하기엔 부끄럽고 거친 저들 무리를 솎아낼 방도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저주스런 기도를 드렸구만.

그 한인 패거리가 사라지니 타인종들의 분위기가 살아난다. 사전 지식 없이 닥친 곳이라, 포도주를 몇 모금 받아 마신 후 뒷사람에게 물어보니, 여기가 이라체 수도원(Monasterio Irache)으로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속세를 접하지 못하는 수녀원이라네. 가엾고 애처로운 마음에 울컥 눈물이 솟는다.

먼 산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치 못하겠더군. 눈물은 영혼이 눈을 통하여 표현하는 호소라지? 고행으로 닳아빠진 이 길을 힘들게 가다보면 감정이 폭발하여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을 자주 겪게 되더군. 더욱 오늘은 그 진창길에서의 푸념, 점심때의 친밀한 위로, 포도원에서의 손녀 생각, 수녀원 벽에서 겪은 젊은 동포들에의 저주스런 한탄 등 감정의 기복도 너무 심하였던 까닭이리라.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마음의 담을 헐고자 떠나온 제가 더 이상 담을 쌓지 않도록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폭을 키워주소서!

역시 염려한 대로 목적지 못 미쳐 어둠이 먼저 내려앉아 중도의 알베르게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라 서로의 고생을 위로하고, 순례자 식탁에 자리를 잡아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다음 호에 계속>

"고행하는 구도자를 위해 흘려주는 자비의 선물로 목을 축이고 가라는 것인데 커다란 병으로 받아가려는 저 추한 욕심! 또 쏟아버리는 그 물이 어떤 물인데"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2015.4.2)

동창회비

3월회비 납부자

(63명 $ 4,725)

▶Arizona
지영환(의대59)

▶California
곽명훈(치대73)
김규현(법대53)
김순덕(간호61)
김인숙(간호70)
박종수(수의58)
백만일(공대64)
양광주(문리58)
양은혁(상대56)
이서희(법대70)
이영일(문리53)
이원익(문리73)
이정열(간호68)
이준호(상대65)
장기창(공대56)
장소현(미대65)
전병련(공대54)
정철륭(의대55)
조만연(상대58)
조재길(사대61)
최 철(의대62)
한정헌(치대55)
홍경삼(문리61)
홍성선(약대72)
황훈규(의대62)

▶Wa. DC
김창호(법대56)
마계일(치대)
박평일(농대69)
서기병(상대55)
정계훈(문리55)
정두현(의대55)

▶Philadelphia
배성호(의대65)
이우영(공대56)
최종문(공대61)

▶Georgia
김학래(공대60)

▶Hawaii
임양수(사대63)

▶Chicago
김성일(공대68)

▶Heartland
김호원(치대52)

▶Las Vegas
이학은(약대57)

▶NY & NJ
강석권(법대61)
김명희(미대68)
김승호(공대71)
김완주(의대54)
김정빈(약대54)
송용섭(농대63)
우상영(상대55)
육순재(의대63)
윤신원(의대50)
이경태(공대63)
이대연(약대65)
이정자(간호59)
이현효(공대58)
전병삼(약대54)
전성진(사대54)
조남천(사대59)
조정현(수의58)
조종수(공대64)
한태진(의대58)
현건섭(공대55)

▶New England
고일석(보원69)
최선희(문리69)

▶Texas
김민자(사대58)
김영옥(가정74)

▶Wa.States
김교선(법대54)
김옥영(문리52)

3월이전 명단

▶Alabama
서안희(간호63)
오신중(의대54)
유성무(상대66)

▶Alaska
윤제중(농대55)
하인환(공대56)

▶Arizona
김영철(공대55)
박양세(약대48)
지영환(의대59)
최선희(자연93)

▶California
강동순(법대59)
강명식(의대61)
강영호(의대58)
강재호(상대57)
강정훈(미대56)
강중경(공대48)
강천호(사대58)
강홍제(상대53)
계지영(문리60)
고석규(치대65)
고영순(음대59)
고재천(공대57)
권영달(문리50)
권영덕(공대54)
권영재(의대57)
권오형(사대61)
김강수(문리59)
김건진(문리62)
김경수(치대58)
김경옥(미대61)
김계윤(의대57)
김광은(음대56)
김교복(농대63)
김군빈(법대56)
김기태(의대54)
김낙구(상대67)
김난영(공대53)
김동산(법대59)
김동석(음대64)
김동호(농대58)
김명환(문리67)
김병곤(공대58)
김병연(공대68)
김병완(공대58)
김병호(상대57)
김석두(농대58)
김석홍(법대59)
김선기(법대59)
김수영(사대57)
김순길(법대54)
김순자(치대57)
김영덕(법대58)
김영석(상대62)
김영희(사대56)
김옥경(음대69)
김완기(사대50)
김원경(약대59)
김원탁(공대65)
김원호(약대63)
김윤범(의대54)
김의신(의대60)
김익창(의대48)
김일영(의대65)
김 정(치대 59)
김정민(상대58)
김정복(사대55)
김정애(간호69)
김정희(음대56)
김종태(상대58)
김준일(공대62)
김진형(문리55)
김창무(음대53)
김태윤(법대53)
김현왕(공대64)
김현철(의대57)
김혜숙(약대77)
김희재(사대66)
나두섭(의대66)
나승욱(문리59)
남승채(공대66)
남장우(사대56)
노명호(공대61)
류승일(의대59)
문병길(문리61)
문인일(공대51)
민병돈(문리57)
민영기(치대61)
박경룡(약대63)
박경호(사대53)
박노면(사대50)
박병원(의대49)
박부강(사대54)
박성욱(상대58)
박원준(공대53)
박인수(농대64)
박임하(치대56)
박인창(농대65)
박재영(문리48)
박재호(치대54)
박정모(문리66)
박제인(약대60)
박종수(수의58)
박찬호(공대58)
박찬호(자연81)
박취서(약대60)
방명진(공대73)
방정자(간호61)
배동완(공대65)
배병옥(음대58)
백길영(의대58)
백승호(치대55)
백옥자(음대71)
변영근(수의52)
부영무(치대72)
서경선(음대60)
서동영(사대60)
성낙호(치대63)
손기용(의대55)
손창순(공대69)
손학식(공대61)
송정자(의대67)
신광재(공대73)
신규식(농대61)
신대식(상대60)
신동국(수의76)
신우식(치대59)
심기련(상대57)
심상은(상대54)
심진숙(간호68)
안병일(의대63)
안병협(공대58)
안승호(공대71)
양명교(의대55)
양승문(공대65)
양은석(음대70)
양은혁(상대56)
양창효(상대54)
염동해(농대74)
위종민(공대64)
유두영(공대55)
유석홍(상대61)
유재환(상대67)
유진형(상대51)
유희자(음대68)
윤경민(법대55)
윤경자(약대63)
윤용길(공대55)
윤희성(치대65)
이건일(의대62)
이계승(공대67)
이근원(공대67)
이기재(문리52)
이명선(상대58)
이문상(공대62)
이미정(의대78)
이방기(농대59)
이범식(공대61)
이성숙(공대56)
이성형(공대57)
이영신(간호77)
이영일(문리53)
이원택(의대65)
이익삼(사대58)
이재권(법대56)
이재룡(공대71)
이재선(농대58)
이정근(사대60)
이정옥(공대52)
이종묘(간호69)
이중희(공대53)
이채진(문리55)
이해영(공대56)
이현숙(사대62)
이홍기(공대62)
이홍표(의대58)
이희충(공대68)
임동규(미대57)
임동호(약대55)
임문빈(상대58)
임옥기(법대57)
임정란(음대76)
임창희(공대73)
임춘수(의대57)
임화식(치대59)
임희영(치대67)
장동석(문리66)
장 준(인문 85)
장진성(약대66)
전명선(공대46)
전범수(농대71)
전상옥(사대52)
정규남(공대52)
정균희(의대64)
정동구(공대57)
정동주(가정72)
정수만(의대66)
정예현(상대63)
정재훈(공대64)
정정순(사대56)
정진수(공대56)
정태무(사대44)
정현진(간호68)
제영혜(가정71)
조관상(의대60)
조동준(의대57)
조성윤(법대46)
조정시(공대60)
조태준(문리59)
주정래(상대65)
지종근(농대56)
진성호(공대64)
차민영(의대76)
차재철(의대62)
차종환(사대54)
최경선(농대65)
최덕순(간호59)
최상집(치대65)
최영순(간호69)
최용완(공대57)
최종권(문리59)
탁은숙(문리54)
탁혜숙(음대67)
하선호(치대81)
한민철(치대62)
한상봉(수의67)
한종철(치대62)
한홍택(공대60)
한효동(공대58)
현순일(문리58)
홍병익(공대68)
홍춘만(문리58)
홍유현(음대61)
황규혁(공대50)
황동하(의대65)
황성현(공대56)
황준오(치대70)

▶Carolina
김건일(상대)
김정희(약대56)
마동일(의대57)
신두식(의대58)
이달호(사대46)
이범세(의대56)
한광수(의대59)
홍 훈(자연)

▶Chicago
강수상(의대48)
강영국(수의67)
강화영(문리50)
고병철(법대55)
구경회(의대59)
김갑중(의대57)
김갑조(간호51)
김계균(공대60)
김규호(의대58)
김동희(공대66)
김병윤(문리65)
김사직(상대59)
김연화(음대68)
김 영(문리 66)
김일훈(의대51)
김재관(의대62)
림영신(의대54)
민영기(공대65)
박영규(농대57)
박용순(의대53)
배영섭(의대54)
서상헌(의대65)
소진문(치대58)
송재현(의대46)
송진웅(농대53)
신석균(문리54)
신택수(의대88)
안은식(문리55)
오상현(의대65)
유태종(공대50)
이덕수(문리58)
이상오(문리61)
이소희(의대61)
이소희(간호68)
이승자(사대60)
이승훈(공대66)
이시영(상대46)
이영철(공대60)
이용락(공대48)
이윤모(농대57)
이정일(농대57)
이종일(의대71)
이태영( )
임근식(문리56)
임현재(의대59)
장세곤(의대57)
장시경(약대58)
장윤일(공대60)
장 홍(문리 61)
전경철(공대55)
전현일(농대62)
정승훈(공대60)
정영숙(사대59)
제환수(사대61)
조봉완(법대53)
조형원(약대50)
천양곡(의대63)
최대한(의대53)
최혜숙(의대53)
최희수(문리67)
한상봉(수의67)
한의일(공대62)
한홍택(공대60)
함성택(문리55)
홍 건(의대 64)
홍병익(공대68)

▶Florida
김재석(의대66)
김택희(문리55)
나수섭(의대50)
박창익(농대64)
송용덕(의대57)
신쌍재(수의59)
안창현(의대55)
전영자(미대58)
정진묵(의대50)
한기빈(공대52)
한성수(의대54)
황현상(의대55)
홍순호(수의74)

▶Georgia
강창석(의대73)
김순옥(의대54)
김영서(상대54)
김용건(문리48)
김태형(의대57)
방창모(문리49)
백낙영(상대61)
손종수(의대50)
신동헌(농대49)
안승덕(상대51)
오경호(수의60)
이영진(공대76)
임수암(공대62)
임한웅(공대60)
정광호(공대60)
정량수(의대60)
정일화(상대55)
최재학(사대56)
최종진(의대63)

▶Hawaii
김승태(의대57)
김용수(농대75)
김용진(공대50)
김창원(공대49)
유재호(문리59)
장광수(사대50)
최경윤(사대51)

▶Heartland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제권(사대68)
도태영(사회93)
백산옥(문리51)
이상강(의대70)
정민재(농대70)
차봉회(의대51)
최은관(상대64)

▶Las Vegas
김영중(치대66)
김택수(의대57)
이 관(공대 55)
박정우(의대54)
최영식(법대59)
최창식(의대61)
홍수웅(의대59)

▶Michigan
고광국(공대54)
김국화(공대56)
김용호(약대69)
김우신(의대60)
김재석(의대61)
김정화(음대56)
김희주(의대62)
남성희(의대58)
문경웅(의대61)
박용화(의대52)
박준환(의대55)
서영일(의대62)
신동화(문리55)
유효명(의대58)
이상설(의대52)
이상일(의대54)
이성길(의대65)
임병훈(의대54)
조문희(공대 6)
조병권(공대64)
차대양(공대55)
채무원(의대59)
최병두(의대52)
하계현(공대64)

▶Minnesota
권학주(치대59)
김영남(사대53)
남세현(공대67)
박정선(농대60)
변우진(인문81)
성욱진(치대87)
송창원(문리53)
왕규현(의대56)
이창재(문리56)

▶New England
김만옥(약대56)
김명자(문리62)
김문소(수의61)
김선혁(약대59)
김신형(의대51)
김은태(의대48)
김제호(상대56)
노인규(의대52)
윤상래(수의62)
윤원길(의대59)
이금하(문리69)
정정욱(의대60)
주창준(의대56)

▶NY & NJ
강충무(사대60)
계동휘(치대67)
고순정(간호69)
곽노섭(문리49)
곽상준(약대55)
곽선섭(공대61)
권문웅(미대61)
권영국(상대60)
권용구(상대61)
금동용(문리58)
김경애(간호54)
김광현(미대57)
김광호(의대66)
김규화(상대63)
김기훈(상대52)
김동진(약대56)
김명철(공대60)
김문경(약대61)
김병권(문리63)
김병석(의대53)
김병술(약대52)
김봉련(54)
김석식(의대58)
김석자(음대61)
김수일(약대62)
김순자(약대59)
김영봉(의대83)
김영애(사대56)
김영일(약대58)
김영철(의대55)
김완주(의대54)
김용술(상대56)
김용연(문리63)
김유순(간호64)
김자억(의대69)
김재경(농대58)
김정순(법대53)
김정환(문리60)
김정희(간호69)
김종현(법대57)
김창수(약대64)
김태양(사대61)
김학자(간호59)
김한종(의대56)
김해암(의대53)
김현중(공대63)
김현희(간호59)
김훈일(공대60)
노용면(의대49)
라준국(공대47)
라찬국(의대57)
민발식(의대60)
민준기(공대59)
박건이(공대60)
박경원(미대66)
박성일(상대58)
박수안(의대59)
박순영(법대56)
박승화(간호69)
박영태(상대63)
박은규(약대72)
박중섭(사대74)
박진우(상대77)
박현성(약대60)
방준재(의대63)
배명애(간호47)
배상규(약대61)
백낙환(약대56)
변건웅(공대65)
변호련(간호63)
서병선(음대65)
선종칠(의대57)
성기로(약대59)
손경택(농대57)
손광호(의대59)
송병문(공대62)
송영순(사대60)
신한경( )
심영석(공대76)
안태홍(상대65)
양명자(사대63)
<29면에 계속>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조형원(약대 50)	500
▶최지원(의대 55)	500
▶이희덕(농대 58)	500
▶문광재(의대 68)	500
▶백옥자(음대 71)	500
▶김길평(상대 62)	501
▶이충호(의대 63)	501
▶방은호(약대 43)	600
▶신창민(법대 60)	1,000
▶곽노섭(수학 53)	1,000
▶권기현(사대 53)	1,000
▶정재훈(공대 64)	1,000
▶조순자(문리 53)	1,000
▶한재은(의대 59)	1,000
▶최 철(의대 62)	1,000
▶권철수(의대 68)	1,000
▶박종수(수의 58)	1,000
▶이명선(상대 58)	1,125
▶이준행(공대 48)	2,000
▶차재철(의대 62)	3,000
▶강신호(의대 51)	3,000
▶이상강(의대 70)	5,000
▶고광선(공대 57)	5,000
▶손재옥(가정 77)	10,000
▶이병준(상대 55)	10,000
Total	$ 52,227

회비 3회 이상 납부

▶California
김경옥(미대61)
김동호(농대58)
이소희(의대61)
조만연(상대58)
최용완(공대57)

▶Chicago
조봉완(법대53)

▶Michigan
이영모(의대53)
최병두(의대52)

▶NY & NJ
김문경(약대61)
김석식(의대58)
문석면(의대52)
박순영(법대56)
이강홍(상대60)

▶Rocky Mt.
송요준(의대64)

▶Texas
신철영(문리64)

▶Utah
김인기(문리58)

▶DC
권철수(의대68)
이문항(공대46)

(* 제12대 동창회 2년간 회비와 후원금을 3회 이상 낸 동문들 명단임)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비 및 후원금 (회계연도 2014년 7월 ~ 2015년 6월)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학및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전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B)	(H)	(C)	(Fax) e-Mail:

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포함)	업소록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1회)	대도약 후원금(Brain Network 후원금포함)$ ☐
연 $200 ☐	2014.7~2015.6 $75☐	2015.1~2015.6 $120☐	명함크기(3.5" x 2") $120 ☐ 1/6면 (5" x 4.5") $200 ☐ 1/3면 (10" x 4.5")$400 ☐ 1/2면 (10" x 6.7")$600 ☐ 전면 (10" x 13.5")$1000 ☐ 전면(Back 10" x13.5")$1500 ☐	한국학 후원금 $ ☐
연 $500 ☐				모교 발전기금 $ ☐
연 $1,000 ☐				종신 이사회비 $ ☐
기타 $ ☐				

보낼 곳 : 1952 Gallows Rd.,Suite 206,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snua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703-462-9083>로( ) Check No.( )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 약국/ 치과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213-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의대 65)
Diana Kim MD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치과병원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69) 213-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O)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HAAN Kenneth T.HAAN & Associates
한태호 변호사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클리닉/ 교회

Teamspirit Investment & Dev.
Jennie Lee(간호대 69)Realtor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재정/ 보험/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TX 텍사스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O)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27면서 계속>
양순우(법대 67)
엄종열(미대 61)
우관혜(음대 63)
우상영(상대 55)
유재용(공대 58)
원인순(문리 71)
유재섭(공대 65)
유택상(문리 58)
유영호(의대 52)
윤봉균(사대 54)
윤영섭(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윤현남(공대 64)
이강홍(상대 60)
이경태(공대 63)
이국진(사대 57)
이능석(의대 57)
이대린(농대 67)
이만석(공대 58)
이문자(간호 66)
이상복(의대 56)
이성수(공대 56)
이시진(문리 54)
이영숙(간호 56)
이운순(의대 52)
이유찬(의대 58)
이은미(음대 77)
이재진(의대 59)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종환(법대 51)
이준행(공대 48)
이중춘(공대 56)
이충호(의대 63)
이태성(음대 65)
임공세(의대 63)
장태옥(음대 57)
정계봉(의대 60)
정순기(문리 69)
정창동(간호 45)
조규웅(의대 59)
조대영(공대 61)
조숙자(간호 59)
조아미(음대 61)
조종수(공대 64)
조황환(치대 65)
조희재(음대 58)
진봉일(공대 50)
차국만(상대 56)
최수강(의대 65)
최영태(문리 67)
최영혜(간호 64)
최일단(미대 55)
최종진(의대 55)
최준희(의대 58)
최한용(농대 58)
최형무(법대 69)
최 호(문리 61)
한기현(의대 57)
한성호(약대 60)
한영수(의대 61)
한인수(사대 73)
한태진(의대 58)
함종금(간호 66)
허경열(의대 73)
허병열(사대 42)
허선행(의대 58)
현영수(음대 61)
홍선경(의대 58)

▶Ohio
명인재(자연 75)
박 철(사대 55)
송용재(의대 63)
여준구(의대 64)
이명진(공대 61)
이영웅(의대 56)
최인갑(공대 57)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이은설(문리 53)
정태훈(공대 68)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강영배(수의 59)
강준철(사대 59)
권기상(경영 72)
고영자(치대 63)
김국간(치대 64)
김무형(약대 63)
김순주(치대 95)
김영남(의대 61)
김영우(공대 55)
김재술(약대 58)
김정현(공대 68)
문대옥(의대 67)
민흥식(수의 60)
박호현(의대 52)
손재옥(가정 77)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신선자(사대 60)
신성식(공대 56)
안세현(의대 62)
양운택(의대 58)
염극용(의대 54)
원종민(약대 57)
윤경숙(문리 59)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병인(수의 69)
이성숙(가정 74)
전무식(수의 61)
전방남(상대 73)
전회근(의대 54)
정덕준(상대 63)
정용남(문리 60)
정정수(의대 56)
정태광(공대 74)
정홍택(상대 61)
제갈은(문리 59)
조영호(음대 56)
조화연(음대 64)
주기목(수의 68)
지흥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최종무(상대 63)
최종문(공대 61)
한융오(보원 70)

▶Rocky Mt.
김낙제(농대 56)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녕(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김동수(의대 60)
김태훈(공대 57)
김한섭(의대 53)
김환영(공대 61)
김훈묵(사대 58)
박석규(간호 59)
박유미(약대 62)
박준섭(약대 63)
신달수(공대 50)
신철영(문리 64)
양덕주(문리 66)
유한창(공대 69)
유 황(농대 56)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동성(의대 51)
이영재(상대 58)
이주희(음대 89)
이찬주(문리 63)
이희덕(농대 68)
전중희(공대 56)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천(문리 53)
탁순덕(사대 57)
황명규( )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Wa. DC
강길종(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웅조(문리 56)
강창욱(의대 55)
강필원(공대 51)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응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문(의대 46)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남춘일(사대 69)
문성길(의대 63)
박경훈(상대 50)
박동수(의대 65)
박용걸(약대 56)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박홍우(문리 61)
방정화(의대 61)
백 순(법대 58)
변만식(사대 49)
서윤석(의대 62)
서진석(의대 62)
서휘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구용(공대 59)
신용계(의대 62)
안승건(문리 55)
안인옥(간호 71)
양광수(공대 73)
오광동(공대 52)
유덕영(공대 57)
유재풍(법대 60)
윤경의(공대 57)
윤용준(공대 63)
이경상(농대 80)
이규양(문리 62)
이내원(사대 58)
이문항(공대 46)
이연주(치대 88)
이영덕(사대 61)
이영수(공대 59)
이수안(공대 54)
이유세(사대 72)
이윤주(상대 63)
이재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이주경(경제 82)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임청규(공대 62)
임필순(의대 54)
장수영(공대 57)
장윤희(사대 54)
정기순(간호 67)
정세근(자연 82)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조경윤(공대 57)
조화유(문리 61)
최경수(문리 54)
최규식(상대 64)
최완열(상대 56)
최정미(사대 45)
최준호(공대 60)
한성업(의대 55)
한의생(수의 60)
한인섭(문리 55)
한정민(농대 87)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홍윤기(공대 61)
황보한(공대 56)

▶Wa.States
고광선(공대 57)
김무웅(음대 64)
김석민(사대 55)
김선호(사대 59)
김영창(공대 64)
김재훈(공대 72)
박진수(의대 56)
박찬형(의대 66)
박희주(약대 83)
변종혜(법대 58)
윤재명(문리 65)
윤태근(상대 69)
이길송(상대 57)
이동립(의대 52)
이회백(의대 55)
최준한(농대 58)
홍계인(음대 60)

후원금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California
강신용(사대 73)200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동호(농대 58)200
김영석(상대 62)200
김윤범(의대 54)200
김인국(문리 50)3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종수(수의 58)1225
백옥자(음대 71)200
양은혁(상대 56)200
염동해(농대 74)200
원미랑(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채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균희(의대 64)105
정동구(공대 57)200
조동준(의대 57)200
최용완(공대 57)195

▶Chicago
강수상(의대 48)200
강창만(의대 58)200
서상헌(의대 65)250
송진웅(농대 53)
오상현(의대 65)200
이용락(공대 48)500
전경철(공대 55)200
조봉완(법대 53)200

▶Georgia
정량수(의대 60) 25

▶Hawaii
김승태(의대 57)200
김창원(공대 49)200

▶New England
김제호(상대 56)100
윤상래(수의 62)200
윤원길(의대 59)200
정정욱(의대 60)100

▶N.Carolina
이달호(사대 46) 25
이석형(사대 56)150
한광수(의대 59)200

▶NY & NJ
곽선섭(공대 61)225
권영국(상대 60)200
김기훈(상대 52)200
김명희(미대 68)300
김승호(공대 71)200
김정순(법대 57)200
김정환(문리 60)200
노용면(의대 49)200
문석면(의대 52)200
윤현남(공대 64)200
이강홍(상대 60)500
이운순(의대 52)325
이은미(음대 77)200
이재랑(상대 61)
이준행(공대48)1000
정길현(문리 60)200
정창동(간호 45) 50
조아미(음대 61)200
최한용(농대 58)200
허선행(의대 58)200
현건섭(공대 55)200

▶Ohio
송용재(의대 63)200

▶Oregon
한영준(사대 60) 25

▶Philadelphia
김국간(치대 64)200
손재옥(가정 77)500
송성균(공대 50)200
송영두(의대 56)200
윤경숙(문리 59)200
정정수(의대 56)200
정태광(공대 74)100
지흥민(수의 61)200

▶Texas
김동수(의대 60)125
김환영(공대 61)225
이희덕(농대 68)200
진기주(상대 60)200

▶DC.
강길종(약대 69)200
강연식(사대 57)125
공순옥(간호 66)100
권철수(의대 68)200
김동훈(법대 56)200
김부근(의대 54)300
김진수(의대 60) 50
박용걸(약대 56)425
박평일(농대 69)225
백 순(법대 58)200
서윤석(의대 62)200
석균범(문리 61)200
유재풍(법대 60)200
윤경의(공대 57)200
이영수(공대 59)200
이윤주(상대 63) 25
이재승(의대 55)200
임필순(의대 54)100
장수영(공대 57)200
정평희(공대 71)200
한성업(의대 55)200
홍윤기(공대 61)124

▶Wa.States
고광선(공대 57)500
김무웅(음대 64)225

기타후원

강필원(공대 51)125
서윤석(의대 62)200

종신이사회비

오세경(약대 61)3000

한국학 후원

김해암(의대 53)1000
나영은(가정 86)100
조봉완(법대 53)200

한국내 동문 후원

신창민(법대 60)1000
신헌명(상대 62)300

비회원 후원

강철은(외대전회장) 75

모교 후원

윤현남(공대 64)200

광고 및 업소록

김병연(공대 68)400
김영도(공대 67)300
김원탁(공대 65)200
김일영(의대 65)120
김창수(약대 64)120
김혜정(문리 82)3000
노명호(공대 61)1000
박희진(농대 78)120
서동영(사대 60)240
손재옥(가정 77)1120
이전구(농대 60)1000
이준영(치대 74)120
이영진(공대 76)120
이종묘(간호 69)120
장 준(인문 85)200
정균희(의대 64)120
정재훈(공대 64)120
정진수(공대 56)120
탁은숙(문리 54)200
최종문(공대 61)120
하선호(치대 81)120
한상봉(수의 67)120
서울대병원 1000
Wilshire Bank 1000
Ace Travel 400
김광호(문리 62)6000
(3,6,9,12월 광고)

Homepage광고

이전구(농대60)(500)
오인환(문리63) 500
손재옥(가정77) 500
Moving4U (n/a) 500

2차년도 지역 동창회 분담금 납부

(2014.7 ~ 2015.6)

<완납동창회>
▶NY 3000
▶미네소타 600
▶테네시 200
▶남가주 2,000
(1차년도 완납)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강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용락(공)・오흥조(치)・이영묵(공)・이전구(농)・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종(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동창회 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이영묵(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 행 인 : 오인환(문)
주 필 : 백 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서윤석(의)・이윤주(상)・이해덕(상)
정평희(공)・김정식(농)・진학송(약)・함은선(음)
이나래(경)・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 : 김원영(미대 82)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고병철(법)・조동준(의)・이채진(문)
최용완(공)・정홍택(상)・윤상래(수의)・김창수(약)
차민영(의)・이석구(문)・김용헌(경)・유재풍(법)
장석정(법)・하용출(사)・민경훈(법)・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 원 = 서중민(공)・이민언(법)・윤상래(수의)
김지영(사)・신응남(농)・함은선(음)

인선위원회

김은종(위원장, 직전회장)・오인환(현 회장)・손재옥(차기회장)・이승자(Ch)・김창수(NY)・김무웅(WA)・이영재(TX)

감 사 : 박평일(농)・주기목(수의)

*사진·취재·편집·레이아웃 디자인 =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jennypaek2@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부회장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Jul-Jun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Jan-Dec
	부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Jan-Dec
	부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trading.com	Jan-Dec
	수석총무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an-Dec
	부회장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윤기향(공대 69) 516-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캐로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7)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s Gift
SUSHI NORI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www.jayone.com
562·633·7400
562·633·7474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 Unblocked(Open) TV 방송만 수신합니다.
한국 TV 실시간 방송 수신가능
'Sat & IPTV Multi Media'
인터넷 방송 콘버터/리모콘으로 한국 실시간 방송,
전 세계 실시간 방송,u-tube,드라마,영화.연예,다큐등.
제품 특가: $250(일반가격 $300)월별 추가비용 없음.
설치비용: 본인이 설치불가 하여 기술자 출장 요청시
지역과 소요 시간에 따라 50불에서 100불 이상 예상.
필요조건: 인터넷 모뎀을 쓰고있어야함(WIFI 또는 Ethnet).
연결방식: TV에 영상/음성 또는 HDMI(cable포함되지 않음) 연결.
Linkbox 300
Korea TV
IPTV
1644-038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9998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E-Mail: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저희 한스관광의 목적은 질 높은 내용으로 더 알차면서 여유있는 여행 팩키지를 여러분들께 선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한스 관광에서 단독으로 진행 되는 모든 맞춤 여행 팩키지들은 여행 첫 날부터 끝나는날까지 직접 한스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가고 호텔과 식사 모두다 upgrade 된 고품격 팩키지입니다.한스관광이 각 팩키지 투어마다 엄선하여 제공해 드리는 편안한 잠자리, 여유있는 일정, 그리고 현지 최고 가이드 안내로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SNU GROUP TOUR - Journey Along the Silk Road Uzbekistan
-현지 8박9일 Deluxe Tour
$2490 per person + 항공
-출발일: 4월27일-5월6일
-일정: 타쉬켄트-사마리칸트-부하라-키질쿰사막-히바
*24분 한정 모객
2014년 베네룩스 3국과 노르망디 여행에 이어 2015년 4월 28일부터 8박9일 동안 서울대 여행 동아리와 함께 하는 우즈벡키스탄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0년 전 카라반들이 동서양을 왕래하면서 걸었던 Silk Road를 직접 밟아보는 감동의 여정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와 역사의 요람으로, 또한 알렉산더 대왕과 티무르 왕국, 징기스칸과 터키에 이르기까지 고대왕국들의 패권 다툼의 무대가 되었던사마리칸트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인 타쉬켄트, 아름다운 성으로 싸인 도시 히바, 고대 이슬람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과거의 도시 부하라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HANS TRAVEL 2015 TOUR SCHEDULE
*4월17일-4월26일: 봄의 활츠가 들려오는 아마데우스 동유럽투어 9박10일
*4월26일-5월9일: PORTUGAL&SPAIN 12박13일 초고속 열차,럭셔리 일정
*4월26일-5월9일: GREECE&TURKEY 13박14일 도시항공이동으로 편안하게
*4월27일-5월6일: JOURNEY ALONG THE SILK ROAD 우즈베키스탄
*5월15일-5월28일: 정통발칸 7개국(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월19일-5월30일: 스페인 북부여행+아름다운 명상의 길, 산티아고 순례길
*5월25일-6월11일: PORTUGAL&THE BEST OF SPAIN 17박18일
*6월8일-6월15일: LAST FRONTIER 알라스카 딜럭스 인랜드 투어 7박8일
*7월27일-8월9일(1차), 8월10일-8월23일(2차): 러시아/북유럽 13박14일
*9월10일-9월21일: TASTE OF SPAIN+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은 맛있다!
*9월13일-9월22일: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9월21일-10월4일: SPAIN, PORTUGAL, MOROCCO 13박14일
*9월23일-9월30일: HOLIDAY IN CROATIA+ALPS TOWN, SLOVENIA
*9월29일-10월7일: 맛따라 멋따라 2차 고국일주 울릉도, 독도, 바다기차
* 원하시는 날짜와 일정에 맞춰 맞춤 팩키지 만들어 드립니다(10분 이상)
한스관광 HANSTRAVEL.COM
HANS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팔,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Durable, Efficient, Beautiful

ENERGY STAR PARTNER

· Digital Technologies & High-tech Monitor System
· 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Saving Design
· Nationwide 18 Branches & Warehouses
· Company Operated Service Network
· 3 Year Labor & Parts Warranty

17th Anniversary

창업 17주년을 맞이하는 터보에어 그룹은 세계적인 상업용 냉장고 생산업체로서

미 전역 18개 지사 및 물류창고, 7개의 계열사를 운영 중이며

미국, 한국, 중국에 위치한 5개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 53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Dallas, TX 에 26 Acre 부지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던 터보에어는

지난해 Long Beach, CA 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6만 Sq.Ft. 규모의 초현대식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보다 편리한 위치와 최신식 건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New Headquarters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oll Free : 800-627-0032
www.turboairinc.com

서치원(공대 69)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C)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